유리 불교 미술 연구원
탱화 · 단청 · 조각 · 불교 건축 전문
원 장 김 영 식
T. 931-2287(화실), 936-0069(전시관)

현대불교

고객을 크게 서비스는 봉생
빅맨평생통장
♣예금 거래 실적이 10배 최고 1억원까지 대출해 드립니다.
♣3년이상 거래하시면 거래기간에 따라 상환기간이 최고 30년까지 늘어납니다.
구한은사는 080-023-4000
국민은행

회장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1년(서기 1997년) 11월 12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제 150 호

'참회의 삶'을 살자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한 운 사

시는 우리 어머니한테 소개해주고 몰래 부산으로 도망쳐 내려갔다. 그리고 거기서 이상한 직장에 들어가 원래의 나와 생판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녀가 어머니를 모시고 왔을 때 나는 같이 있기를 꺼려했다. '개딱지조선관'이라고 이 나라를 저주하며,

젊은 날의 사랑과 후회

나는 밤새 타락의 나락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다른 연상의 여인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바치며 정신을 차리지못하고 있었다. 피난 수도 같바닥에서 울며 매달리는 그녀를 뿌리친 나. 어디서 그런 잔인한 용기가 생겼는지 모른다.

수복이 되고 세월이 가고 나는 여자와 결혼이라는 것을 했다. 우연히 서울 길바닥에서 그녀를 만난 적이 있다. 가난해 보였다. 도와주지 못했다. 다소의 명성은 얻었지만, 내젠 돈이 없었다.

훨씬 뒤 어디서 또 만났다. 스님이 되었다고 했다. 나는 그녀의 일생을 망친 나라는 인간의 뻔뻔스러움에 새삼 놀랐지만 그 때도 도와주진 못했다.

세월이 흘러갔다. 이젠 그 소식조차 아는 이가 없다.

한마디 원망도 안하던 바다와도 같은 그 너그러움. 작품속에서 "인간을 사랑하라"고 외치는 것은 나의 위선인가. 부처님이 빙그레 웃으시는 것만 같다.

〈작가〉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인터넷 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
구독 · 광고 문의 (02)737-8881

"세계일화 한몫 하겠어요"

주한 외국인스님 첫 연수 32명 동참…조계종 매년 개최할듯

"차 한잔에도 이토록 깊은 의미와 예법이 있다니…"

외국인 스님 32명은 차향과 맛을 음미하며 몸소 체험한 한국불교에 대해 연신 감탄사를 쏟아냈다. 외국인스님들의 푸른 눈동자는 감행군으로 이어지는 일정속에서도 무엇하나 놓치지 않으려는 열의로 가득 찼다.

5~7일 3일간 순천 송광사(주지 현고)에서 주한 외국인 스님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회가 조계종 교육원(원장 암도) 주최로 열렸다. 외국인남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불교를 배우는 것은 한국불교사상 처음의 자리였다.

연수회에는 화계사 국제선원, 연등국제불교회관, 송광사, 팔굴사, 미국 홍법원 소속의 비구 26명, 비구니 6명 등 모두 15개국 32명의 외국인스님이 참가했다.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혜암스님, 전계대화상 청하스님 등 종단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입제식에서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한국불교 조계종단의 정통수행법을 익히고 자긍심을 고취해 한국불교를 세계에 홍포하는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수회는 주로 강의로 이뤄졌다. 포살, 참선실수, 소참법문, 다도강습, 한국불교문화에 대한 슬라이드 상영 등. 다도강습과 슬라이드 상영이 가장 호응도가 높았다. 한국불교는 인간심성과 자연에 가장 가까운 훌륭한 가르침이 담겨있다고 참가자들은 입을 모았다.

이번 연수회는 외국인스님들에게 수행전통 및 교학체계 등 한국불교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나아가 세계 각국에서 한국불교를 홍포하는데도 한 몫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교육원은 "반응이 좋아 정기적 개최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송광사=한명우 기자〉



◇차음으로 열린 주한 외국인스님 연수회가 32명이 동참한 가운데 송광사에서 성료됐다. 〈사진=고영배 기자〉

조계종 내년예산 2백5억원 책정

작년비해 3.3% 증액

조계종이 내년도에 포교, 승가교육, 대사회활동, 불교문화사업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최초로 2백억원 규모를 넘어선 조계종 내년 예산중 순수일반회계의 약 60%가 이같은 사업에 쓰여질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조계종이 제129회 정기중앙종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확인됐다.

조계종의 내년예산안의 규모는 총2백4억9천만원 선이며 이 가운데 승가교육과 포교예산이 올해보다 각각 22.39%, 26.65% 상향조정된 34억6천만원과 18억5천만원으로 책정됐다.

조계종의 내년 예산은 지난해에 이어 중앙분담금과 특별분담금을 동결해 본말사의 부담을 줄인 한편 직영, 관람료, 비수분담금을 소폭 인상해 전체적으로 3.32%의 인상율을 보이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갑사 토지수용 강행 '또 물의'

마곡사 본말사, 내무부에 철회요청 성명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토지수용계획은 변함이 없다.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회신을 보내는 등 갑사 경내지 청소년야영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 갑사 강제토지수용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최근 갑사토지수용을 위한 마지막 절차인 토지감정평가단이 현지를 조사했으며 감정평가 결과서만 나오면 토지를 수용하는 것은 시간문제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대해 제6교구본사 마곡사등 본·말사 사찰들은 내무부등에 토지수용 철회를 요청하는 성명서를 3일 발표했다. 이 성명서에서 제6교구 본말사 사찰들은 "경내지에 청소년 야영장공사를 강행할 경우 물리력으로 막아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조계종 사찰환경보존위원회 역시 10월 10일자로 발효된 전통사찰보존법과 환경피해분쟁법에 의거, 소속사찰과 추진하는 것을 협의해야 함에도 절차를 거치지 않아 백지화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이와함께 전체 2천평중 6백여평에 前총무원장과 前주지가 보전임지전용에 동의한 것은 승인과는 내용이 달라서 일반관례상 토지수용된바가 없다며 법률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갑사토지강제수용을 철회토록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14일 동안거 결제

정축년 동안거 용맹정진이 백양사 고불총림 고불선원등 전국 70여 선원에서 14일 일제히 결제된다.

이번 동안거에는 약 2천여 수좌들이 용맹정진에 들어갈 것으로 파악돼고 있다.

한편 외국인 수행자도 동안거에 참여 서울 화계사 25명 계룡산 신원사 20명 순천 송광사 5명 등 50여명이 입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3회 신행수기 공모

마 감 12월15일

현대불교신문이 제3회 신행수기공모를 합니다. 가슴에 묻어두기에는 너무나 아쉬운 신행의 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는 더 많은 불자들의 삶에 귀감이 될 것입니다. 현대불교 신행수기공모는 회를 거듭할수록 감동과 신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푸짐한 상품이 준비돼 있으며 현대불교신문 지면에도 게재됩니다. 많은 동참을 기대합니다.

공모 내용

△주 제: 생활속 수행이야기,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분 량: 2백자 원고지 30매 내외
△접수처: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02)722-4162
△당선작 발표: 현대불교신문 98년 신년호
△시상내용
- 유마상: 상장 상품(부처님상조각 순금메달)
- 종단협의회장상: 상장 상품(부처님상조각 순금메달)
- 본사사장상: 상장 상품
- 특별상: 상장 상품 · 응모자 전원: 기념품 증정



◇불자들은 3천배 참회 철야정진으로 마음의 등불을 밝혔다.

'3천배 참회' 동참과 격려 감사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은 창간 3주년을 맞이 삼각산 도선사와 공동으로 '참회하는 삶을 위한 3000배 바라(鉢) 정진(力) 대법회'를 성료했습니다. 참회대도량 도선사에 운집한 2천여명의 불자들은 1일과 2일 이틀간 철야정진하며 궁극에는 스스로를 향한 대참회와 깨달음을 발원하였습니다. 대법회 동참불자 여러분을 비롯해 현대불교 애독자 여러분과 도선사 신도님들 그리고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전국의 불자님들께 우선 지면을 빌어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성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불기 2541년 11월 2일

도선사 주지 동광
현대불교신문 사장 김광삼 합장

열린마당 말사주지 공채 21면
하남 용담사 무너질 위기 23면
3천배 철야정진 현장 19면

수맥파차단 단열방습지 알솜 Alsom 신개발

알솜 Alsom은 수맥파차단과 단열을 동시에 해결합니다!



· 실용신안특허출원 제26706호 · 실용신안특허등록 제89207호 · 상표등록특허출원 제45121호

고순도의 알루미늄과 복합소재를 사용하여 국내최초로 개발된 수맥파차단 단열방습지 **알솜 Alsom**은 간편한 시공으로 수맥파를 차단하면서 단열과 습기, 독성등을 동시에 차단하는 혁신적인 신제품으로 냉·난방의 열효율을 한층높여 연료비를 현저히 절감시킬 수 있으며, 아울러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용 도 신축 및 기존 건축물, 아파트, 침대 등

전국대리점모집

알솜 1000

■ 수맥파의 가공할 위험 차단효과!
수맥이 흐르거나 습기가 많은 대지에 건축된 집안이나 사무실에서 생활하게 되면 머리가 자주 아프고 잔병이 많을뿐만 아니라 병의 회복을 방해하고 수험생의 학습장애를 일으키며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몸이 가볍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원인의 수맥파와 습기를 차단키 위하여 본제품이 개발되었습니다.

■ 복사열선95%차단하는 경이적인 단열효과!
알루미늄단열재는 찬공기와 복사열선을 95%차단하는 경이적인 단열재입니다. 특히, 여름철은 시원하게 겨울철은 따뜻하게 해주는 보온, 방습단열재입니다.

알솜 100

■ 단열과 방습만을 목적으로 사용시는 알솜 1000이 가격 저렴하여 훨씬 경제적!

본 제품의 특성

수맥파 차단 및 방습, 방수, 방음효과 : 순도 99.6%이상 고순도 알루미늄 2겹과 아스팔트확스등 복합소재 사용
단 열 : 알루미늄 물성상 복사열선 95%차단
독 성 차 단 : 시멘트 몰타르등의 유해성분 차단
편리한 시공 : 줄무늬를 인쇄하여 절취가 편리하고 재질이 유연하여 사용이 간편
파격적인 가격 : 알루미늄재질 사용으로 가격저렴

제조원
SAMMIN 삼민산업주식회사
본사 · 공장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91-8 (시화공단 4나-109호)
TEL : (0345)498-5533(代) FAX : (0345)498-8998

사 설

기초자료의 중요성

대한불교 조계종이 최근에 출간한 세권의 책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 문화재 관련 기초 자료집인 〈불교사원지(상)〉과 〈성보문화재 지정 현황보고서〉, 그리고 승가교육의 산실인 전통강원에 관한 자료집인 〈강원총람〉이 바로 그것이다.

조계종이 외적 자주화와 내적 민주화의 기치를 내걸고 '개혁'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어려움이 많다. 의형적인 변화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내실이 더 중요함을 실감하고 있다. 이번에 출간한 책들은 바로 이러한 기초를 다지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불교가 한국문화의 정신적 지주임을 한눈에 보여주기도 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불교문화재가 우리문화유산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양적으로도 전체 문화재의 70~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질적으로도 아무런 손색이 없다. 세계적인 성지로 공인을 받은 곳도 있다. 그러나 그동안 버려지고 가리워진 불교문화유산이 너무나 많았다. 찬란했던 성보문화재와 이를 생산해 내던 수도도량이 폐사지로 되어 우리 민족의 성지를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불교사원지〉에 기록된 사원지의 수는 기존에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수의 두배이며, 앞으로 정밀조사에 따라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불교사원지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은 잊혀져 가는 삼보정재에 생명력을 불어 넣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장기적인 불교계의 숙원사업인 폐사지의 발굴과 복원에 밑거름이 될 것이다.

한편 〈성보문화재 지정보고서〉는 단순한 현황파악의 차원을 넘어 다양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정문화재 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단이나 단체 및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성보문화재도 파악되었다. 불교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와 행정체계의 정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교육원에서 펴낸 〈강원총람〉은 한국불교사 속에서 승가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를 연표를 통해 볼 수 있다. 그리고 현단계 승가교육의 문제점과 과제를 알아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불교발전의 기초가 될 세권의 자료집 출간의 뜻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쉬운 점이 많다.

첫째, 실질적인 답사를 통한 생동감 있는 보고가 미흡했다. 역사적인 자료와 문헌에 의존하다 보니, 정확한 지표조사나 가리워지고 버려진 불교문화유산의 발견은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자료수집과 정리에 그친 감이 있다. 역사적인 기록이나 문헌들은 오류도 있을 수 있고 지나치게 주관적인 주장도 있을 수 있다.

둘째, 조사단의 보완과 상설 연구조사기구의 설립이 절실히 요망된다. 조사단에 좀더 많은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며, 충분한 역사적 실증적 검증이 뒤따라야 한다. 종단 산하 또는 재단법인으로 가칭 '불교문화유산연구소'를 설립하여 공신력 있는 조사와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인적, 물적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끝으로 이번 자료집들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보완 작업이 있기를 기대한다. 충청지역, 호남지역, 제주지역의 사원지 실태를 담을 〈불교사원지〉 하권의 출간도 차질없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무형불교문화재의 현황보고서도 시급히 필요하다. 이에 기초한 불교계 자체의 성보문화재 지정과 관리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포교, 역경, 교육, 종무행정등 불교발전의 기초가 되는 자료집이나 지침서의 제작도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전통사찰 보존구역 확대하자"

국민회의 연등회 '전사법개정안' 국회제출

각종 개발로 인한 전통사찰의 경내지와 인접 지역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전통사찰보존법(이하 전사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불자의원들의 모임인 연등회(회장 박상규)는 5일 불교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재 개회중인 제185회 정기국회에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안'을 지난달 31일자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연등회 회장 박상규의원은 간담회에서 "지난 4월 전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10월부터 시행령이 효력을 갖고 있지만 개발로 인한 사찰환경의 훼손을 방지할 법적 장치는 미약해 연등회 의원들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연등회가 국회에 제출한 전사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전통사찰보존구역을 정의하는 현행 전사법 제2조의 6항에서 '전통사찰의 경내지로서'라는 부분을 '…전통사찰의 경내지 또는 경내지이외의 지역으로서'로 고쳐 전통사찰보존구역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또 전통사찰보존구역 안에서의 개발행위를 금하는 제9조의 2항에서 현행 '전통사찰보존구역 안에서는'부분을 '전통사찰의 경내지에서는…'으로 고치고 '경내지 이외의 지역으로서 전통사찰의 보호와 존엄 및 풍치보존에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인·허가등을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문화체육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함'을 신설한다는 것도 포함돼 있다.

조성준 정한용 추미애의원등 연등회소속 20여의원의 발의로 국회에 상정된 전사법 개정안은 기존의 법이 규정하는 전통사찰의 보존구역을 확대해석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사찰인근지역의 개발에 대해 문체부장관의 의견이 수렴되도록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의 사찰환경 분쟁이 건설교통부나 통산산업부등의 부처에서 인·허가권을 행사한데서 비롯된 점을 감안할 때 문체부장관의 의견반영은 사찰환경 분쟁의 근원요인을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케 하는 것이라고 연등회 의원들의 설명이다.

〈임연태 기자〉



◇국민회의 불자모임 연등회 소속 박상규 조성준 정한용 추미애의원은 5일 불교기자간담회에서 '전사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군종훈령' 부분개정 건의

'인가시설에만 성물 봉안' 조항 포교 위축

국방부가 10월27일 각군에 시달한 '군종업무 규정령'이 군내 종교편향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국방부의 의지를 담았지만, 군내의 종교현황과 현실을 충분히 고려치 않은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교계의 대책이 요구된다.

규정령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인가된 종교시설에만 성구·성물을 상시 비치할 수 있다'(13조)는 조항이다. 이는 현재 군내 대대급에 인가된 법당이 한곳도 없는 불교계로서는 대대차원의 불교활동은 자동적으로 규정위반이 되는 셈이다.

또한 '종교시설 건립을 위해 모금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20조)는 규정에 대해서도 군법사들은 군법당 건립불사 대부분이 화주와 사찰신도들의 동참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며, 모금금지 및 지원창구 단일화는 사실상 법당건립 불사를 제도적으로 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혜스님(조계종 포교부장)은 "규정령을 신중히 검토, 문제점이 있다면 국방부에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규정령 제정과 관련 국방부군종감실(실장 박성대 신부)이 9월 공청회 이후 불교측에 한번도 세부사항을 알리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장기이식법 국회통과 '불투명'

뇌사와 장기이식을 합법화하는 취지로 입법예고된 장기이식법이 법제처의 심사에서 '유족부분 동의' 부분에 대한 법률적 해석 논란으로 통과되지 못해 연내 제정이 무산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법안 제16조 제2항 '장기이식 활성화를 위해 뇌사자의 장기를 유족의 동의하에 적출할 수 있다' 부분을 '사망자가 생전에 장기기증을 동의한 경우에 한해 장기적출이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이번 정기국회 통과가 사실상 힘들게돼 보건복지부는 내년초 공청회를 통해 논의한 뒤 다시 상정키로 했다.

역경·포교사회학과 신설

중앙승가대 내년 30명씩 모집

중앙승가대학교(총장 지하)는 5일 교육부로부터 역경·포교사회학과 신설에 대한 인가를 최종 확정받았다. 이에따라 중앙승가대학교는 98학년도부터 역경학과, 포교사회학과 각 30명을 모집한다.

또한 2개학과 신설에 따라 필요한 5명의 교원도 98년 2월까지 충원할 방침이다.

신설학과는 기존학과(불교·사회복지학과)의 정원을 각각 30명으로 감원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져 입학정원은 1백20명으로 변동이 없다. 〈관련기사 3면〉

종교언론인 토론회

15~16일 '종교화합' 주제

한국불교기자협회와 기독교신문협회 평화신문은 10월 28일 문화체육부 종무실 초청으로 모임을 갖고 15~16일 이천 미란다호텔에서 '종교화합을 위한 종교언론의 역할' 주제의 심포지엄을 열기로 했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회장 김몽은신부)가 주최하는 이번 심포지엄에는 불교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언론인 40여명이 참가, 박일영교수(카톨릭대)의 '종교와 무속' 특강과 기독교신문 최규창 편집국장의 '종교화합을 위한 종교언론의 역할'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종교언론인이 한자리에 모여 종교간 화합을 주제로 토론을 벌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총지종 통리원장에

총지화 지수 선임



총지종 제11대 통리원장에 총지화 지수(62, 대전 만보사 주교)〈사진〉가 선임됐다. 총지종은 3일 지난 9월말 열린 임시종회에서 총지화 지수를 인준한데 이어 10월 14일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총지화 통리원장은 1936년 전주 출생으로 76년 대전 만보사 주교, 89년 중앙 종의원과 충청교구장, 91년 통리원 교정부장, 94년 사감원장 등을 역임했다.

조계종 포교사 고시

23일 서울등 6개도시서

조계종포교원이 실시하는 제3회 포교사고시가 23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6개 도시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이번 포교사고시에는 논문고시가 폐지돼 지난해보다 두배 가까운 627명이 응시했다. 합격자발표는 12월중 출신 불교대학에 통지한다.

사찰종무원 호봉제 확산

봉은·전등·석왕사 등 실시
이직률 감소 종무행정 활기

사찰에서도 종무원 급여체계의 합리화를 위해 급여 호봉제를 도입하고 있다.

봉은사(주지 무상스님) 전등사(주지 장윤스님) 석왕사(주지 영담스님) 보광사(주지 효림스님) 등 일부사찰에서 실시되고 있는 이 제도는 각 사찰에 점차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종무원들은 일정한 급여 기준없이 보시금 형태의 임금을 받는 것이 관행이었다. 이로인해 신심을 갖고 불교일을 하고자 들어왔던 수많은 재가 불자들이 경제적 현실에 부딪쳐 불교계를 떠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93년부터 9급공무원 급여기준에 준해 호봉제를 시행해온 봉은사는 현재 20여명의 종무원들에게 기본급(대졸초임 55만원)과 상여금 4백%를 호봉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 부천 석왕사도 4년 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 교육청공무원의 급여기준을 참조해 호봉규정을 마련, 상근자들에게 기본급(초임 60만원)과 4백50%의 상여금을 주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전등사는 기본급(대졸초임 45만원)과 상여금 3백%, 작년에 시작한 보광사는 기본급(대졸초임 53만원)과 4백%의 상여금을 근무연차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

석왕사 총무인 능윤스님은 "기업체나 공무원의 봉급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급여체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다"며 "이제는 불교계도 안정적 재정구조를 갖춰 실력있는 인재들이 교계를 떠나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사찰 종무원은 "호봉제가 도입됐다고 해서 종무원들의 급여나 복지수준이 높아진 것은 아니다"며 "종무원을 직장인으로 대우하지 않고 불심을 이유로 희생을 강요하는 교계 인식이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이 제도도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주일 기자〉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8881

현대만평

박구원



상수도공사에 절이 무너질 판

「부다피아 포교기금」은 PCS 016과 함께 하는 불교통신사업입니다.

작은 선택만으로 불국토를 만들어 가는…

PCS 016 『부다피아 포교기금』

PCS는 · 통신전문가 「한국통신프리텔」
가입신청은 · 「포교기금 부다피아」로.

"통화료의 5%는 통일포교와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용됩니다."

100년 기술이 PCS 016에 모아집니다

포교기금 부다피아이란?

PCS 016 가입시, 「포교기금 부다피아」로 신청만 하시면 최고의 이동통신서비스를 받으시면서 불국토를 만드는데 힘을 보태실 수 있습니다.
고객에겐 조금의 부담도 없이 사용 통화료의 5%가 「부다피아 포교기금」으로 적립되기 때문입니다. 이 기금은 전문단체를 통하여 통일 포교와 불우이웃 돕기로 쓰입니다.

"「포교기금 부다피아」가 꿈꾸는 세상, 모두가 하나되는 부처님나라."

■ 「포교기금 부다피아」 PCS 016 전국 가입처 ■

서울본사 02-732-1522 부산지사 051-634-5114 광주지사 062-375-9986 대구지사 053-768-8008 목포지국 0631-281-2534 속초지사 0392-636-3923 청주지사 0415-63-3873 강릉지사 0391-653-1518 인천지사 032-461-3461 대전지사 042-625-1080
안산지사 0345-411-4580 진주지사 0591-747-0106 마산 창원지사 0551-84-0735 공주지국 0416-55-0020 고성지국 0556-72-0078 예산지국 0458-33-5097 포항지국 0562-252-7749 고양지국 0344-912-2323 영주지국 0572-34-3429

· 주관 : 현대불교신문사 · 후원 : 한국통신프리텔, 우리민족 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 소쩍새마을, (사)감로심장회

교육·포교·복지 '집중투자'

조계종 내년예산 어떻게 쓰이나

승가대 이전 30억·불교회관 26억 편성

관람료 분담금 증액…포교연구비 10배

조계종의 내년 예산 총규모는 올해보다 3.33%인상된 2백4억9천만원 규모다. 이는 일반회계 1백47억 5천만원과 불교종합회관 건립금 26억, 중앙승가대 이전 특별회계 30억 신도교무금 특별회계 11억 4천만원이 합쳐진 것.

조계종 총무원이 1일 종무회의를 거쳐 중앙종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종단의 핵심사업인 승가교육과 포교예산, 종단의 대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한 사회사업, 복지, 문화유산보존등에 중점 편성된 것이 특징이다. 또 중앙분담금과 특별분담금을 동결하고 직영분담금과 관람료분담금 미수룐담금을 상향조정해 본말사의 분담금 부담을 덜어준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1일부터 15일까지 회기로 열리고 있는 중앙종회에서의 심의통과를 앞둔 총무원과 교육원, 포교원의 내년 예산은 어디에 어떻게 쓰여질지 분야별 특징을 정리해 본다.

총무원 종정예경실, 원로회의, 총무원장실, 호계원, 법규위원회, 중앙성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 총무원의 내년 예산총액은 56억6천8백만원 규모다. 총무부는 교구 보조금을 전법도량의 활성화를 위해 올해의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증액편성했다. 부처님 오신날 봉축관련 예산의 현실화와 직할사암의 봉축행사 비용부담 감소를 위해 2억 7천2백만원을 봉축행사비로 책정됐다. 특히 총무부는 내년에 종단의 문장(紋章)을 개발 종단의 이미지 통일작업을 한다는 계획을 수립 2천8백50만원의 예산을 상정했다.

문화부는 불교문화창달과 성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올해에 이어 실시되는 제2차년도 사지현황조사와 성보관리자 연수교육을 위한 예산을 새로 편성해 각각 2천4백만원과 1천1백만원을 편성했다. 산하조직인 성보보존운영위원회의 운영예산을 3천만원에서 7천2백여만원으로 1백% 이상 증액하고 성보관리 예산도 1백70만원에서 4천6십만원으로 대폭 높힌 것은 성보관리를 위한 종단적 의지의 반영으로 풀이된다.

재무부의 경우 망실재산 환수에 1천4백50만원을 투입 종단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사회분야 종단유관조직단체 구성및 지원사업 예산을 2천3백만원 책정한 사회부는 대사회부문 개발과 문제해결을 위한 네트웍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사회부는 복지시설 운영의 강화를 위해 불교사회복지재단에 금년보다 1억2천만원을 인상한 4억2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기획실은 내년에 2차로 중앙종무기관의 전자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에 2억8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종법령 해설서 발간에도 2백5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교육원 교육원의 내년예산 총규모는 34억6천여만원이다. 교육원의 내년 예산은 각종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과 재교육에 집중 편성됐다. 4년제 정규대로 승격된 중앙승가대학과 지방승가대, 승가대학원이 대한 보조금등 기본 교육 지원금이 올해보다 4억2천여만원 증액됐다. 각교구본사의 7직국장 연수와 교무국장 연수를 위한 예산이 1천2백50만원과 5백90여만원 새로 편성됐으며 전산교육 예산도 1천3백여만원 책정됐다.

이밖에도 교육원은 올해 〈강원총람〉에 이은 〈선원총람〉 발간사업과 한글대장경 번역사업 팔만대장경전산화 사업에도 계속적인 지원을 한다.

포교원 종단의 중점사업인 포교와 전법사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취지에 따라 포교원의 내년 예산은 금년보다 26.65% 인상된 18억 4천9백여만원이 책정됐다. 포교원은 신도행정과 관련 신도등록및 신도증 발급사업을 추진하며 올해 등록된 10만명의 신도관리를 위한 전산자료 입력사업에 2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법회와 설법〉지의 발간과 청소년불자연합 파라미타에 대한 지원도 지속키위해 각각 1억3천만원과 1억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종교편향정책등에 대응키 위한 특수포교비 2천여만원을 새로 책정하고 신행체계화 연구사업과 주요신행프로그램 연구사업등 포교연구비 금년 5백만원선에서 5천7백만원 규모로 상향조정했다.

임연태 기자

종단 3대사업 활성화 기틀

중앙승가대 역경·포교사회학과 증설 의미

중앙승가대학(총장 방지하)의 역경학과 포교사회학과 증설은 정규대학 승격 이후 명실상부한 불교종립대학으로서 위상정립에 한발짝 다가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로써 중앙승가대학은 불교학과 사회복지학과 역경학과 포교사회학과의 4개 학과를 설치케 돼 한국불교의 주요 3대 사업인 포교 역경 도제양성이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특히 역경학과는 정규대학 차원에서는 처음 신설된 것으로, 그동안 역경의 중요성에 비해 역경작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현실에서 교계는 크게 환영하고 있다. 역경시업의 가장 큰 장애로 지적돼온 것이 역경인력의 부족으로 역경학과는 이를 해소할 산실 역할을하게 된 것이다.

포교사회학과 신설은 불교의 사회화와 대중화 현대화의 과제를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이론정립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불교발전을 진작케 할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종교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포교를 사회에 접목시키고 양적으로 괭창하는 포교사들의 자질함양과 포교사의 학문적 체계정립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역경학과와 포교사회학과의 증설로 인해 관련 학회나 연구활동을 통한 연구소 추진 등도 기대할 수 있다는 불교학계의 희망에찬 진단도 나오고 있다.

목어

'손맛'

김장철이다. 옛부터 입동무렵이면 집집마다 월동양식으로 김장을 하면서 일손과 배추쌈을 나누는 것이 우리네 세시풍속이다. 세월이 많이 변하다 보니 요즘은 김장김치도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시대가 됐다. 공장 김치를 사 먹으면 일손도 덜고 간편하겠지만 어머니들의 손맛과 인정이 차츰 사라지는 것 같아 안스럽다. 김치 제조업자들에 의하면 인터넷으로 김치를 주문한 이들은 대부분 서울과 수도권에 사는 20~30대 맞벌이 부부들 이라고 한다.

젊은 주부들이 한국 식생활의 기본 식품인 김치·된장 만들기를 외면한다면 각 가정이 지켜온 손맛은 머지 않아 사라지고 말 것이다. 국민의 입맛은 획일화된 공장 음식에 길들여질 것이다.

아기들이 엄마의 젖 대신 분유를 먹고 자라는 세상인데 김치쯤 획일화되면 어떠냐고 반문할지도 모른다. 생각깊은 어머니가 모유로 자식을 기르듯, 우리가 어머니들의 손맛을 전수해야 하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일본의 식생태학자 스가와라 아키코 박사는 비행청소년을 만드는 음식으로 콘플레이크를 우유에 타먹는 미국식 아침식사와 점심으로 먹는 햄버거·콜라 등을 지적했다. 그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것은 온가족이 대화를 나누는 따뜻한 식탁 분위기라고 일러준다.

"아이들의 생일파티를 비디오로 봐야했을 때가 가장 슬펐다. 사는게 아니었다." 미국의 여성기업인 브랜더 반즈여사(43)가 여성최고의 연봉자리 콥시콜라 북미지역 사장직을 내놓으면서 한 말이다.

중부지방의 경우 이달 15~20일이 김장적기라고 한다. 젊은 주부들이 팔 걷어부치고 김장을 했으면 좋겠다. 김치는 한국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기본음식으로 한국의 맛을 대표한다. 각 가정에서 사랑과 정성이 담긴 특유의 '손맛'을 살려낼 때 가족이 건강하고 나라가 튼튼할 수 있다. 때문에 김치 담그기를 거부하는 여성은 한국의 어머니로서 자격 상실이다.

훗날 '김치 인간문화재'를 지정하거나, 한국의 김치보다 일본의 기무치가 더 세계인에게 알려지는 비극은 없어야겠다.

"한국의 여성들이여, 김치종주국의 자리를 지킵시다. 가족건강 나라사랑이 그속에 있습니다."



수요 인터뷰

동국대 명예 철학박사 학위 받은

日 정토진종 오타니 코오신 문주

"일본불교 뿌리는 한국입니다"

일본 정토진종 오타니 코오신(大谷光眞·52) 문주(종정)가 5일 동국대학교에서 명예 철학박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오타니 코오신 문주는 동경대학 문학부 인도철학과 및 동 대학원 인도철학, 용곡대학 석사과정 진종학과를 졸업했으며, 77년 정토진종 본원사파 문주에 취임해 일본 불교계에서 왕성한 활동을 펴고 있는 인물. 일본 용곡대학과 동국대학교와의 자매결연에 결정적 계기를 제공하기도 했다.

- 학위수여에 대한 소감 한 말씀 해 주십시오.

▲한국불교에 대한 관심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긴 했지만 한국이나 동국대학교에 대해 잘 알지는 못 합니다. 학위를 받고 보니 양국의 문화적·학문적 교류를 위해 뭔가 일을 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 용곡대학과 동국대학이 자매결연을 맺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추진하게 된 동기와 향후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88년 한국교수불자연합회의 용곡대학 방문이 시발점이 됐습니다. 그 후 1년에 한번 서로 심포지움을 개최하며 학문적 교류와 우의를 쌓아 왔습니다. 그러는 동안 한국불교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92년에는 정식으로 동국대학과 자매결연까지 맺었습니다. 12월 개최될 한일불교문화 공동조사연구 대회에서 양국 실무자들간의 협의를 통해 향후 구체적인 사업방향을 설정,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 학위 수여식 기념강연을 통해 일본불교의 근원이 한국불교에서 비롯됐다는 견해를 밝히셨는데요.

▲서기 538년 백제불교가 일본에 전해지면서 일본불교의 역사가 시작됐죠. 최근에는 일부학자들외에는 충분히 알지 못하는 사실이지만 일본 국보 제 1호로 지정된 미륵보살반가사유상 등의 불상, 사찰건축 등 문화전반에도 한국불교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한·일 양국간의 불행한 역사를 치유하고 불교발전을 위한 한·일 불교계의 역할과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종교와 국경을 초월해 '연기(緣起)'의 가르침은 존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은 공생공존하며, 나 개인으로서는 도모할 수 없는 수많은 조건들이 갖추어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생명연계의 넓은 세계에서 '나의 마음을 열어가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불교계의 분위기 조성과 실천은 바로 양국의 아픈 역사를 치유하고 불교발전을 도모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 미래불교의 본연의 지세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찍이 종교는 아편이라고 비판된 적이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과제를 정확히 파악, 종교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도필선 기자

'97 문화유산의 해

'불교문화 테마여행'

11월 테마여행 - 운주사·쌍봉사

"누운 부처님 언제 일어나시려나"

늦가을의 고즈넉한 정취가 완연한 11월에는 운주사의 천불천탑(千佛千塔)을 찾아 누운 부처님이 일어나는 날 세상이 바뀐다는 민중들의 바람(願)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운주사의 탑과 불상들은 여느 사찰의 탑, 불상과는 달리 과격적인 모습을 하고 있어 색다른 느낌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런 예갖도 주지않는 평범한 논과 구릉 속에 자리한 쌍봉사는 기묘한 긴장감과 기대를 품게 하는 이색적인 절집입니다. 정면 1칸 측면 1칸에 3층목탑 모양을 하고 있는 대웅전의 고풍스런 모습과 우리나라 부도 가운데 첫손으로 꼽고 있는 철감선사부도탑의 정교하고 세련된 아름다움은 저절로 감탄사를 연발케 합니다.

■ 참가 안내

◇출 발: 11월 22일(토) 밤10시·조계사 앞
◇회 비: 4만원(조식제공)
◇안 내: 황호균(전남대 박물관 학예연구사)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37-8881
◇은행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선정호)

12월 불교문화 테마여행(제주도)
◇일 정: 12월 13~14일(1박2일)
◇장 소: 존자암지·법화사지·약천사·삼성혈·목석원·용두암 등지
◇동참금: 135,000원
◇인 원: 40명(선착순)
※12월 불교문화 테마여행 참가 접수도 함께 받습니다.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주관: (주)한주여행사 후원: '97 문화유산의 해 조직위원회 협찬: 일양약품



"고통받는 모든 중생 구제되길…"

김교각스님 통상 봉안차 내한 인덕스님



"지장보살이 세우신 중생 구원의 원력을 펴는데 성상 봉안의 의미가 있습니다." 불국사에 김교각상을 봉안키 위해 내한한 인덕스님(중국 구화산 방장)은 교각스님이 큰 인연을 심지 않았다면 오늘의 법회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화산에 있는 80여 사찰이 모두 지장도량이라고 밝힌 스님은 대륙뿐 아니라 대만에도 지장전문회상이 많다고 전했다.

스님은 또 "중국에 불교가 전래된 이후로 사찰의 주불로 모셔진 스님은 초조 달마대사부터 지금까지 김교각스님 뿐"이라면서 "스님의 업적과 정신은 오늘날에도 큰 감화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지난해 교각스님 탄생 1천3백주년을 맞아 구화산 불교협회가 구화산에 99m 높이의 교각스님 동상을 조성키로 하고 이를 봉안할 대각선사(大覺禪寺)를 건립키로 한 사실도 소개했다.

"성대한 법회를 베풀어준 불국사와 사부대중에게 감사한다"는 스님은 "동상 봉안이 두나라 친선관계의 영광스러운 이정표가 될 것"을 기대했다.

인덕스님 일행은 석굴암과 분황사, 통도사와 화엄사등 우리나라 불교성지를 둘러본 뒤 귀국할 예정이다.

경주=이윤호 기자

법회 늦을라…장애인·도우미 '한마음'



Focus

"세상살이에 곤란없기를 바라지 말라. 세상살이에 곤란이 없으면 제 잘난 체하는 마음과 사치한 마음이 일어난다."

4일 오전 서울 성북동 길상사(주지 청학) 설법전. 복도와 마당을 가득 메운 1천여 불자들은 〈보왕삼매론〉을 읽으며 해설하는 법정스님(맑고향기롭게모임회주)의 법문에 귀기울였다. 길상사 창립기원을 위해 열린 법회에서 스님은 "신앙생활은 끝없는 반복과 복습의 과정을 통해 영적인 체험을 얻는 것이다"며 "지속적인 기도와 공부할 것"을 강조했다.

이날 화제는 맑고향기롭게모임 회원 10명이 장애인 불자 법회 참석을 위해 자원봉사자로 나선 것. 법회 참석을 원하는 장애인 불자 10명의 연락을 받고, 자동차로 출동해 법회장까지 안내해주었다.

도움을 받은 원용태(서울 역삼동)거사는 "몸이 불편해 그동안 법회에 참석하고 싶어도 마음 뿐이었다"며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법정스님의 법문을 듣게돼 기쁘다"고 말했다. 맨 마지막으로 도착한 원거사는 법회에 늦을세라 도우미들과 함께 한마음이 돼 힘차게 휠체어를 굴렸다.

김주일 기자

"한국서 2년 수행…남북방불교 교류필요"

티벳경전 '깨달음의 길…' 번역 초펠 스님



"불교국가들간의 교류가 활발해져 세계불교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지난해 3월 해주스님(부산 백련사)과의 인연으로 한국에 유학와 1년 8개월간 송광사 통도사 해인사 강원에서 한국불교를 공부한 티벳 초펠스님(32)이 29일 인도로 떠난다.

스님은 2개월전부터 티벳스님들이 명상하고 공부하는 인과법을 설한 경전인 〈깨달음의 길로 가는 순수〉를 한국어로 번역했다.

12월초 도서출판 대원사에서 발간할 예정인 이 책은 보리심으로 가는 비법으로 소승불교에서 대승불교까지 수록하여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이끌어준다. 스님은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보고 가르치셨다며, 불자라면 남방불교 북방불교를 두루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불교는 옛날의 좋은점을 고수하기 보다는 허물어버리는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한 스님은 "한국 스님들의 깊게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 인상깊다"고 한국불교 생활을 평가했다.

앞으로 인도 남부 마이솔 규메드대학에서 '만다라'를 강의할 예정인 초펠스님은 "한국문화와 한국불교에 대해서도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힌뒤 "티벳불교를 공부하고 싶어하는 한국스님들에게 도움을 주고싶다" 말했다.

김원우 기자

"종교인 화합 도움기대"

'제주의 종교' 펴낸 조승철 경위



현직경찰관인 조승철경위(45·한경파출소장)가 제주시의 종교현황을 담은 〈제주의 종교〉(사월)를 출간해 화제.

신국판 2백40쪽인 〈제주의 종교〉는 불교, 유교, 기독교를 비롯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천지태안도, 삼천교, 동도법종금강도 등 제주지역에서 활동중인 26개 증교의 각종 현황들이 수록돼 있다.

조경위는 "도민들이 종교활동을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각 종교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했다"며 "특히 각 교단의 위치와 책임자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 관심있는 독자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조경위가 종교현황조사에 뛰어든 것은 85년 8월 모교회 목사가 불교를 비방하는 신앙강연(나는 왜 승복을 벗고 목사가 되었는가)을 한것과 관련 종교간의 불협화음이 야기되면서부터. 이 사건에서 그는 양측을 설득, 화의를 이끌어냈다. 그리고 내 종교가 중요한 만큼 상대방의 종교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제주지역 종교현황조사를 시작했다. 〈근〉

"불우이웃에 써달라"

이효자보살 장례비 기탁

경제난으로 복지계에 후원이 시들해진 가운데 시어머니 장례를 통해 얻어진 돈의 일부를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한 불자가 있어 화제.

이효자 보살(전북 익산시)은 최근 시어머니 장례를 마치고 남은 37만여원을 유용하게 쓰고자하는 마음에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 성금을 전달했다.

이보살은 현재 지난해부터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전개해온 1사찰 1인돕기운동을 통해 올해 1월부터 장애인과 결연을 맺어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전달해 오고있다.

교차로

부산 감로사서 수계법문



지관 가산불교문화연구원장 스님은 3~5일 부산 감로사 천화계단 보살계대법회에 참석, 수계법사로 3일간 법문했다.

호국기원법회 및 영산대재



월파 경남불교협의회장 스님(통도사 주지)은 24일 창원 KBS홀 대강당에서 '나라의 번영과 민족의 화합을 위한 호국기원대법회 및 영산대재'를 봉행한다.

운허스님 17주기 추모법회



밀운 봉선사주지는 9일 설법전에서 운허스님 17주기 추모법회를 봉행했다.

만공스님 다례제 봉행



법장 수덕사주지는 19일 대웅전에서 문도들이 모인 가운데 만공스님 다례제를 봉행한다.

'민주개혁 국민위' 상임대표

청화 실천불교전국승가회 공동의장스님은 6일 '공정선거 민주개혁 국민위원회' 창립대회에서 상임대표로 추대됐다.

제4회 가나미술상 수상



범하 통도사박물관장 스님은 〈한국의 불화〉 시리즈를 발간한 공로로 미술전문지 '가나아트'가 제정한 제4회 가나미술상의 수상자로 선정됐다.

청담스님 26주기 추모재



동광 도선사주지는 15일 청담스님 26주기 추모대재를 참회원 강당에서 엄수하고 스님의 유지를 기린다.

이회창후보 대구 동화사 방문



신한국당 이회창후보 일행이 5일 오전 팔공산 동화사를 방문, 설법전에서 주지 무공스님과 환담했다. 무공스님은 "현정부 예산중 0.6%만이 문화재부문에 책정되어 있는데 이후보 집권시 몇 %를 책정하겠느냐"고 질문했고 이후보는 "최소한 0.6%이상은 책정하겠다"고 답변. 이자리에서는 박성범의원 서훈의원 맹형규의원을 비롯 대구지역 각지구당 위원장이 동행했다.

〈대구=이윤호 기자〉

대원불교대 '동문의 밤' 행사



혜준 대원불교대학 총동문회장 스님은 28일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동문의 밤' 행사를 갖는다.

'캄' 불교문화센터 추진

강인성 대구경불련 회장은 후할머니 후원과 캄보디아 불교문화센터 등을 추진하기 위해 5일 캄보디아로 출국했다.

몽골 불교大서 철학名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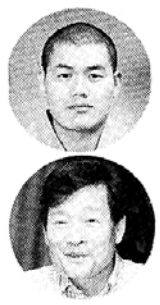


최일산 한국불교청소년범죄예방연맹 총재는 6일 몽골 수도 올란바트라 소재 자나바자르 불교대학교에서 명예철학박사 학위를 수여 받았다.

세계그래픽협 부회장 피선

안상수교수(홍익대·안그라픽스 대표)는 10월 25일 우루과이 푼타 델 에스테에서 열린 세계그래픽디자인단체협의회 총회서 임기 2년의 부회장에 피선됐다.

BBS 프로진행 맡아



법현 동국대 교수스님〈사진 위〉은 9일부터 불교방송 '불교음악순례'를, 박성배 동국대 석좌교수는 3일부터 '교리강좌-박성배 교수에게 듣는다'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山' 주제 열번째 개인전

노춘애 화백은 5~11일 인사동 인사갤러리에서 산을 주제로 제10회 개인전을 가졌다. 노씨는 5년동안 일본에서 작품활동을해 왔다.

'97 성파시조문학상 양원식·조종만씨 수상





제14회 성파시조문학상에 양원식(부산 해동고등학교 교장·사진 왼쪽) 조종만(前 전주남중학교 교장)씨 등 2인이 선정, 8일 부산일보사 대강당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양원식씨는 〈시조문학〉으로 등단하여 부산시조문학회장 부산불교문인협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고 〈관등부〉 〈봄이 오는 길목〉 〈모과에서 듣는 향기〉 등의 저서를 냈으며 조종만씨는 〈嶺文〉에서 시로, 〈시문학〉지에 시조가 추천되어 등단한 후 시집 〈특토〉 〈회상의 무늬〉 등을 냈다.

우리민족돕기 불교운동본부 모금현황

△지리산 법화사 400,000원 △혜룡사 350,000원 △국제어린이집 202,600원 △양영우 300,000원 △정의행 200,000원 △김성순 180,000원 △김동숙 120,000원 △안정숙 100,000원 △임용빔 100,000원 △고승범 100,000원 △최영순 100,000원 △김종호 90,000원 △남정강 90,000원 △최광섭 70,000원 △김진숙 62,000원 △박양미 62,000원 △허만정 50,000원 △최진헌 50,000원 외 △한 끼 굶기운동 1,367,000원 △밥 한공기 나누기 운동 222,000원

〈5일 현재 총 855,239,898원〉

- 후원금 접수 (02)3672-5373
- 국민은행 818-21-0197-670

예금주: 최석호(우리민족 불교운동)

참사람 열린교육 ……변화하는 대학

"1998학년도 전기 동국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

● 불교대학원 (야간) ☎ 260-3097,3098

1. 모집과정 : 석사학위과정, 연구과정
2. 모집학과 및 전공
   가. 불교학과 불교학, 선학
   나. 불교사학과 불교사, 예술사
   다. 불교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 포교학
3. 원서교부 및 접수
   1997. 11. 13(목) ~ 11.21(금)09 30~17 00(토,일요일은 제외)
4. 전형일시 및 장소
   1997. 12. 1(월) 15 00 불교대학원 교학부에 게시함
5. 전형방법
   가. 석사학위과정
   1)일반전형 필기시험(영어,전공)및 면접
   2)특별전형 서류전형 및 면접고사 · 사회지도급 인사를 우선함.
   나. 연구과정 서류전형 및 면접고사
6. 특전 : 조계종 재적 승려 및 공무원 교직원, 불교언론인은 소정의 장학금 지급하며 해외자매대학 유학및 연수에 참가할 기회 부여함.

불교지도자과정

가. 지원자격 조계종의 대덕 법계 품수 승려, 각 종단의 간부, 각 신행단체의 간부 및 대표, 신심이 돈독한 자.
나. 원서교부 및 접수 석사과정과 동일
다. 전형일시 및 방법 1997.12.2(화) 15 00 서류전형 및 면접

● 교육대학원 (야간) ☎ 260-3109,3110

1. 모집과정 : 석사학위과정, 연구과정
2. 모집학과 및 전공

학 과	전 공 분 야
교육학과	교육행정, 교육경영, 상담교육, 유아교육전공
고과교육학과	국어, 지리, 역사, *수학, 윤리, 철학, 미술, 한문, 체육, 영어, 물리, 화학, 생물, *가정, 전자계산, 종교, 중국어교육 전공

* 표시는 경주캠퍼스 수강 가능

3. 원서교부 및 접수(접수처 : 교육대학원 교학부및 경주캠퍼스 취업과)
   1997. 11. 17(월) ~ 11.28(금)10 30~17 00(토,일요일은 제외)
4. 전형일시 및 장소
   1997. 12. 6(토) 14 00 개교 90주년 기념학술관
5. 전형방법 : 서류전형, 면접 및 전공구술시험
6. 특전 및 우대전형 :
   1) 본원의 장학금 지급 내규에 의하여 공사립교육기관의 교사 또는 공무원으로 재직중인자, 조계종 재적승려 등은 장학금을 지급함(수업료의 30%)
   2) 공사립교육기관의 재직교사, 정부 행정기관 재직자는 경력을 감안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평점시 가산점 부여함

● 문화예술대학원 (야간) ☎ 260-3606,3607

1. 모집과정 : 석사학위과정, 연구과정
2. 모집학과 및 전공

과 정	학 과	전 공
석사 · 연구	문예창작학과	문예창작
	연극영화학과	공연예술, 영상예술
	불교예술문화학과	불교미술, 한국음악, 문화재
	환경예술학과	환경예술

3. 원서교부 및 접수
   1997. 11. 10(월) ~ 11.21(금)10 00~17 00(토,일요일은 원서만 교부)
4. 전형일시 및 장소
   1997. 12. 29(토) 10 00 본 대학원
5. 전형방법
   가. 석사과정 필기시험(논술) 및 면접
   나. 연구과정 서류전형 및 면접
6. 특전 : 각종 장학금 지급제도 있으며 해외자매대학 등의 연수에 참가할 기회있음.

문화예술지도자과정

1. 모집분야 : 문예창작, 공연예술, 영상예술, 불교미술, 한국음악, 문화재, 환경예술
2. 지원자격
   정부 각 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본사 주지급 스님, 언론 · 문화 · 예술 및 연예인과 유관기관의 임직원, 환경 · 조경 등의 유관기관임직원, 사회지도급 인사와 기업체 임원,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3. 원서교부 및 접수, 전형일시 및 방법 연구과정과 동일
4. 특전 : 석사과정과 동일

서울캠퍼스
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3가 26
TEL (02)260-3114 FAX (02)260-3692
■ 인터넷 http//www.dongguk.ac.kr/DGU/

경주캠퍼스
780-714 경상북도 경주시 석장동 707
TEL (0561)770-2114 FAX (0561)770-2002
■ 인터넷 http//www.dongguk.ac.kr/DGU/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 SINCE 1906

※ 본교는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학술과 인격을 연마하고 민족과 인류사회 및 자연에 이르기까지 지혜와 자비를 충만케하여 서로 신뢰하고 공경하는 이상사회의 구현을 건학이념으로 한다 ■

'98 삼화불교대학 학생모집

1. 모집학과 및 안내

학 과	수업연한	모집과정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30%
불교학과	2년	■주간■야간■통신	· 고등학교및 동등이상 학력자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1통 · 본교 소정입학원서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5매	· 조계종 승려 · 포교사(타종단 승려, 포교사도 가능)
	4년	■통신		
유아교육과(유아포교과)	2년	■주간■통신		
중국어과	2년	■주간■야간		
불교미술(문화재)과	2년	■주간		
동양화(繹畵)과	2년	■주간		
신문방송과(불교보도과)	2년	■주간■통신		
동양 풍수과	2년	■야간		

2. 학교연혁

1989.7.3 학교설립공고
90.3 불교방송대학 불교학부, 유아교육학부4년제 개교
90.4 삼화불교대학으로 개명
90.8 본교학생37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증 취득
91.3 전문부 주간,야간2년제 개설
91.8 본교학생48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1.8 교육부인정 고등학교 인수
92.2 제1회 졸업생 배출
92.7 국가인정 보육교사 119명 자격취득
93.3 불교미술과 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93.8 본교학생42명 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4.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32명 취득
95.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49명 취득
95.3 전문부 중국어과 개설
95.8 중국 남경 중의약대학과 문교체결
95.11 본교학생41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6.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40명취득
96.11 본교학생36명 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7.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20명취득
98.2 제 7회 졸업생 배출예정
98.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21명 취득예정(위탁교육 수료후)
98.2 동양화(선화)과, 동양 풍수과 개설

3. 특 전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법사자격증, 불교유아포교사2급 자격증 수여
· 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문화재수리 기술사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동국대학교 대학원 과정 입학

4. 원서교부및접수기간

· 원서교부및접수기간 1997년 12월30일까지
· 전형방법 서류전형, 면접(우편당일 소인 유효)

5. 원서교부및문의처

■ 본교 교학과 : TEL. 511-2026~8
FAX. 511-1080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바람
(511-2026~8)

135-120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대한불교 조계종 삼화불교대학

탐방 의보련 보련회



◇의료보험연합회 보련회는 10월31일 보련회 서울지회를 발족시켰다.

병없는 연화장 꿈꾸는 '약사보살'

90년 창립…회원 70여명 의료봉사·경전공부 병행

10월 31일 오후 7시 서울 여의도백화점 내에 있는 의료보험연합회 서울지부사업장 회의실. 30여명의 직원들이 불자모임인 보련회 서울지회(회장 강영옥)를 창립하고 조촐한 기념법회를 마련했다.

부산 대전 창원에 이은 이번 보련회 서울지회의 창립은 의료보험연합회본부 보련회(회장 오장영 공동사업과과장)의 지원아래 이일행법사(연화장세계)가 몇달 전부터 매주 첫·셋째 월요일 〈초발심자경문〉강독과 수지참강의 등으로 여건을 다지면서 결실을 맺은 것.

'여성불자들이 중심이 되어 생활불교를 일군다'는 취지아래 잉태된 보련회(초대회장 김남수)는 90년 5월 7일 창립됐다. 19명의 회원으로 시작된 보련회의 현회원은 70여명. 매월 첫·셋째 월요일 정기법회를 통해 경전공부를 계속하면서 격월마다 사찰순례를 통해 연꽃을 피워 여성중심 불자회의 모범이 되고 있다.

보련회는 90년부터 2년 간격으로 기초교리강좌와 〈천수경〉〈금강경〉〈신심명〉 등 경전강독을 진행하고, 교리수강후에는 수계식을 봉행해 확실하게 강의를 회향하고 있다. 간호사 출신이 많아서인지 회원들은 불우이웃돕기에도 관심을 기울여 매달 소쩍새마을에 도움을 주고 있고, 파주 보광사 보육원을 분기별로 방문하는 등 봉사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회원가족들이 동참하는 사찰순례는 불교문화유적이 많은 곳을 선정, 직장 동료들의 참여도 적극 유도하고 있다. 서울지회에서 열고 있는 수지침강의의 경우 비회원들의 참여가 점차 늘고 있다. 이는 '열린불교' '생활불교' '실천불교'를 지향하는 보련회의 포교방침이기도 하다. 오장영회장은 "보련회 4개 지회와 연계해 점심시간을 활용한 참선 다도 수지침강좌 등을 열어 일반 직원들의 참여를 확대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임기준상임법사(연화장세계 법주)는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회와 하심, 염불기도 등을 실천하면서 생활수행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재경 기자

"강화불교 중흥시대 열자" 한마음

군내사찰 13개팀 체육대회

'제1회 강화군 불자한마당 체육대회'가 10월26일 강화공설운동장에서 전등사 회주 삼묵스님을 비롯 1천여명의 스님들과 불자들이 모인 가운데 거행됐다. 이번 체육대회는 타종교에 비해 수적으로 크게 열세를 보이고 있는 강화불교의 옛 영광을 되찾기 위해 강화군 불교신도연합회(회장 장기천)가 마련한 것.

강화불자한마당은 강화군내 13개 사찰을 4팀으로 나눠 1백m 달리기, 족구, 공굴리기, 단축마라톤 등 10여개 종목에서 사찰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선의의 경쟁을 벌이도록 했다. 장기천회장은 "강화불교는 한민족의 역사와 함께 발전해왔다"고 전제한뒤 "야외에서 서로 시간을 가지며 한마음 한뜻이 돼 강화불교가 한국불교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강화군내 13개 사찰이 모여 불교발전을 위한 체육대회를 가졌다.

또 한마당을 후원한 강화군 사암연합회장 계성스님은 "각 사찰에 대한 소속감은 물론 사찰간의 화합을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강화불자한마당에서는 청련사 백련사 적석사 무애원으로 구성된 고려산팀이 우승, 법왕사 황련사 보문사로 이뤄진 혈구산팀이 준우승을 차지했다. 이외에 마니산팀과 남산팀이 공동3위에 올랐다.

강화=윤기석 기자

전국 으뜸 '거리의 포교사' 서원

대구개인택시 '정법회' 창립11돌 행사

'달리는 법당 거리의 포교사'로 널리 알려진 대구 개인택시정법회(회장 김주본)가 창립 11주년을 맞아 10월26일 능인고등학교 강당에서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화산스님(보광원조실) 원명스님(대구사원련 회장) 태일스님(동화사 부주지) 박영조회장(한국택시기사연합회) 김민석의원(국민회의) 박구일의원(자민련) 이의익의원(자민련) 김규택구청장(수성구) 등 사부대중 1천여명이 참석했다.

대구 직장불교협의회 회장직도 겸하고 있는 김주본씨는 대회사에서 "전국에서 으뜸가는 모범 불교신행단체로 거듭날 계획"이라며 "봉사와 참여를 통한 지역불교발전에도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이윤호 기자



◇대구지역의 대표적인 신행단체인 개인택시정법회는 10월26일 능인고등학교에서 창립11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8개학교 분회 등록

파라미타 군산지회 창립

파라미타청소년협회 전북 군산지회(지회장 화평)가 1일 군산상공회의소 강당에서 창립됐다.

이날 행사에는 도영(금산사 주지) 제공(군산사암연합회 회장) 성우(은적사 주지)스님을 비롯한 3백여명의 중·고등학생들이 참석했다.

전북군산지회에는 군산고, 군산옥구서중 등 8개 교의 분회가 등록돼 있다.



청정국토만들기 사찰환경 법회

청정국토만들기운동본부(회장 성타스님)는 일반회원 60명, 청소년회원 90명 등 총 1백6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2일 오봉산 청평사에서 제3차 사찰환경법회 및 청소년환경지킴이 자연탐사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성타스님이 '환경보존과 불교사상'에 대해 법문했으며, 김형중 교법사가 '환경관련 논술시험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이어 회원들은 청평사 일대에서 자연환경 정화활동을 실시했다.



해군교육사령부 보국사 기공식

경남 진해 해군교육사령부 보국사(주지 정인호법사)는 10월30일 성오스님(범어사주지)을 비롯 군불자 2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봉행했다. 건평 4백여평 군예산 13억5천만원이 소요되는 이번 불사는 98년 말 완공될 예정이다.

한편 보국사는 매주 5백~1천여명이 법회에 참석하고 있으며 매달 3백여명의 수계불자를 배출하며 군 정신전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



불자련 주부·준고령자 간병인교육

불교자원봉사연합회(회장 성덕스님)는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97 제2기 주부및 준고령자 어진간병인 교육을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사천왕사에서 실시했다.

노동부산하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위탁으로 이루어진 이번 교육에서는 안전교과, 병원의 특성과 유의사항, 사례발표, 기본간호 이론 및 실습, 교양교과로 직업생활, 간병활동과 자비정신 등 강의도 있었다.



여불련 대구지부 결성 법회

한국여성불자연합회(이하 여불련) 대구지부 결성법회가 10월31일 영남불교대학 법당에서 봉행됐다. 이날 결성식에는 대구지부 회원 1백여명을 비롯 설조스님(불국사 주지) 우학스님(영남불교대학장) 김묘주중앙회장(여불련) 최동원신도회장(대구광역시) 황대현구청장(대구 달서구) 등 사부대중 2백여명이 참석했다.

우리 모임에선

불교실업인회 납골당 추진

전국불교실업인회(회장 이호식)는 10월27일 일본 고야산 납골당시설 등을 시찰한뒤 회장단회의를 갖고 사회복지법인을 설립, 납골당과 불교장례예식장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위해 실업인회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일대 3만여평을 납골당 부지로 확보했다.

대불 전국수련회 개최

더불련동문회 대불(이사장 명호근)은 22, 23일 1박2일간 괴산 다보수련원에서 전국수련대회를 갖는다. 범즉스님의 참선지도와 김재웅법사(금강경독송회 지도법사) 전재성교수(한국불교대학)의 강의와 '21세기 한국불교와 대불련'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 (02)723-9811

청소년환경단 경주서 활동

청소년환경감시단(단장 돈관스님)은 10월 26일 녹색환경감시단(단장 홍성식)과 함께 경주일원에서 환경정화활동을 전개했다. (0561)41-0762

'좋은모임' 주택수리 봉사

좋은일하는사람들의모임(이사장 월운스님)은 10월 31일 홀로 사는 최점례(79) 최부전(74)할머니의 주택을 방문해 방안도배와 주방수리, 방풍작업 등 무료 주택개량사업을 펼쳤다.

의정부시의 추천을 받아 무애건설(회장 노영호)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매달 두 세 가구의 독거노인 주택을 선정, 산하 불교청년회(회장 이종무) 회원들의 자원봉사로 계속된다. 동회는 의정부시 보건소 정신문화센터와 함께 치매노인들을 상대로 '전화대화방'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무료 침술봉사도 병행하는등 노인복지 향상에 힘을 쏟고 있다. (0351)848-6114

복지회 고엽제환자 위문

동국대불교대학원 동문 사회복지회(회장 자용스님)는 15일 오후 2시 서울 잠실 재향군인회 대강당에서 '월남참전용사 고엽제 후유증환자 위문법회'를 봉행한다. 4만여명의 환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사회적인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법회는 1부 법요식과 2부 불자연예인 및 수국사합창단의 위문공연으로 진행된다. 1천2백여명의 동대불교대학원 졸업생을 중심으로 창립된 동회는 소외받는 이웃을 위해 꾸준히 복지사업을 펼쳐왔다. (02)274-0233

영등포 교도소 성지순례

영등포교도소불심회(회장 문기두)는 17일 1급 모범재소자 20명과 여주 신륵사로 성지순례를 떠난다. 불심회는 매주 수·금요일 오후 2시 정기법회를 보면서 재소자교화에 매진하고 있다.

영불회 병원내 법당 개원

영남의료원 영불회(회장 강복수 영남대의과대학장)는 10월 31일 신관 9층 901호에 '불교종교실'이란 명칭의 법당(8.8평)을 개원했다. 창립 기념법회와 법당 부처님 봉불식을 앞두고 있지만 환자들에게 법당을 개방하고 있는 영불회는 지도법사인 인각(성화사), 우학(영남불교대학장), 지도(관오사), 득도(대구불교대학)스님이 매일 번갈아 가며 환자들의 불교상담을 맡도록 했다. (053)620-3988

2천만의 깨달음을

참수행으로 이끄는 신행의 길잡이-

현 대 불 교

부산지사	051-634-5114
광주지사	062-375-9986
대구지사	053-768-8008
목포지국	0631-281-2534
속초지사	0392-636-3923
북인천지국	032-541-8770
청주지사	0415-63-3873
강릉지사	0391-653-1518
인천지사	032-461-3461
춘천지사	0361-241-0633
대전지사	042-625-1080
안산지사	0345-411-4580
진주지사	0591-747-0106
마산·창원지사	0551-84-0735
공주지국	0416-55-0020
고성지국	0556-72-0078
예산지국	0458-33-5097
포항지국	0562-252-7749
고양지국	0344-912-2323
영주지국	0572-34-3429

호국불교를 개척할이 시대의 원광법사를 추천 선발모집 합니다.

승가여!
세존께서 우루벨라 세나니 가마 병장촌으로 가셨듯이, 우리도 젊은 청년들이 조국수호를 위해 피땀을 흘리는 현장으로 달려가 법을 전하십시다.
군불교는 젊은 스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 선발 일시 ●
- 원서 교부 및 접수 : 97. 11.10 - 11.20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97.11.24.(월) 14:00
- 면접 장소 : 군불교 총본산 군승단
- 신검 및 합격자 발표 : 추후 통보

● 응시 자격 ●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졸업 2년(학사학위 이상 : 97년도 졸업생까지) 경과하고 포교활동에 원력이 있으신 분
- 일반 4년제 대학 (학사학위 소지)을 졸업한 조계종 스님으로서 군포교 활동에 원력이 있으신 분
- 군 인사법 제10조 제2항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분
- 임관시 연령 만35세를 초과하지 아니한 분

※ 자세한 사항은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원 (02)720-7060 / 군불교 총본산 군승단 (02)749-8646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불기 2541(97)년 10월 일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원장 이 성 타
군 불 교 총본산 군승단장 이 치 영

공 고

대원불교대학 총 동문회및 동문의 밤 행사를 아래와 같이 거행하오니 참석 바랍니다.

- 일 시 : 1997년 11월 28일 19:00
- 장 소 : 프레지던트 호텔 31층 대 연회장
- 연락처 : 02-776-7156(총동문회 사무실)

※ 개별통지는 생략합니다

대원불교대학총동문회

회장 석 혜 준 합장

青潭大宗師 26週忌 追慕 大法會 案內

청담대종사 26주기 추모 대법회를 다음과 같이 봉행함을 문도스님과 사부대중에게 알려드리오니 무루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일 시 : 불기 2541년 11월 15일 토요일 오전 11시
- 장 소 : 삼각산 도선사 호국참회원 대강당
- 문의처 : 도선사
  주지실 ☎(02)993-5002
  종무소 ☎(02)993-3161~3

불기 2541년 11월 1일

大韓佛敎曹溪宗 護國懺悔新禱道場 三角山 道詵寺

도선사 주지 차 동 광
청담 문도회 일 동 합 장

법회안내

현성정사 (02)3216-5405



◇주지 현성스님

신중기도법회 매월 1~3일 (음) 오전11시
방생재일법회 매월8일(음) 오전11시
포살법회 매월15일(음) 오전11시
관음재일법회 매월24일(음) 오전11시
시민선방 정진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2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0시

관오사 (053)784-93669



◇주지 지도스님

정기 가족법회 매월 첫째·셋째주 일요일 오후7시30분
다라니기도 1일(양), 30일(음) 오후7시30분
초하루기도 매월1일(음) 오전10시
지비참법기도 매월18일(음) 오전10시
보름기도 매월15일(음) 오전10시
관음재일기도 매월24일(음) 오전10시

거암정사포교원 (02)379-6940

자성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0시
밀교교리강좌 매주 수요일 오전11시
한자교실 매주 토·일요일 오후3시

삼장사 (0397)73-2487

어린이법회 매주 토요일 오후3시
학생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1시
청년부법회 매주 금요일 저녁8시
일반신도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0시 30분

홍은사 (02)822-1990

초하루법회 1~3일(음) 오전10시
지장재일법회 15~18일(음) 오전10시

■ 법회안내를 원하는 사찰·단체는 주지스님(대표)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성실히 게재하겠습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신행수첩

선지식 100명의 사자후
월해사 백고좌법회

1백명의 선지식들에게 백일동안 법문을 들으며 정진하는 백고좌법회. 대한생활불교회(이사장 김덕수)는 금강산 월해사(주지 월해)에서 19일부터 1백일간 '월해사 개원기념 백고좌 대법회'를 봉행한다.

숭산(화계사 조실), 도왕(대왕사 주지)스님 등이 법사로 초청돼 진행될 이번 행사는 일만등 점등기도와 월해·법주스님 행적비 제막식, 불자연예인 공연도 열린다.

신라때부터 시작된 백고좌 법회를 통해 체계적으로 불교를 신행해 보자. (042)531-9542

불교의 사회처방전
동국대 박성배교수 특강

동국대 정각원(원장 법산스님)은 18일 오후4시 박성배 교수 초청 특강을 실시한다. '불교는 모순과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가'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강연회는 사회에서 야기되는 갈등과 문제들을 불교적 시각으로 분석해 강의할 예정이다.

동국대 교직원 및 일반불자도 동참할 수 있는 이번 강좌를 들으며 사회적 모순과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생각해 보자. (02)260-3016

부처님말씀 되새기자
대구천리안 철야사경

천리안불교동호회 대구모임(회장 박수호)은 29~30일(1박2일) 대구 갓바위와 군위 제2석굴로 철야 사경 정진을 떠난다.

올해 마지막 모임이 될 이번 행사는 부처님 그리기와 사경이 철야로 진행되며 다음날에는 대구 갓바위와 군위 제2석굴에서 기도 정진이 이어진다.

사경의 공덕을 쌓으며 철야기도의 참의미를 되새길수 있는 이번 모임은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나 함께 모여 발심할 수 있는 감로의 시간이 될것으로 기대된다. (053)654-8533

네티즌의 이웃사랑
유니텔 송암동산서 봉사

유니텔 불교동호회 부처님나라(대표시삽 김석철) 자원봉사팀은 봉사활동에 관심있는 네티즌과 함께 16일 경기도 시흥에 있는 송암동산보육원으로 자원봉사를 떠난다. 이번 봉사활동은 원내 시설보수, 원생 돌보기, 컴퓨터지도 등으로 꾸며진다. 유니텔 ID:h900567(김미영 012-416-0706)

"도리천에 태어납시다"
목아박물관 사경공덕 강좌

경기도 여주 목아박물관(관장 박찬수)은 15일 오후 2시 박상국씨(문화재연구소 전문위원)를 초청, '사경(寫經)의 신앙의식과 공덕'에 대한 불교전통문화강좌를 연다.

〈법화경〉 권발품에는 〈법화경〉을 서사하면 도리천에 태어날 수 있다며 사경의 공덕을 높이 보고 있다. 곧 사경은 부처님 말씀을 새기고 익혀 실천하는 신앙행위로 수행의 과정일 뿐만 아니라 불법을 널리 알리고 경전을 후세에 전하는 것으로 자리이타(自利利他)의 공덕이 될 수 있다. (0337)85-9952



◇ '禪茶一味'. 다도의 예법에 대해 시연하고 있다.

차 한잔에 설법이…
광주불교교육원 다도 강의

선다일여(禪茶一如). 광주불교교육원(원장 영조)운 여연스님(일지암 암주)을 강사로 초빙, 13일부터 12월18일까지 〈다신전〉 강좌를 개최한다. 초의선사가 저술한 〈다신전〉은 차 따기부터 시작해 은 차 따기부터 시작해 차 만들기, 가리기, 끓이기, 마시기는 물론 차의 향기, 빛깔, 맛 등 다도의 전반적인 것을 체계화한 책이다.

〈다신전〉을 교재로 개최될 이번 강좌는 다도에 입문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깊은 맛을 알고자 하는 이들에게 유익한 지침이 될것으로 기대. 강의는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062)228-9098

설산에 펼치는 자비행
이화의료진 네팔봉사

"온갖 중생의 생명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언제나 도움을 주려는 자애(慈愛)의 생각을 일으켜야 한다." 〈화엄경〉

네팔-이화의료봉사단(단장 이근후)은 내년 2월3~18일까지 15박16일동안 네팔의 카트만두, 포카라, 쿠스마 등지로 의료봉사를 떠난다.

이에 앞서 11월30일까지 의료·자원봉사 요원을 모집하는 의료봉사단은 진료를 위한 워크샵과 고도적응 산행 등 봉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부처님 향기 가득한 네팔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되새기며 봉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 (02)760-5138

나의 수행일기



이 원 주 〈명성여자고등학교장〉

제자들과 함께 '下心 공부'
'초파일' 명칭 '부처님오신날'로 변경 제안

나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밖의 소식이나 문화와 접하기 쉽지 않은 산간 벽촌에서 태어났다. 먼곳에 자그마한 교회가 하나 있었지만 주민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 소외된 상태였다. 어쩌다 아이들과 떡이나 과자를 얻어먹기 위해 가보았던 기억이 고작이었다.

그러나 어느 산을 가나 미륵 부처님이 서 있었고 마을 뒤에는 절도 있었다. 봉지 봉지 머리위에 이고 가는 할매·어매 따라 가는 절, 맛있게 밥 먹고 오던 일, 우리들 세대의 아련한 추억이다. 그때는 으레 스님을 부르는 호칭은 대사님이었다.

불심이 넉넉한 경상북도 의성에서 불교종립 중학교엘 다녔다. 관음사(고운사 포교당)에서 심부름도 하고 법당마당 청소며 조석예불까지도 네 몫이었다. 청소년 법회 준비 등도 맡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지도해 주시던 서재균 교장님과 한길로 선생님을 고개숙여 존경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포교에 정성을 쏟으시던 분들이었기 때문이다. 부처님 인연법이 소중하여 고등학교도 대구에 있는 불교종립학교를 졸업했다. 자그마한 절에서 부전 보면서 다닌 학교라 규정에 엄하기로 소문난 한사람이었다. 절에 불공손님이 오면 학교로 연락이 오고 담임선생님께서는 수업중이라도 특별조퇴를 허락하신 것이었다. 직무상 조퇴가 되는 셈이다.

그렇듯 불교생활에 젖어 사는데 서울로 추천이 되어 본격적으로 불교학을 전공하게 됐다. 대학에서 대학원까지 6년의 시간을 기원학사(불교학과 기숙사)에서 대중공양, 조석예불, 염불, 참선, 간경, 답사, 청법을 하며 생활했다. 초대 군승장교 후보생, 불교종립 명성여자고등학교 초대 교법사(校法師)로 부임하여 지금까지 30여년을 부처님 그늘에서 살고 있다.

초창기라 법회 식순 개발, 각 학교 불교학생회 지도, 전국사찰불교 수련회 개최, 교직원 법회, 제등행렬 등 각종 불교행사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다. 그 가운데 내가 이룬 참으로 감개무량한 불사가 있다.

바로 1968년 4월 초파일부터 사용한 '부처님오신날' 명칭이다. 이 불사야말로 영겁 불연(佛緣)이 아닌가 여겨진다.

모태신앙인 불교가 나에게 있어서는 삶 그 자체였고, 수행과 인생살이 전부가 된 것이다. 긴세월 변화과정에서 이루어진 소중한 가족들과의 인연, 고맙게 느끼며 산다.

불교에서 벗어나지 않는 자식들이 그러하고, 초발심이 강한 집사람이 나보다 철저하게 수행해서 더욱 좋다. 스님들께서도 신심있는 부부라고 불러주셔서 기대에 부응코자 더욱 노력하게 된다. 집에선 늘 우리 도반 '무진안' 보살과 수행담, 사찰순례, 사찰행사에 관한 얘기를 나눈다. 아침 일찍 출근해 교내 법당에서 나의 스승 석가모니부처님께 참배하고 앉아 입정이 끝나면, 학교 전역을 도량석하듯 두루 살피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연다. 이어 전교 학생과 교직원은 범종소리에 맞춰 자리에 앉아 선정의 시간으로 시작의 터를 다진다. 시간이 나면 〈금강경〉을 펴게 되고 어려운 일과 결단의 순간을 맞으면 '주인공'을 찾아 문제를 해결한다. 한달에 한번 이상 교직원 법회 개최, 주당 일회 법회 조례 실시와 지난달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 학부모와 주민 대상으로 '불교기초교리 강좌'를 개설해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수승한 근기의 사람들이야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 而生其心)' 또는 '농아라 농아' 하면 '염화시중의 미소'가 일어날지 모르나, 많은 학생들과 보통사람은 여러가지 방편을 통해 깨달음에 접근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다수 대중을 대상으로 가르치다 보면 배움이고 수행이 동시인 것을 체험하기도 한다. 붓다의 크신 자비정신을 씨앗처럼 심어보려는 것이 불교종립학교 책임자의 역할이라 확신하고 있다.

게 시 판

♣ 인사

△조계사 청년회=회장 이종찬, 부회장(남) 박종혁, 부회장(여) 김영선

△대구광역시 사원주지연합회=총무부장 정우(죽림정사), 조직부장 인각(성화사), 포교부장 각정(법장사), 문화부장 종렬(청수사), 재무부장 혜선(금룡사)

♣ 알림

△도원불교수련원=강원도 평창군에 위치한 도원불교수련원(원장 성담스님)은 일반불자, 신행단체 등이 기도, 수련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제공한다. (0374)32-7464

△승가대 수련회=중앙승가대 동문회(회장 무상)는 21일 유네스코 청년원으로 동문·재학생 합동 수련회를 떠난다. (02)922-7881

△전통문화 바로알기운동=한국청소년보호육성회(이사장 이만수)는 19일(예정) 경기도 여주 고달사와 신륵사에서 '우리 전통문화 바로알기' 운동을 전개키로 하고, 1백50명의 모범학생을 선발한다. (02)925-5112

♣ 강좌

△수화교실 개설=대구 자비의 전화(회장 지도스님)는 19일부터 3개월간 매주 수요일 교육실에서 수화교실을 개설한다. 동참금은 3만원. (053)951-3340

△협동조합공동체운동=한국불교환경교육원(원장 법륜)은 19일 '대안경제체제로서의 협동조합 공동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한다. (02)765-6324

♣ 모집

△소년가장 생활수기=전국어린이가장돕기모임(회장 이호식)은 12월31일까지 어린이가장 생활수기를 모집한다. (02)884-9750

△유아교육교사=부천 석왕사(주지 영담)는 유아교육 교사를 모집한다. 자격은 대학 졸업자로 6~7세 아동지도 가능한 자. (032)668-0074

△보육교사·간호사=봉은사(주지 무상)는 보육교사와 간호사를 모집한다. 자격요건은 해당학과 전문대학이상 졸업자로 72년이후 출생자. 간호사는 조무사 자격이상. (02)511-6070

△녹음·점자봉사자=원심회(회장 덕신스님)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녹음자원봉사자와 점자입력봉사자를 모집한다. (02)720-4528

△파출원=대전 법동사회복지관(관장 보안스님)은 제7기 파출원을 14일까지 선착순 40명 모집한다. 제출서류는 건강진단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02)633-1141

♣ 답사

△육조 혜능선사 등신불=부산불교연합회(회장 성오스님)는 22~28일 중국 남화선사, 광효사로 성지순례를 떠난다. (051)867-0501

♣ 법회

△발심대법회=대전불교사암연합회(회장 현수스님)는 14일 대전 시민회관에서 '발심대법회'를 개최한다. (042)222-0108

△3일철야 대입기도=서울 종로구 구기동 금선사(주지 법안)는 15~17일까지 대웅전에서 '대학합격발원 3일철야 용맹정진 기도'를 봉행한다. (02)395-9911

♣ 화촉

△박종학 조계종 총무원 총무계장은 15일 오후1시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김진희씨와 화촉을 밝힌다.

♣ 부음

△박상진 동국대화학공학과 교수 모친이 6일 새벽 별세했다. 장지는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선산.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祕)"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만다라는 제불보살님과 신(神)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충만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가득 차게 합니다. 그러나 만다라 자체만 걸어 놓으면 상서로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합일시킨 결과, 놀랍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괘 만다라 액자



◎ 소 재
· 팔괘 : 고급 나무 목관 팔각형
· 만다라 : 알미늄판에 직접 색채 도안 조성
※ 그 위에 유리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특수기법처리

규격 : 45㎝×45㎝

◎ 보급가 : ₩300,000 ⇒ ₩ 15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5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비한 작용

첫째 가정, 사무실, 사업체 등에 걸어 놓은 결과 사악한 기운을 추방하고 불길한 운세를 흡수시키면서 약하고 침체된 기(氣)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점이나 가게 등에 걸어 놓으니, 외부의 좋은 기를 끌어당기는 영향 때문인지 고객과 돈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집안의 현관, 거실, 안방에 걸어 놓으니 집안 전체에 흐르는 수맥(지하수)의 영향이 완전히 차단되는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을 직접해 본 집에서는 밤마다 깔아놓았던 돗판을 모두 걷어내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의 수맥 차단 실험은 2명의 수맥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실증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서 불가사의한 이 현상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외양을 갖추고 있어 어느 가정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아도 어울리는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 불자들간의 선물 · 생일선물 · 개업선물 · 집들이 선물
· 연말연시 선물 등으로도 단순한 액자가 아닌 행운과 재운과 건강을 불러오고 보장해주는 액자라는 점에서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선적으로 자신의 집에는 필히 걸어 놓으시는 것을 잊지마십시오

보급처 :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4-9490, 34-9491
야간 : (0342)706-3060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연락주시는 대로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 책 자 내 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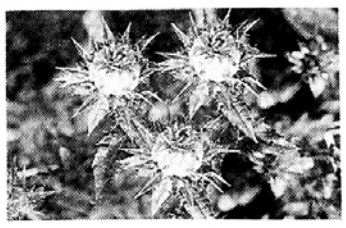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점은 무엇인가 ?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④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 나는가 ?
⑤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일체지 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천도시킬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⑥ 특별 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⑦ 각 방편들의 내용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 천도 기도방법.
⑨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⑩ 특별 천도재를 지내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4-9490, 34-9491
야간 : (0342)706-3060

홍화마을

홍화씨로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식품 의약품안전국(F.D.A)
품질공인!!

홍화씨의 효능은
이제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민속 홍화씨

작목반 박래환

TEL 053)943-9371
02)3431-0743/0522)61-4424
FAX 053)943-9371

한평생 그림삼매 빠진 화승

발굴화제 근세 불화 이끈 佛母 보응스님

금호스님 맥 이어…제자론 일섭스님
갑사·해인사·개운사등 탱화 그려
속가 두딸 미소정사에 '추모비' 계획

10월 24일 오후 우일스님의 불화초본전이 열리는 조계사 불교회관 1층에 74세의 한 노보살이 나타났다. 김태희보살(74). 김보살은 보응스님의 제자 일섭스님의 맥을 이은 우일스님의 불화초전시회가 열린다는 본지 제147호(7면) 기사를 읽고 한달음에 달려온 것이다. 바로 보응스님의 속가 큰딸인 김보살은 아버지의 손상좌에 해당하는 우일스님의 불화초 하나하나를 만감이 서린 표정으로 둘러보았다. 김보살은 곧 동생에게도 연락, 29일 동생 김영희보살(69)이 또 전시장을 다녀갔다. 두 자매는 다음주쯤 우일스님과 직접 상봉할 계획도 잡아놓았다. 근세초기를 대표하는 화승 보응스님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본지는 김태희, 영희 두 딸과 스님의 법제자 김노영옹을 통해 보응스님에 대해 편린이나마 소개하고자 한다.

사찰의 불화는 언뜻 보기는 모두 비슷 비슷해 보이지만 지방마다 또 그린 화승에 따라 화풍에 특색을 보이고 있다. 지방에 따라 사불산맥, 불모산맥 등 문중으로 계파를 나누기도 하는데 현재 화사들의 계파 정리는 제대로 안되어 있어 불교미술계의 큰 숙제로 남아 있다.

보응 문성스님은 조선 중기를 대표하는 불화가 의겸스님의 제자 금호 약효스님의 맥을 이은 마곡사출신 화승이다. 금호스님은 고종년간에 활동한 최고의 불모로서 그 이름을 전국에 떨쳤고 보응스님은 그의 의발을 이은 것. 보응스님의 제자가 우리나라 최초의 탱화 인간문화재로 지정됐던 김일섭스님이다.

보응스님은 6·25전쟁이 끝난 1953년 예산 대련사에서 87세를 일기로 입적했는데 화승이었음에도 입적하는 순간까지도 틈만 나면 참선삼매에 드는 등 정진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이 스님의 만년을 시봉한 막내딸 김영희보살의 전언이다.

경기도 양촌에서 1867년 태어난 스님은 어렸을때 그대로 두면 명이 짧다는 말에 마곡사로 보내져 어린 나이에 출가했다. 보응스님을 곁에서 모신 이들의 말에 따르면 스님은 한번 붓을 들면 하루종일이라도 말이 없이 그림삼매에 빠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감히 말을 못 붙일 정도였다는 것.

보응스님은 고창 선운사에서 팔상탱 불사를 할때 팔상탱중 두번째인 '비람강생상(毘嵐降生相)'을 그리다가 깨달음을 얻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스님이 싯달타 태자의 주행7보를 그렸을때 탱화에서 방광(放光)이 오랫동안 높게 솟아 이를 보고 놀란 마을 사람들이 다음날 아침 손수레에 정성껏 재물을 실어와 심한 가뭄으로 사찰재정이 쪼들려 중단될 뻔 했던 선운사 탱화불사가 원만히 끝났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이 이야기를 스승에게 직접 전해 듣고 보응스님이 방광후 깨달음의 경지를 적어놓았던 노트까지 소장(수년전 타인에게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했다 함)하고 있었다는 스님의 유발상좌 김노영옹(81·강원도 미소정사)은 "보응스님은 언제나 불화에만 몰두하셨는데도 의심나는 것을 물으면 막힘없이 답을 주셨습니다. 은사스님으로 인해 〈화엄경〉에 입문하게 됐고 오늘날까지 화엄학에 몰두하게 된 것이지요"라고 말한다.

보응스님이 그린 탱화는 갑사, 해인사, 약수암, 개운사, 경국사, 표충사, 도림사 등에 남아있는데 스님은 특히 눈 눈썹 수염 등 얼굴 표현에 뛰어나서 마치 살아있는듯 생생해 전국 사찰에서 불사를 할때는 보응스님 모시는 것을 큰 영광으로 알았다고 한다.

그동안은 사느라고 바빠 아버지를 가슴에만 묻어놓았던 두 딸 김태희·영희 보살은 스님의 맥을 이은 우일스님의 전시회를 계기로 아버지스님을 추모하는 기념비를 강원도 미소정사에 세우는 계획을 잡아놓고 있다.

이경숙 기자



◇보응스님이 그린 '신중탱'. 일영 도림사에 봉안돼 있는데 각 표정들이 살아있는듯 생생하다.

불심시심 〈106〉

세속 먼지 씻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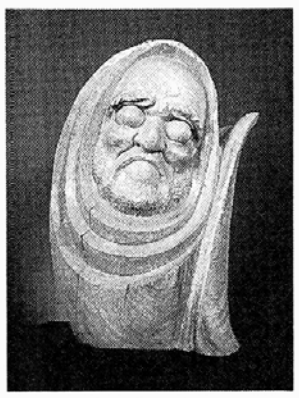
一笻遙指碧山頭 (일공요지벽산두)	지팡이로 가리키는 저 푸른 산마루
中有高樓最勝遊 (중유고루최승유)	그 속의 높은 누대 가장 놀기 좋아
水滿雙溪時九夏 (수만쌍계시구하)	물 가득한 두 시내 바로 한 여름
風淸孤閣月三秋 (풍청고각월삼추)	바람 맑은 높은 누각 달은 가을
含泥玄鳥簷端入 (합니현조첨단입)	진흙 문 제비 처마끝 돌고
喚友黃鶯檻外留 (환우황앵함의류)	벗 찾는 꾀꼬리 난간 밖 머물다
終日看雲閑獨步 (종일간운한독보)	종일토록 구름보며 한가한 발걸음
行裝蕭灑洗塵愁 (행장소쇄세진수)	말쑥한 행장으로 세속 근심 씻다

용암대사의 시이다. '용흥사 세진루의 운에 따라 짓는다(次龍興寺洗塵樓韻)'는 시이다. 높이 솟은 누대에서 그곳을 중심으로 한 네 계절의 경치를 상상하고 있는 것이다. 한 편의 시 안에나 사계절의 특징을 잘 요약하고 있다. 물이 가득하다는 이 한 말로 이미 여름의 대표적 경치를 말하였지만, 이 시에서의 시어의 묘미가 여름을 구하(九夏)라 한 것에 재미가 있다. 여름 석달이라는 구십일의 구하이기는 하지만, 앞에서 가득할만(滿)자와 이 아홉구(九)자의 상징이 돋보이기 때문이다. 아홉은 수의 극치이다. 꽉 찬 숫자다. 한 여름을 꼭 끼어안은 듯한 인상이다. 대구의 바람 맑다의 풍청(風淸)과 삼추(三秋)의 맞물림도 은연중에 삼의 숫자가 맑음의 정서와 고요히 어루만져 지는 느낌을 갖게 한다. 아무튼 가을철의 대명사야 달일 수밖에 없고, 달 밝은 누대라면 산들바람은 몸체에 그림자처럼 따르는 것이 아닌가. 이 시에서도 이 점을 놓치지 않고 안배시켰다.

자연은 항시 자연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지만, 네 계절도 제 스스로 나름의 특징을 가지며, 이 네 계절에 따르는 자연들도 나름의 특징과 서로의 함수적 연관이 있다. 봄은 새의 울음에서 시작된다 하여 새로써 봄을 상징하기도 하면서, 새라 하면 봄의 전령자와도 같은 제비를 연상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기에 봄은 제비가 물어온다고도 한다. 여기에 처마 밑으로 집을 지으려는 제비의 진흙은 마치 그 집의 복을 쌓는 것과도 같은 훈훈함을 주게 한다. 거기에다 또 꾀꼬리의 울음은 놓칠 수 없는 것이 봄의 아름다움이다. 스님은 이 꾀꼬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난간 밖에다 머물려 놓았다.

이러한 풍경은 각기 바쁨의 징표이나, 감상에 몰입하는 이에게는 한가로움이다. 이 한가로운 행장으로 세속의 먼지를 씻으려는 스님의 참선이다.

이중찬 〈동국대 교수〉



◇제5회 문화재 기능인회원전에 나오는 김대현作 '보리달마'.



◇이화조각정원에 전시된 조선시대 장명등. 조각이 섬세하고 아름답다.

'문화재조각회원전' 공평아트센터

'우리 옛 돌조각의 힘' 이대 박물관

가을 보내는 조각전

노오란 은행잎이 뒹구는 늦가을, 전시장을 찾아 섬세한 솜씨의 아름다운 조각작품을 감상하는 기회를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가을을 마감하는 두개의 대형 조각전시회가 바쁜 도시민의 발걸음을 잠시 여유로움으로 머물게 한다.

19일부터 25일까지 관훈동 공평아트센타(02-733-9512)에서 열리는 제5회 대한민국 전통문화재조각회원전은 지정문화재 조각기능인으로 지정받은 불자장인들이 총 동원돼 그들의 빼어난 최근 작품들을 살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박상돈 김익홍 박찬수 이진형 허길용 청원스님 이인호 김광열 이재순씨 등 70명의 기라성같은 불자장인들이 석가모니불 포대화상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미륵 등 각 불 보살상과 불감 가정불단 등을 출품, 불교조각의 다양한 멋과 맛을 음미할 수 있는 140여 작품이 전시된다.

이화여대 박물관(관장 김홍남 02-360-3152))이 이화조각공원 조성을 계기로 내년 10월 31일까지 여는 '우리 옛 돌조각의 힘' 특별전에서는 우리 전통 돌조각 70여점을 현대적 미감으로 새롭게 만날 수 있다. 사찰이나 능, 민가 등의 생활공간에 흩어져 있는 이름없는 석공들의 혼과 땀이 담겨있는 돌조각들은 시간과 죽음의 문제를 뛰어난 조각기술로 예술화 했다. 보리사지 대경대사현기탑(보물 제351호)등 부도와 석탑 석등을 비롯 순수함과 슬기로움이 돋보이는 동자상, 마을의 이정표, 수호신 역할을 해온 장승 등 다양한 돌조각이 선보인다. 〈숙〉

통일서예인상에 이시규씨

제1회 통일서예대전 입상작 339점 선정



불교서예인협회(회장 진우스님)와 평불협이 공동 주최한 제1회 대한민국통일서예대전에서 서예인의 화합에 기여한 공로가 큰 불자서예인에게 주어지는 통일서예인상(국회의장상)에 이시규씨(41·목정서예학원장)씨〈사진〉가 선정됐다.

최우수상(내무부장관상)은 목은 이색선생의 시를 예서대련으로 출품한 백종춘씨(27·매곡서예학원장)가, 우수상은 한글부문에 조주연씨, 한문부문에는 황태현씨(부산 동호여상 교사), 사군자부문에는 '묵죽'을 낸 김주용씨(묵정서화연구실 원장)가 각각 수상했다.

올해 처음 실시된 통일서예대전에는 한글 339점 한문 431점 등 총 865점이 출품되어 수상작 외에 특선 53점 입선 282점이 입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입상 작품들은 12월 15일~23일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전시된다.



◇통일서예대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백종춘씨 작품.

불교아동문학회 16회 글짓기공모

최우수상 15명

한국불교청소년문화진흥회 산하 아동문학회(회장 신현득)가 주최한 제16회 전국불교어린이 글짓기작품 현상공모 입상자가 확정, 시상식은 15일 목동청소년회관에서 거행된다. 각 부문별 최우수상은 다음과 같다.

저학년부: ▲산문부=홍석현(신정초 3) 김민지(은석초 1) 윤슬지(은석초 1) ▲동요·동시부=노재욱(양목초 3) 하성훈(은석초 3)

고학년부: ▲산문부=김용인(영도초 5) 하미이(은석초 6) 원동환(은석초 4) 성상아(광양제철남초 4) 박효민(광양제철초 4) ▲운문부=조현근(은석초 5) 배한성(유석초 4) 황세원(경인초 5) 윤수경(유석초 5) 정현우(은석초 5)

찬불가 가사 입상작 6편 발표

대한불교찬불가제정위원회(위원장 정용우)가 공모한 제7회 찬불가요 가사 현상공모 입상작이 발표됐다. 시상식은 15일 목동청소년회관 법당.

▲찬불가: '불이법문'(배영호) '회향의 큰 말씀'(신양호)

▲불교동요: '유치원 가지'(권중근) '법륜시계'(노정인)

▲불음가요: '울력의 노래'(정영규) '그 말씀 새기네'(이형렬)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일타큰스님 법어집

"맑고 향기로운 세계를 향해 열려 있는 문(門)"

부처님의 말씀을 보다 쉽고 가깝게 대중들에게 전하셨던 일타큰스님. 일타큰스님의 법어집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가 출간되었습니다. 고된 삶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며 방황하는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문을 열어드립니다. 법(法)의 향기 가득한 일타큰스님의 말씀, 삶의 지표를 다시금 세워보십시오.

Ⅰ.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 Ⅱ. 복된 삶을 이루기 위하여 / Ⅲ. 베풀며 살자 / Ⅳ. 밝은 삶을 여는 계율 / Ⅴ. 자기를 돌아보는 공부 / Ⅵ. 화두 드는 법 / Ⅶ. 마하반야바라밀

※ 월간 『법공양』에 연재되었던 일타큰스님의 주옥같은 법문을 한권에 담았습니다.

신국판 / 값 5,000원

고된 삶의 감로수 같은 일타큰스님의 책모음

· 생활 속의 기도법 일상생활에서 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도법 모음집 B6 / 3,500원

· 祈禱(기도) 일타스님과 도반·선배·제자·신도들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신국판 / 5,000원

· 시작도 끝도 없는 길 일타스님 주변의 윤회와 인연이야기 모음집 신국판 / 5,000원

· 시작하는 마음 초보자를 위한 불교입문 지침서 보조국사의 《초심》 강설집 신국판 / 5,000원

·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에 대한 일타스님의 강설집 신국판 / 5,000원

·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야운비구의 《자경문》을 알기 쉽게 풀이한 책 신국판 / 5,000원

· 법공양문 부처님과 역대스님들의 가르침을 모아 엮은 책 신국판 / 5,000원

· 범망경보살계 1~5 보살계 산림법회에서 강설하신 일타스님의 무애변 [illegible]을 담은 책 신국판 / 각권 6,000원

· 감로법문 듣는 것만으로도 환희심이 샘솟는 일타스님의 육성법문 테이프 육성법문 테이프 / 5개 1세트 / 10,000원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을 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전화 : (02) 587-6612·582-6612 팩스 : (02) 586-9078

부도 … 도산 … 경제위기

'부처에게서 배우는 경영의 지혜'

기업인들 애독 '사고전환'



◇〈부처에게서 배우는 경영의 지혜〉가 재계의 최고 경영자들에게 소리없는 애독서로 인기를 끌고있다.

주가가 폭락하고, 기아 해태 뉴코아 같은 대기업들의 부도가 이어지고 있는 심각한 경제위기속에서 〈부처에게서 배우는 경영의 지혜〉가 내로라 하는 국내기업의 경영자들에게 소리없는 인기를 더하고 있다.

불자인 성균관대 유필화교수가 부처와 경영이라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가지를 결합시켜 불안정한 현재의 우리경제계에 산뜻한 희망을 불어 넣어주고 있기 때문. 급속하게 성장하고 결국에는 몰락하는 기업의 생리를 제행무상(諸行無常)으로 중도(中道)의 가르침을 기업 경영자의 훌륭한 기준으로 제시한다. 무한경쟁의 구조속에서 오로지 이윤추구만을 향해 달려온 이들에게 탁견을 열어주고 있는 것이 이 책의 인기비결이다.

"지난 7월 이 책을 접한 후로 항상 가까이에 두고 혼자 있는 시간이면 다시금 펼쳐보곤 한다"는 OB맥주 유병택 사장은 "불교나 경영에 그리 심오한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막힘없이 읽을 수 있고, 현대사회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가능케 해준다"고 이 책을 읽은 감상을 말했다.

지난 5월 한국언론자료간행회에서 출간돼 10월말까지 불교실용서로서는 드물게 4판 6천권을 돌파한 이 책은 불교경전에 나타난 내용과 사례를 경영에 접목시켜 경영자 정신, 경영이념과 비전, 현장경영에 이르기까지 자세하고 쉽게 설명했다.

"막힌가슴 뚫리는 듯" 동양화재 박종익 사장

"경영난국 해결 답안" OB맥주 유병택 사장

"간부 필독서로 권장" 오뚜기식품 함영준 부사장

또한 기업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가치관의 혼란이 극심할 수록 여타의 권력이나 불순한 곳으로 눈을 돌리지 말고 바른 기업경영의 길을 걷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경영전략이라고 결론내린다.(본지 123호 보도)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 복잡 다양한 현대 기업경영의 이상형을 제시한다는 것이 최고 경영자들이 이 책을 즐겨 읽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

동양화재 박종익사장이 "막힌 가슴을 탁 틔워주어서 여러번 읽고 또 읽었다"며 직접 전화로 소감을 말하기도 했다.

또 오뚜기식품의 함영준부사장은 타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읽은 후 크게 감명을 받아 영업부서 간부들에게 책을 직접 사서 한권씩 주었다는 일화도 전한다. 이밖에도 서통 최좌진 사장, 동아제약 강신호 회장등 재계의 거목들이 이 책을 읽은 소감을 유교수에게 전하기도 했다.

최근 재테크, 창업 등 출판가에도 돈벌이와 관련된 경제 경영서적들이 상당수 출판되고 있지만 유필화교수의 〈부처에게서 배우는 경영의 지혜〉는 그런 경제경영서적들과는 차원부터 다르다.

어떻게 하면 고정수입을 쉽게 불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돈없이도 창업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표피적인 서적들에 비해 이 책은 어떻게 하면 모두가 올바르게 벌고 바르게 쓸 수 있는가 하는 경영의 지혜를 가르쳐 준다.

이 책을 출판한 한국언론자료간행회 박수형 편집장은 "출간이후 동국대 권기종교수등 교계인사들로부터 시기적으로 적절했고 좋은 아이템과 기획력이 돋보인다는 평가도 받았고, 그외 지방컨설턴트라든가 경제계 인사들로 부터 불교를 새롭게 알게됐다는 소감을 전해들기도 했다"고 말했다.

유필화교수는 "부처에게서 배우는 경영의 지혜는 우리가 잊고 있는 삶의 지혜를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자연스럽게 깨닫게 하고, 자기삶의 경영 나침반을 세울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본다"면서 "부처님 가르침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사회의 경제적 불황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자 기자

일제시대 우리공예물의 진가찾기

조선공예개관 | 심우성 번역

화제의 책



〈조선공예개관〉은 1931년부터 1951년까지 일본민예협회가 발간한 〈월간공예〉란 잡지중에서 당시 조선의 공예에 관한 글과 140여장의 귀중한 사진 및 그 해설을 모아 번역한 책이다.

여기에 실린 글들은 단순히 식민시대의 문화정책을 위한 기초자료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비록 일본인들에 의해서였지만, 한 시대 우리의 공예사를 고스란히 기술해 놓고 있다. 짚공예, 목공예, 도자기 등 조선공예 전분야를 섭렵함은 물론 격변기에 사라져가는 민예품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당시 조선 공예가 처한 상황들을 선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다. 풍경, 촛대 등 불교관련 공예물들도 눈여겨 볼 만하다.

〈동문선 3만원〉

출판가 소식

최명숙씨 시집 '진실…'



한국장애인문인협회 회원이자 장애인들을 위해 한국뇌성마비복지회에서 활동중인 최명숙불자가 시집 〈진실, 그 비움에 관하여〉를 발간했다.

이 시집은 '소양호에서 청평사까지' '천축사에 가서' 등 내면의 자아와 조화를 이룬 삶에 대한 내용을 담은 50여편의 시를 수록하고 있다.

시인은 이 시집을 내면서 불교계에도 뇌성마비장애인들에 대한 교육과 재활에 더욱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며 작은 바람을 피력했다.

보리원 '초발심 법요집'

대구불교회관 보리원이 〈초발심 법요집〉을 펴냈다.

불교와의 만남, 불교의 의의, 불교의 근본개념 등 불자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상식과 합장하는 법, 절하는 법 등 사찰에서 갖추어야할 예절을 실었다. 또 불공, 참회, 가정법회 등 각 법회에 대한 의미와 의식 순서도 수록했다. (053)582-7611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역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부드러운 말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일 타	효 림
2	수행으로 가는 길	이 제 열	대원정사
3	한국사찰음식	김 연 식	우리출판사
4	사십구재란 무엇인가	효 림	행 원
5	죽비깍는 아침	지 묵	우리출판사
6	위빠사나 열두선사	김 열 권	불 광
7	선(작은책 2)	지 현	민 족 사
8	참선교육	현 담	수선출판사
9	깨어있는 마음 닦기	보 천	불 지 사
10	명상길라잡이	박 석	도 솔

구입문의:(02)737-0695

故 이기영박사 추모문집 '내걸음의…'

불연선생의 생애·학문 정리



한국불교의 거목으로 지난해 11월 9일 세미나 현장에서 타계하신 고 불연 이기영박사의 1주기를 맞아 한국불교연구원에서 추모문집 〈내 걸음의 끝은 마음에 있나니〉(여래 刊)를 발간했다.

이 문집에는 원효연구의 대가로 한국불교연구원을 설립해 한국불교학의 연구기풍을 진작시켰던 고 이기영박사가 평생동안 공부하며 느꼈던 삶과 사색의 글들이 담겨있다.

제1장 '길을 찾아서'에는 20세때 경성제국대학 예과에 입학해 하숙과 친척집을 전전하며 영어, 독어, 철학, 문학, 예술 등 다방면의 학문을 접하다 학도병으로 끌려간 이야기에서 부터 공산치하에서의 교사생활 등 이박사의 초년기의 삶이 고스란히 소개되고 있다.

제2장 '동과 서를 넘어', 제3장 '진리는 하나', 제4장 '보살의 길을 따라', 제5장 '영원한 것은 마음'에는 이박사가 유학시절에 경험한 다양한 서양문화에 대한 이해와 학문에 대한 고민, 불교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이해 등을 비롯 귀국이후 각종 신문, 잡지 등 언론에 투고 했던 글들이 연도별로 정리돼 있다. 이같은 글들속에 '마음의 문이 열린 사람들에게는 눈앞의 모든 것이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길 아님이 없고 문 아님이 없다'는 원효스님의 가르침을 일평생 품고 살아온 이박사의 생애와 사상이 고스란히 표출되고 있다.

이밖에도 이 책에는 이박사의 연보와 주요 저작목록, 이박사의 40년지기 친구 위베르 듀르트교수의 '유학시절의 불연회상'과 한국불교연구원 이사장 정병조교수의 발문 '먼 길을 떠난 님에게'를 실어 고인이 된 이박사의 삶과 업적을 기리고 있다.



'선학의 황금시대' 19년만에 재발간

당대(唐代)의 선사들에 의해 체득되고 교시되었던 불교의 진리인 선학(禪學)을 고찰한 〈선학의 황금시대〉(천지刊)가 나왔다.

이 책은 지난 78년 삼일당서 출간이후 절판됐던 것을 역자 이남영교수(서울대)가 1년반동안 보다 쉽게 다시 번역, 선학의 길라잡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새롭게 펴낸 것이다. 선의 기원과 중요성, 달마와 그의 직계제자 등 선사와 선종의 전개에 대해 살피고 있는 이 책의 저자는 중국의 석학 고우징슝(吳經熊)박사다.

"불상이름 외우지 않아도 알아요"

전병철씨 '팔만대장경도 모르면…' 펴내



알아야할 역사 상식 쉽고 재미있게 전달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역사 용어들을 상식의 틀안에서 풀이한 책이 나왔다. 새롭게 읽는 역사상식 알아서 좋은 역사용어를 정리한 〈팔만대장경도 모르면 빨래판이다〉(내일을 여는 책 刊)가 바로 그것.

절이나 박물관에 가보면 수많은 불상과 탑이 있다. 그런데 과연 그 불상과 탑이 갖는 의미와 시대별 구분은 어떻게 할 것이지, 왜 불상 이름은 그렇게 길고 복잡한지를 생각하다 보면 조상의 숨결을 느끼기보다 막막할 때가 많다. 또 왜 옛날 지배자의 이름은 그렇게 많은지, 역사극을 보며 그 많은 왕실 여인들의 이름을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지 짜증날 때도 많다. 이 책은 일상생활속에서나 학교수업시간, 또 문화유산 답사를 갔을 때 꼭 알아두면 좋다고 판단되는 역사상식 13가지를 뽑아 새롭고 재미있는 해설과 관련 사진, 그림 등을 곁들여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여우의 신포도처럼 치부해 버리는 생활 속의 역사문제를 하나하나 끄집어 내서 쉽고 재미있게 풀어 낸 이 책은 현재 공주 농고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현직 역사교사 전병철씨가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펴내 더욱 화제가 되고 있다.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탑은 다 가짜' 부분에서는 탑의 기원을 설명하고, 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로 이어지는 시대별 탑의 특징은 '탑을 보면 그 시대 정치가 보인다'에서 고찰한다. 또 '알고 보면 외울 것도 없는 불상 이름'에선 불상 이름 짓는 법을, '불상만 봐도 그 시대 정치가 보인다'에서는 시대별 불상의 특징을 각각 소개하고 있다. 또 국보와 보물의 차이점과 알 것 같은데 잘모르는 공휴일 기념일의 제정과 의미 등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최신간

붓다들이 벌이는 영혼의 축제

월계수 꽃의 냄새를 맡았는가

오쇼 라즈니쉬의 이규선사 강의 · 이경옥 옮김



신국판 / 520면 / 값10,000원

아름답고 슬픈 감성의 소유자,
비범한 통찰력을 지닌 구도자 이규선사!
오쇼 라즈니쉬의 눈과 마음으로 그의 시를 듣는다.

눈물 · 웃음 · 침묵의 스승, 오쇼 라즈니쉬(Osho Rajneesh)!
그는 일본의 별난 선사 이규(一休)의 시 가운데 주옥같은 13편의 시를 선별하여 그 깊은 메시지를 쉽고 감동적으로 전하고 있다. 이규의 시들은 진하고 깊은 인간적 삶에서 우러나온 것들로, 라즈니쉬의 깊은 각성과 사랑의 빛으로 함께 어우러져 펄펄 살아 숨쉬는 대양의 하모니를 이루고 있다.

이규는 별난 선사?!
1394년, 고꼬마스(後小松) 천황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술과 고기, 여색을 즐기는 등 무애행(無碍行)을 실천하며 일체의 가식과 위선을 버리고 계율마저 넘어가고자 하였다. 깨달음에 대한 철저한 자기 인식이 있었기에 당시 타락하고 있던 일본의 선승들을 가차없이 질타하고 매도와 독설을 서슴지 않았다.

법구경 上·下

법구경은 나를 완전히 발가벗겼다!
나는 허상의 옷을 모두 벗어던지고 그를 받아들였다!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신국판 / 전2권 / 각권 값6,500원

금강경

벼락처럼 자르는 지혜의 완성!
2천5백 년 전
붓다가 돌렸던 진리의 수레바퀴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신국판 / 432면 / 값7,000원

탄트라비전 I II III IV

내 영혼이 눈 뜬 최초의 창문!
"마음을 변형시키고 초월시키는 모든 길이 여기에 다 들어 있다!"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이연화 옮김
신국판 / 전4권

부처님의 유언

스승도 없고 제자도 없다.
이제 세상은 모두 다 도(道)를 놓아 버렸다!
공파스님 역해
신국판 / 400면 / 값7,000원

판차탄트라

감로수와도 같은
다섯 토막의 지혜가
우리의 인생을 현명하게 바꾸어 준다!
판디트 비쉬누 샤르마 지음 / 서수인 옮김
신국판 / 440면 / 값7,000원

삶을 논하는 영혼의 성자,
깨달음의 스승 마조, 조주, 임제, 남전을 아십니까?

마 MATZU 조 | 조 JOSHU 주 | 임 RINZAI 제 | 남 NANSEN 전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태일출판사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4가 36 대표전화927-2831 팩스924-3236

책장을 여는 순간, 명쾌하고 진한 감동이 메마르고 지친 당신의 영혼에 단비를 내려줄 것입니다.

한국불교문헌 영역화 외국학자 의존도 높다

번역물 검증체계 필요…해외시장 개척도

불교문화연구원, 국제원효학회 등 주요 불교학술단체들이 한국불교 고전·연구서의 영역·일역 작업에 적극 참여하는 가운데, △번역물의 엄정한 검증 △번역물을 소개하기 위한 해외시장 개척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국내에서 발간된 영자판 한국불교 서적에는 불교문화연구원(원장 권기종·이하 불문연)이 최근 출간한 〈한국불교사상개관〉 〈한국불교의 역사와 문화〉이며 〈한국 선사상 연구〉 〈천태사상연구〉 등의 발간도 서두르고 있다. 이외에도 국제원효학회(회장 송석구)는 번역자 15명을 선정하고 원효저술 번역 작업에 들어 갔다. 또 성철선사상연구원(원장 묵정배)도 성철스님의 법어집인 〈가야산의 메아리〉의 영역본 개정·보완판의 발간을 서두르고 있으며 한국불교연구원(이사장 정병조)은 UCLA 부설 종교학연구소와 함께 보조지눌스님의 전적과 강원교재인 〈사집〉 등의 영역본 발간을 계획하고 있어, 한국불교 고전·연구서의 '번역붐'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박성배 석좌교수(동국대 불교학)는 "한국불교의 뛰어난 사상에도 불구하고 국내 학자들이 진부한 영어 표현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해외 불교학자 의존도가 높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불교의 정수를 올바르게 번역하기 위해서는 성과물에 대한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외국인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 이 작업에서 한국불교의 전통을 지킬 수 있는 방안 모색을 강조했다.

국제원효학회가 원효스님 저술을 번역하기 위해 선정한 번역자 15명 중 12명이 해외 학자인 반면 국제원효학회는 이들 번역물이 한국불교의 전통을 잇고 있는가를 엄격히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연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원효스님 저술 영역작업이 자칫하면 해외 학자들의 개인 성과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것이 일부 학자들의 우려이다.

한편 우수한 번역물이 쏟아져 나온다 하더라도 이것을 소개할 수 있는 해외 시장이 개척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해외에 소개된 한국불교 서적들은 대부분 미국 파라렉스(Parallax)·삼발라(Shambala) 출판사와 하와이·뉴욕 주립·UCLA 등의 대학에서 주로 발간하고 있지만, 소량일 뿐만 아니라 국내 학계와 출판계가 제외된 상태에서 대부분 외국인 학자들에 의해 연구-발간되어 왔다.

숭산스님이 세운 관음선원의 프라이머리 포인트(Primary Point) 출판사가 미국에서 한국불교 관련 서적을 발간하고 있지만 국내 학계·출판계와의 연계가 부족하다.

불문연이 펴낸 '한국불교사상총서' 보급을 도맡은 배만영씨(불교학술연구소 대표)는 "영자판 〈한국불교사상개관〉 등은 미주·유럽 등 해외 연구소에 기증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주한(駐韓) 외국인 학자들에게만 읽혀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출판계가 해외 시장 개척에도 주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종욱 기자



◇〈한국불교사상개관〉 〈도선국사〉 〈한국에서 온 부처〉 등 영자판 한국불교 관련서적.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불교예술-티벳

보신과 응신의 티벳본존불 「감상」

불자들이 티벳불교에 많은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티벳불교에 대한 정확한 지식의 부재와 막연한 동경의 결과가 아닐까.

미국 두크(Duke) 대학의 심리학자 로거박사가 개설한 '불교미술-티벳'에는 △티벳불교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티벳불교의 본존 △육회윤회도 △만다라 등을 그래픽으로 제공되고 있다 '티벳불교의 본존'에는 관자재보살(Avalokiteshvara) 상을 비롯해 비밀집회·시륜·호금강 본존 등 보신(受用身)과 응신(變化身)의 본존불을 감상할 수 있다. 로저박사는 "이 티벳 본존들이 불교의 가르침인 대자비와 보리심을 실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티벳의 전통적인 '육도윤회도'는 중생이 윤회세계에서 생사를 반복하는 인과관계를 십이연기에 의해 분석적으로 설명한 그림. 윤회도에 그려진 각각의 원중 제일 위가 천상(天), 오른편 위가 아라한, 왼쪽 아래가 아귀 맨 아래쪽이 지옥이다. 티벳인들은 윤회도를 보면서 육자진언 '옴마니반메훔'을 염송한다.

http://www.duke.edu/~bthafer/art.html



"일심으로 믿을때 미망 벗어나"

원효학硏 '원효의 信관' 학술회의

"원효스님은 부처님께 귀의하는 일심(一心)을 강조하고, 중생이 일심에 대한 믿음(信觀)에서 비롯된 수행을 할 때 비로소 미망(迷妄)과 집착(二執)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주장은 원효학연구원(원장 김영태)이 원효스님의 저술에 나타난 신관을 통해 현대 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할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1일 동국대 경주캠퍼스에서 개최한 학술회의 '원효스님의 신관'에서 제기됐다.

은정희교수(서울교대 윤리학과)는 '원효의 〈대승기신론 소·기〉에 나타난 大乘-일심법 起信-확신감 의심없이 우러러 믿는 仰信

신관'에서 "〈기신론〉에서의 믿음이란 대승의 옳은 이치를 알고 일으키는 일심(一心)이며, 이것은 신해(信解)·해신(解信)의 뜻"이라고 지적했다.

은교수에 따르며 〈기신론〉의 '대승(大乘)'이란 일심법(一心法)을 의미하며, '기신(起信)'이란 일심법으로 대중이 일으킨 믿음인 만큼 대승의 이해를 바탕으로 내면에서 생기는 확신감이라는 것이다.

은정희교수는 "중생들이 대승에 대한 바른 믿음을 일으키고 '깨달음의 씨앗'(佛種)을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승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며 "신심(信心)의 실천 수행을 통해 잘못된 집착(二執)을 버리고 미망에서 벗어날 때 일심을 알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보광스님(동국대 불교학과 교수)은 '원효의 정토관계 저술에 나타난 신관'에서 "〈무량수경종요〉 〈아미타경소〉 등에 나타난 원효스님의 신관은 불지(佛智)에 대해 의심없이 우러러 믿는 앙신(仰信) 그 자체"라며 "이것은 당시 오랜 전쟁으로 피폐화된 국토와 인심을 수습하기 위해 원효스님은 불교의 대중화를 주창했던 이유"라고 말했다.

인환스님(동국대 명예교수)은 '계·율·소를 통해 본 원효의 신관'에서 "중생이 '무위(無爲)·자자(自恣)'한 보살계를 바탕으로 보살도를 닦을 때 일심(一心)을 일으켜 불도를 증득하는 것이 원효스님의 신관"이라며 깨달음의 과정 속에서 신관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본업경소〉를 통해 본 원효의 신관'을 발표한 김영태교수(동국대 불교학)도 "〈본업경〉 '집산품'에서는 귀불(歸佛)·귀법(歸法)·귀승(歸僧)·귀계(歸戒) 등을 실천하는 것이 중생의 신심(信心)을 고양시키고 선행(善行)을 닦을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원효스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 경지의 신심(信心)을 강조했다"고 강조했다.

종교마다 '죽음의 의미' 달라

불 교 과보에 의한 존재의 변화

기독교 새로운 생명 얻는 관문

인간이면 누구나 자유로울 수 없는 죽음. 이 죽음을 각 종교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가톨릭 신학과 사상〉(가톨릭대출판부刊·가을호)에서는 '종교의 사생관'이라는 주제로 불교, 도교, 유교, 기독교 등 각 종교의 사생관을 특집으로 실어 눈길을 끈다.

이 특집에서 호진스님(동국대)은 불교의 무아·윤회에 입각한 업을 강조했다. 호진스님은 "존재하는 모든 것은 소멸할 수밖에 없으며 인간도 태어난 이상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며 '한 존재가 태어나고 죽기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은 절대자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그 자신이 지은 과보에 의해 이루어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호진스님은 건강관리를 잘한 사람은 좋은 건강을 유지하는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은 병든 육체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비유를 들며 "인간 존재가 무아적이라는 입장에 서 있는 불교에서는 생의 연속이란 모든 존재의 변화의 연속이지, 영혼과 같은 불변적인 존재가 이 생에서 저 생, 이 몸에서 저 몸으로 옮아가는 것이 아니다"고 정의한다.

차주환교수(단국대 동양학연구소장)는 "도교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강해 불로장생하는 것을 최고의 이상으로 삼았다"며 "질병·노쇠·사멸을 극복하고 불로장생하는 것이 도교의 사생관"이라고 말했다.

김홍경씨(한국철학사상연구회 연구원)는 "유교에서의 죽음의 시간은 하루 일을 끝내고 잠자리에 들 듯 늙고 병든 육신의 짐을 벗고 자리에 드는 휴식의 시간"이라고 정의한다.

조규만교수(가톨릭대 교의신학)는 "예수의 생애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죽음이란 새로운 생명으로 넘어가는 위한 관문이며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부활"이라며 소멸하는 죽음이 아닌 새생명 구원임을 강조했다. 〈욱〉

학술단신

20일 밀교학술회의

대한불교진각종이 창종 50주년을 기념하는 밀교학술회의 '한국밀교의 수용과 전개-법신사상의 한국적 전개'를 20일 위덕대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서윤길교수(동국대 불교학)가 '한국밀교의 특성과 법신사상' 종석스님이 '한국밀교의 수용과 전개' 등 6편의 논문이 발표된다.

또 홍윤식교수(동국대 역사교육학), 정태혁교수(동국대 명예교수) 등이 총평자로 나선다.

'불교어문논집' 2집 발간

한국불교문학사연구회(회장 이종찬)은 최근 〈불교어문논집〉 2집을 펴냈다.

'승장과 문학'이 특집으로 실린 이번 호에는 '조선시대의 승장에 대하여'(김영태) '승장의 전쟁시 전생안락도 그 반상(反常)의 미학'(김갑기) '사명당설화의 발생 환경과 수용양상'(김승호) '〈반야심경의 독송음 변천에 대한 음운론적 해석'(정우영) '실학과 불교의 교섭-추사 김정희를 중심으로'(구사회) '운곡 원천석의 불교시 연구'(임종욱) 등의 논문이 실려있다.

국제소식

"아시아 2천년대 문화 중심권"

美 헌팅턴 교수 신작 '문명의 충돌…'

민족간의 종교·문화적 갈등을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새뮤엘 헌팅턴교수(美 하바드대)의 최근 신작 〈문명의 충돌과 세계질서의 재편〉이 주목받고 있다.

'근대화=서구화'란 인식의 틀을 깬 미래학자로 널리 알려진 헌팅턴교수는 "이 세계에서 가장 널리 퍼져 있으면서도 중요하고 또 위험한 갈등은 각기 다른 문화에 속한 민족간의 갈등이다"며 탈냉전 이후 세계를 위협하는 새로운 갈등 요소로 민족·종교의 갈등을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또 세계를 중국-일본-힌두-이슬람-크리스트교-라틴아메리카-아프리카의 7개 문명권역으로 나눈 헌팅턴교수는 이슬람과 아시아가 인구와 경제력을 무기로 서구중심의 세계질서에서 새로운 강자로 떠오를 것을 예견하고 있다.

"강택민 주석 美 방문 부당하다"

'티벳을 위한…' 로디 기야리 회장

"우리는 강택민주석이 방문하는 어떤 곳에서도 시위를 할 것이다." 최근 미국을 방문한 강주석의 반대 시위를 조직적으로 전개해 세계 이목을 집중시킨 '티벳을 위한 캠페인'(Campaignig for Tibet)의 로디 기야리 회장이 〈뉴스위크〉(11월3일자)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로디씨는 "강주석이 티벳 독립을 지지하는 세계 여론을 가라 앉히기 위해 달라이 라마를 제외하고 클린턴만을 만나는 것은 부당하다"며 "중국 인구중 60%가 소수민족이기에 우리 단체는 티벳뿐 아니라 많은 소수민족을 위해 계속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티벳을 위한 캠페인'에는 리처드 기어 등 헐리우드 스타를 비롯해 대학생, 주부, 종교인 등 3만여명의 회원들이 티벳 독립을 위해 조직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영웅 박정희

진정한 한국인 김태형 지음

인간 박정희, 그도 낙조가 되어
역사의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다.
그러나 그의 의지와 민족혼은
이 나라 민족사에 영웅으로 살아남아
또다시 동해 바다에 그 찬란한
태양으로 떠오를 것이다.
인간 박정희, 그가 걸어온 한평생은
영욕의 부침으로 가득했다.
그가 가난의 때가 넘쳐 흐르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뜻한 바 군인의 길로
걸기까지는 전형적인
조선사람일 뿐이었다.

■신국판 / 값 6,500원

인환 615-1915

택시 안에서 바라본 37가지 이야기

스님! 어디까지 보셨습니까

박삼중 스님의 세상보기

택시 안은 인생의 축소판이다.
그 속에서 만난 택시 기사를 나는 부처라고 생각한다.
바로 그들을 통해 나는 또 다른 인생을 배운 것이다.

어느 택시 기사가 흑인 손님 두 명을 태우고 워커힐로 가는 중이었다.
그런데 도중에 반대편에서 오는 동료 기사를 만났다.
길에서 마주치자, 저쪽에서 오던 택시 기사가 아는 체하며 소리쳤다.
"야이, 어디로 가는 거야?"
그러자 이쪽의 택시 기사도 덩달아 반가워 한쪽 눈을 찡긋해 보이면서 큰소리로 이렇게 대답했다.
"워커힐로 연탄 두 장 싣고 가네!"
목적지에 다다랐다. 이 흑인 손님이 빙긋이 웃으며,
"연탄 두 장 값이 얼마요? 한 장에 1백5십 원이니……, 그러면 3백 원이면 되겠구만!"
하며 동전 세 개를 던진 뒤 문을 쾅 닫고 내리는 것이 아닌가.
—「나는, 노 스피크 잉글리쉬」 中에서

■신국판 / 값 6,500원



산미디어 615-1914, 682-1854

한 형 조

무문관 탐방

28

운문의 똥막대기 ㊦

운문의 똥막대기는 범신론의 제창이 아니다. 그리고 장자처럼 생태학전 전망을 표명한 것도 아니다. 다시 말하면 똥에도 신(神)이 있다거나, 똥도 밥처럼 귀한 존재라는 것을 설득하자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똥막대기라는 말에는 아무런 심오한 뜻이 없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 똥막대기이다. 똥막대기는 더럽고 지저분한, 다들 가까이하기 싫어하는 물건이다. "무엇이 부처입니까"라고 물었을 때, 운문은 "부처란 바로 쓰레기같은 존재"라고 질러버린 것이다. 역사상 어떤 종교도 창시자에 대해 이토록 적나라한 모욕을 던진 적은 없었다. 드디어 불교는 여기까지 왔다. 선은 지금 넘어서는 안될 선을 위태롭게 밟고 있는 것이다.

선은 다들 알고 있듯이 전래의 불교전통을 무시하고 심지어 적대시하면서 스스로를 정립해 나갔다. 그들은 불상을 경건하게 경배하지도 않고, 경전을 열심히 독송하지도 않으면서 오직 자신의 본질을 통찰하고 파지하는 일에 매달렸다. 고의적인 기행과 과격한 교육방식도 이같은 지향의 결과이다. 또 이론과 추론을 싫어하고 형이상학적 사색을 경시하는 풍조 역시 가타(gatha)의 시대 이래 불교가 파지해온 정신 가운데 하나이다. 선을 대표하는 큰 스님들의 삶과 행적 앞에서 저절로 무릎을 끊고 절을 올리게 된다. 겸허와 외경은 불교의 세계로 들어서는 첫걸음이다. 그러나 이곳에 머물러서는 진정한 구원은 없다. 불교의 궁극은 스스로 부처가 되는 것이지 부처를 타자로 경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창시자께서는 누워 열반을 맞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했다. "나를 경배하려 하지 말고, 법(法)을 등불로 삼아 생사의 고리에서 벗어나라."


그림 · 이준석

소승은 이 가르침을 충실하게 지켰다. 대승은 아라한(阿羅漢)의 이상이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라고 비판하면서 대중을 함께 태울 수 있는 너른 수레(大乘)를 만들겠노라고 공언했다. 거기에는 일반적 믿음과는 달리 대중에 대한 타협과 아부의 혐의가 있다. 아쇼카왕이 받쳐주던 국가적 지원이 끊기면서 승단은 대중의 재정적 후원과 유대를 절실히 필요로 했다. 승가는 그 반대급부로 대중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내세를 이끌어줄 불보살들의 구원의 약속을 주었다. 대승에서 중관과 유식, 화엄과 천태의 심오한 철학만을 보는 사람에게는 내 말이 지나치다고 여겨질지 모르겠다.

가령 대승경전에서 이런 의혹을 가져본 사람은 없는가. 중관의 철학은 세계에 대한 어떤 규정도 희망도 거부하는 절대부정의 정신으로 점철되어 있다. 지상과 천상의 모든 권위와 가치가 이 다이아몬드의 칼 앞에서 잘려나간다. 그런데 그 한켠에는 이 칼에 베어지기는 커녕 이 칼을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불사(不死)의 신적 존재들이 있다. 화장(華藏)세계의 불보살들은 중관(中觀)의 지고한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복을 줄 것이되, 만일 어설프게 비난하거나 질시하는 자가 있다면 무간지옥의 형벌이 있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 이것은 기묘한 병치이다. 대승운동은 얼핏 모순된 이 두 날개, 즉 철학적 깊이와 종교적 열망이 훌륭하게 결합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했다. 실제(實際)는 입체라서 가끔 논리적 모순을 밟고 지나간다는 것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동거는 그러나 불안정한 것이었다. 정치적 변란과 사회적 혼란이 계속되면서 대중들은 점점 더 불보살들에 의한 가피와 외호를 바라게 되었다. 복잡한 형이상학과 심리학을 통한 자력의 교설은 저만큼 밀려나기 시작했다. 타력에 대한 노골적 의존은 이윽고 동아시아에 정토종이라는 강력한 종파를 탄생시켰다. 그 무렵 진리의 등불은 패배주의와 말세의식의 거친 바람 앞에서 위태롭게 깜박이고 있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法' 등불삼아 생사 벗어나라

타력신앙 등장 '진리의 등불' 풍전등화

캐치 프레이즈인 돈오(頓悟)마저 나는 불교의 정통적 사유의 반영이라고 생각한다. 깨달음은 에고가 사라진 자리에 절대자가 현현하는 영원의 사건이라는 교설은 보리수 아래 우유죽 한 그릇으로 얼린 고타마 붓다의 깨달음의 핵심이고, 그것은 소승과 대승을 거쳐 밀교에까지 이어진 불교정신의 정수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자면 돈오는 수피즘이나 사막의 수도사들, 그리고 장자나 심지어 공자에게서도 확인할 수 있는 일반적 신비주의의 진실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들을 가르는 것은 그곳에 이르는 방법적 차이이고, 그 통찰을 구현하는 문화적 실존적 양식의 차이이다.

나는 선의 특징이 래디칼리즘에 있다고 생각한다. 불교의 가르침, 돈오의 진실을 일상에서 경험적으로 구현함에 있어서의 그 과격함과 과단성, 극단성과 철저성에 있다. 운문이 창시자에게 던진 모독과 타매(唾罵)의 패륜은 그같은 래디칼리즘의 정점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오기까지 불교는 오랜 준비와 과정을 거쳤다. 그 대강을 잠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산사에 들어설 때 모종의 위압감과 경건한 분위기에 압도된다. 벽화에 그려진 천상의 불보살들, 그리고 치열한 정신의 극에서 우주를 삼켜버리고 사자후를 토하는 조사님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를 우리는 종종 듣는다. 경기도 의정부에서 방앗간을 하면서 부자로 살던 어떤 거사님의 일화도 그 중 하나다.

수행이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불심이 매우 깊었던 그는 절에 시주도 많이하고 가난한 이들에게 복도 많이 지었다. 건강하던 거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는데 저승사자가 나타나서 그의 혼을 염라대왕 앞에 데려다 놓더라는 것이다. 생전의 행적을 업경대라는 거울을 통해 즈사하던 염라대왕은 거사님에

구품(九品)

게 네 손을 한번 보고 싶으니 손바닥을 펴보라는 것이었다. 거사가 손을 펴자 염라대왕은 "네가 생전에 부처님을 믿고 좋은 일을 많이 했다만 손에 너 자신을 위해서 굴린 염주자국이 비치지 않는구나. 내 다시 너의 공덕으로 보아 인간세상에 보내 줄터이니 너를 위해 염주를 굴리고 오너라"하였다. 깨어보니 가족들은 거사님이 죽은줄 알고 슬퍼하면서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터였는데 다시 살아난 모습을 보고 놀라면서 신기해 했다. 그 뒤로 거사님은 아예 가정일과 세상일은 모두 그만두고 방안에 앉아 늘 염주를 굴리면서 나무아미타불을 염하였다. 그러길 4년이 지나서 하루는 가족들을 불러 앉혀놓고 자신은 이제 이승의 수명이 다하여 몸을 버리게 되는데 죽자마자 극락정토에 갈 것이니 슬퍼하지 말고 살아있는 동안에 열심히 마음을 닦으라고 유언 하였다. 매우 평온하고 깨끗한 채로 거사님이 운명하였는데 신기하게도 방안에 향기가 가득했다고 한다.

일생 동안의 삶과 죽음 그리고 죽음안에서 만났다는 지옥사자나 염라대왕 나아가서 다시 살아나가지고 죽은 다음 가게된 극락정토는 모두 거사 자신의 마음안에서 일어난 일들이다. 이승의 일과 저승의 일이 마치 별개의 것인양 보고 자신 밖에

法數로 배우는 불교

〈38〉


◇김영만 作 '성불로 가는 길'

번뇌·고통 사라진 아미타 정토
염불·공덕 따라 9등급 나뉘어

어떤 저승사자나 염라대왕과 같은 심판자가 있다고 보지만 그것은 모두 자신의 의식 가운데 있는 선·악의 작용인 것이다.

극락정토는 착한 일 많이하고 부처님에 대한 신심이 깊은 사람이 아미타불을 많이 염했을때 태어나는 곳이다. 극락정토는 한량없는 세월전에 법장이라는 수행자가 모든 중생의 생사고뇌를 없애주기 위해서 마흔여덟가지의 숭고한 원을 발하고 아미타(阿彌陀)라는 부처가 되어 세운 나라다. 인간세계의 서쪽 십만억세계를 지나 존재한다는 이곳엔 더러움과 고통과 악함은 조금도 없고 오로지 깨끗하고 즐겁고 착한 곳으로 갖가지 보배와 상서로움으로 가득차 있다. 엄과 번뇌로써 만들어진 욕계·색계·무색계의 중생계와는 전혀 다른 극락정토는 오로지 그곳에 태어나고자 하는 원과 함께 아미타불을 정성껏 염하는 것으로써 가능하다.

아미타불을 친견하고 극락정토에 나고자하는 중생의 원과 중생을 극락정토에 나게 하려는 아미타불의 원이 일치가 되어 왕생이 보장된다. 극락정토는 원을 발하고 염불을 한 중생의 차원에 따라 상생상품·상생중품·상생하품·중생상품·중생중품·중생하품·하생상품·하생중품·하생하품의 구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계율을 얼마만큼 잘지키고 선업을 쌓았는가 그리고 얼마만큼 많이 아미타불을 염했는가에 따라 상품상생이냐 하품하생이냐가 결정되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이러한 극락세계가 꼭 죽은 후에 태어나는 곳일 것 같지만 이도 그렇지만은 않다. 〈관무량수경〉에서는 누구라도 신심을 발하여 대승경전을 찬탄하고 염불하며 극락정토를 관하는 수행을 닦으면 현실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가 있다고 한다.

혜능스님의 자심미타(자기 마음에서 미타가 나타남)와 원효대사의 유심정토(마음에서 정토가 열림)는 꼭 아미타불과 극락정토가 죽은 후의 저곳이 아닌 지금 자신의 마음속에서 가능한 것임을 일러준다. 끝없는 빛(無量光)과 끝없는 수명(無量壽)을 지녔다는 아미타불, 그리고 일체 번뇌와 고통이 사라져 그 기쁨이 극에 달한다는 극락정토 그것은 과연 현재의 마음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살펴 보아야 될 과제다.

이 제 열 〈유마선원장〉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⑯

불교와 수학

31

진리

김 용 운


그림 · 최주현

수학적 진리 절대아닌 가설 불과
불교 "자기 서있는 곳 모두 진리"

약 2천3백년전 유클레이데스는 그 이전에 단편적으로 알려져 있었던 기하학적 지식을 집대성해서 기하학의 체계를 수립했다. 그는 몇 개의 절대적 진리로 여겨지는 공리로부터 출발해서 빈틈없는 논리 체계를 세웠다. 그 논리 체계가 어떻게나 완벽했던지 그후 2천년간 절대 진리로써 서구의 지식 세계에 압도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중 하나가 평행선에 관한 공리다.

(가) 일정 직선 밖의 한 점을 지나 그 직선의 꼭지점의 평행선이 존재한다(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꼭 180°이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 그 진리성에 의심을 제기하는 사람이 생겼다. 이것은 진리가 아니라 가설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다. 그리하여 그 내용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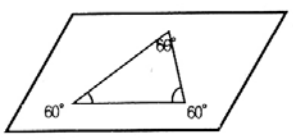
(나) 일정 직선 밖의 한 점을 지나 그 직선에 두 개 이상의 평행선을 그을 수 있다(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보다 작다) 로 바꾸어 보았다. 두 개 이상의 평행선이 존재한다는 것은 곧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다. 또 한 사람은

(다) 일정 직선 밖의 한 점을 지나 그 직선에 평행한 직선은 하나도 없다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보다 크다)로 바꾸어 생각했다. 그랬더니 이들 (가) (나) (다) 3개의 평행선에 관한 명제는 서로 반대인데도 불구하고 유클레이데스가 수립한 것과는 다름없이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는 기하학의 체계로 알려진 것이다. 이 사실은 그간 진리란 '꼭 하나만 존재한다'고 여겨져 온 서구의 '진리관'에 엄청난 충격이었다. 실제로 공간적으로도 이런 명제가 성립되는 것이 존재할 수 있음이 알려졌다. 유클레이데스 기하학만을 절대 진리로 여겼던 시절에는 미처 생각지 못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음을 안 것이다. 그후 '수학적 진리는 절대적이 아니라 한낱 가설에 불과하다'(포앙카레)는 것을 믿게 되었다.

위의 그림은 각각 공간이 (가) (나) (다)의 경우를 보이고 있다. (가)가 상식적으로 유한의 공간이고 지구 지원에 공간을 확장할 때는 (나)의 공간이며, (다)는 우주 공간임이 아인슈타인에 의해 증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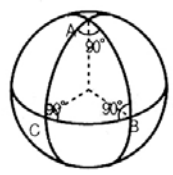
이렇게 되고 보니 (가) (나) (다) 모두가 상대적으로 진리다. 다시 말해서 어떤 자리(공리)에서 출발해도 나름대로의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을 〈임제록〉에서는 '어디에서도(隨處) 그것을 공리(主)로 삼으면, 있는 자리의 모든 진리를 얻을 수 있다(隨處作主立處皆眞)' 고 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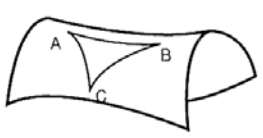


60°+60°+60°=180°

〈가〉



〈나〉



A+B+C<180°

〈다〉

다시말해 현대수학의 개념도 어떤 명제라도 진리가 될 수 있다는 것으로 변화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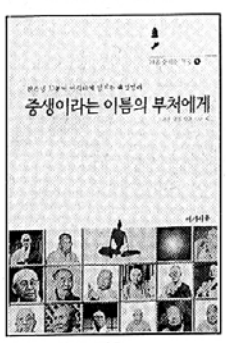
〈한양대 수학과 명예교수〉

수행자를 위한 여시아문의 책

여시아문 은 '들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02)737-0695, 팩스 : (02)737-0696

마음 맑히는 책들 ①



중생이라는 이름의 부처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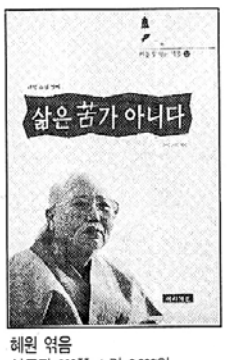
조계종 종정 월하 스님을 비롯한
33분 / 큰스님 / 법어 / 모음

오직 수행만을 '일 없음의 일'로 삼는 우리들의 큰스님.
그런 스승들이 계시기에 아직 우리 사회는
빛을 잃지 않고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45년 간 설하시고도
'나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하신
그 정신을 읽지 않고는
큰스님들의 '말'에 다가갈 수 없다.
'말 없음의 말'인 까닭이다.

현대불교신문 엮음
신국판 342쪽 / 값 7,000원

한국 불교 선지식
33인의 육성 법어집

마음 맑히는 책들 ②



삶은 苦가 아니다

대행 / 스님 / 법어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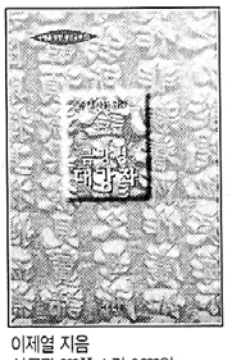
대행 스님의 끝없는 구도 열정
그리고 …
중생 사랑이 빚어낸 깨달음의 노래

고(苦)에서 벗어나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창조적인 삶, 부처님 뜻 가운데서의 편안한 삶,
대자유인의 길, 여기에 있습니다.

혜원 엮음
신국판 288쪽 / 값 6,000원

삶의 혁명적 전환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책

수행자를 위한 경전 공부①



금강경 대강좌

적연 이제열 법사가 풀이한
금강경 대강좌

선(禪)적인 해석이나 뜻풀이에 그쳐
모든 불자들이
온전히 제것으로 만들지 못했던 금강경.
그 금강경이 이제 아주 친숙한 모습으로,
금강 반야의 세계로 이끄는 길잡이가 되어
우리 앞에 다가선다.

이제열 지음
신국판 360쪽 / 값 8,000원

독특한 해석으로
명쾌한 수행방법론을 제시!

시방세계

불교성지순례 전문
혜초여행사
해외여행 · 항공권 · 여권비자 수속
안국동 로타리(조계사앞) 종로구 수송동 5번지 동일 B/D 3층
전화 : 代 (02)733-3900

'천년 울릴 소리' 손끝으로 감지

산문밖의 숨은 인물

북만들기 37년 임선빈 씨



◇조르고 풀고를 거듭하며 한줄 한줄 온 정성을 다해 북만들기에 몰입하고 있는 임선빈씨.

"자만하지 말고 욕심을 버려라" 조르고 풀고 단청도 혼자힘으로 북 두드리다보니 청력도 잃었다 하지만 가슴울리는 소리에 '뿌듯' "이제 겨우 이력 붙었어요" 겸손 76가지 전통북 원형복원 '발원'

"북은 가죽만 씌운다고 해서 소리가 나는 건 아닙니다. 자신의 혼을 담아 만들어야만 비로소 살아있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88년 서울올림픽 개막식때 잠실벌에 울려퍼진 웅장한 북소리를 기억한다. 그러나 정작 그 소리를 만들어 낸 장인이 누군지 아는 사람은 드물다. 그 주인공은 37년간 오직 북만들기 외길을 걸어온 지체·청각 장애자 임선빈씨(47세).

임씨는 작년 1월부터 안양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화합을 기원하는 '안양시민의 북'을 제작하고 있다. 높이 220㎝, 울림관 240㎝, 둘레 820㎝, 무게(좌대포함) 650㎏의 국내 최대 규모의 북이다.

그는 북 제작에 앞서 삭발을 했다. 국내에는 울림판에 불일만한 큰 소가죽이 없었다. 수소문 끝에 6백㎏나 되는 미국산 소 1마리를 샀다. 가죽을 벗겨 재보니 겨우 2마리만이 235㎝를 넘었다. 울림관에 가죽을 씌우는 전날 밤, 목욕재계하고 자수자성(自修自誠)의 참선을 하며 꼬박 날을 샜다. 이른 새벽 관세음보살을 부르며 작업에 돌입했지만 양쪽의 사이즈가 맞지 않았다. 아뿔싸. 석가모니불을 부르며 가죽을 자르고 또 자르기를 수차례. 부처님이 감응했는지 크기가 맞았다. 조르고 풀고를 수없이 해가면서 소리를 조율했지만 원했던 웅장한 소리와는 거리가 멀었다.

"원하는 소리가 나지 않을 땐 왜 이런 일을 했나 하는 후회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제껏 모든 어려움을 한쪽 발로 지탱해 온 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자 오기가 나더군요."

새벽부터 밤늦도록 하루 12시간 이상 북 제작에 정성을 쏟았다. 북 만들기가 잘 돼 신바람이 나면 관세음보살을 불렀다. 일이 잘 안풀릴 때는 잠시 일손을 멈추고 좌선을 통해 마음가짐을 새로이 했다. 그리고는 '나무아미타불'을 되뇌였다. 그럴때마다 새로운 기분이 들면서 삶의 활기가 느껴졌다. 비록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없는 청각 장애인이지만 손 끝에서 느껴지는 소리의 떨림으로도 천년의 소리를 감지할 수 있었다. 1년여 노력의 결실이었다.

"울림관이 살아 소리치더군요. 천년은 능히 이어갈 수 있는 소리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단청을 시작한 뒤에는 거의 뜬눈으로 밤을 지샜다. 작업장이 임시천막인이라 비가 오면 행여 단청이 지워질까 걱정이 앞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마리의 용이 사이좋게 여의주를 문채 오색찬란한 구름 위를 노니는 모습에 모든 시름도 다 사라졌다. 안양시민의 화합과 단결을 상징하듯 두 마리의 용이 서로 희롱하며 살아 승천고 있었던 것이다.

이달 말이면 마침내 안양시민의 북 제작이 끝난다. 그가 만든 대북이 안양시민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이다.

임씨는 스승 황용욱선생의 가르침을 잊지 못한다.

울고 웃으며 북에 미쳐 살았던 37년. 가슴 한 켠에 솟구쳐 오르는 뭉클한 감동이 느껴졌다. 11세 때 가정형편이 어려워 막상 집을 나섰지만 소아마비 장애인이라는 주위의 따가운 눈총만이 있었다. 그러다가 만난 이가 스승 황용욱씨. 북 만드는 기공을 전수해 줬을 뿐 아니라 가슴에 와닿는 참된 북소리를 가르쳐 줬다. 북 만드는 새로운 삶의 길을 찾은 그였지만 그다지 순탄한 길만은 아니었다.



"막상 스승님이 돌아가시니까 앞이 막막하더군요. 그래 머리를 깎고 팔공산에 있는 한 절을 찾았습니다. 단청이 눈에 들어오는데 더 이상 발을 옮길 수가 없어 그냥 풀아 내려왔죠."

배고픔과 장애인이라는 괄시를 못이겨 스님이 될까 하는 생각도 해 본 그였지만 북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는 없었다. 스승의 친구인 관소리북 전문가 박일호씨와 인간문화재 박귀석씨를 찾아 더욱 북만들기에 전념했다.

한때 만물상에서 장삿속으로 북을 만들어 팔면서도 "북은 아무렇게나 만드는 것이 아냐.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온 정성을 다해 만들어야 돼"하는 스승의 유언을 잊지 못해 다시금 힘든 길을 택해야 했다. "북을 만들에 있어 자만하지 말고, 욕심을 버려라. 또 항상 마음을 깨끗이 하고 삭발을 해라." 임씨는 스승의 말씀을 평생 가슴에 품으며 살고 있다.

임씨는 태어날때부터 청각장애자는 아니었다. 매일 좁은 공간에서 북을 두드리며 소리를 잡다보니 청력이 약해진 것이다. 보청기를 껴야만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지 6년이 됐지만 꼭 북소리를 들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손바닥으로 울림관을 두드려 전해져 오는 떨림을 손끝으로 느낀 뒤 소리의 퍼짐을 계산해 울림관을 조이고 푸는 탐법으로도 훌륭한 북을 만들 수 있다. 대개 북을 만드는 사람들이 재료 구하기 따로, 통만들기 따로, 조이고 푸는 일 따로, 단청 따로 하는 것과 달리 임씨는 하나에서 열까지 모두 혼자 해내고 있다.

임씨의 호는 법고(法鼓). 뭇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 울리는 참된 북을 만들고자 하는 바람에서 스스로 지은 것이다. 대북을 만든 후에는 꼭 자신의 호에 관한 그림을 좌대 밑에 그려넣는다. 사람의 가슴을 울릴 수 있는 진한 여운의 참북을 만들어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다.

"37년을 오로지 북을 만들며 살아왔지만 이제 겨우 눈을 뜬 상태"라며 겸손해하는 임선빈씨에게는 작은 소망이 있다. 작은 공방을 만드는 것. 그 속에서 자신의 처지와 같은 장애인들의 서러움을 후련하게 씻어줄 북을 만드는 꿈을 꾸고 있다.

"옛 선조들의 한과 기쁨을 담았던 옛 북을 재현할 사람이 거의 없다"며 아쉬워하는 그에게 관소리북으로의 입상은 가능성을 제시한 일이었다. 과거 76가지 북의 원형을 복원하는 그날까지 계속 이 길을 걷겠다는 임선빈씨.

비록 지체·청각장애자인 그였지만 마지막 악수를 건네는 그의 모습에서 시방세계를 깨우치는 법고의 울림을 들을 수 있었다.

글=윤기석 사진=고영배 기자

취재수첩 88올림픽 · 도선사 · 청와대북 등 제작

임선빈씨는 88올림픽북을 비롯 청와대 춘추관북, 대전엑스포북, 임진각 망향의 동산 통일기원북 등 국내 5개 대북 제작에 모두 참여했다. 그리고 지금 중요무형문화재 제77호인 이봉주(남정유기 설립자)씨의 재정적인 도움을 받아 안양시에 기증할 국내 최대의 대북을 만들고 있다.

임씨가 대북과 인연을 맺기 시작한 것은 88올림픽때. 잠실주경기장을 도는 용고(龍鼓)행렬 가운데 울려퍼지는 북소리를 들으며 느꼈던 그 기쁨이 현재의 대북장인 임씨를 있게 했다. 그러나 임씨는 이에 앞서 86년에도 대북을 제작한 경험이 있다. "88올림픽북은 한번 실패를 거친 후에 만들어낸 북입니다. 지금 서울 도선사에 있는 대북이 처음 제작한 것인데, 소리가 좋지 않아 다시 만들었죠"라고 일화를 밝힌 그는 "그래도 우리나라 큰 북은 모두 제 손을 거쳐갔습니다"라며 활짝 웃는다.

올림픽북은 세계인들이 들을 수 있도록 울일기원북은 휴전선너머까지 들릴 수 있도록 웅장해야 하며, 청와대북은 민심을 잘 살피달라는 따가운 목소리를 담아내야 한다. 법고는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뭉클한 감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맑고 깨끗한 소리를 담아내야 한다. 임씨가 만든 북에서 나는 소리는 희일적인 소리가 아니라 그 자리에 걸맞은 소리를 낸다.

임선빈씨는 2002년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를 기념하는 대북을 제작, 좀더 크고 우렁찬 북소리로 그날의 기쁨을 맛보고 싶어한다.



◇임선빈씨가 만든 북. 임씨는 단청까지의 전과정을 손수 제작한다.

북이란 법고 · 용고등 종류 다양 부처님 재세때도 북사용

북은 우리 서민들의 삶과 친숙한 악기이다. 잘 건조된 나무로 몸통을 파고, 쳐서 소리를 내는 양면은 소가죽을 사용한다. 이때 북의 가죽은 암소와 숫소의 가죽을 각기 양면에 부착해야 좋은 소리를 낸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북이 쓰인 것은 고구려 안악고분 벽화 주악도에 입고(立鼓)가, 행렬도에 담고(擔鼓)가 보이는 것으로 보아 삼국시대에 이미 사용됐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전통음악 연주에 쓰이는 북은 20여종이 되나 그 중 삼현육각(三絃六角) 연주에 쓰이는 좌고(坐鼓), 행진음악에 쓰이는 용고(龍鼓), 북춤에 쓰이는 교방고(敎坊鼓), 불교의식에 쓰이는 법고(法鼓), 사당패나 소리꾼이 소리하며 치는 소고(小鼓), 관소리장단에 쓰는 소리북(고장북), 농악에 쓰이는 매구북(농악북) 등이 주로 쓰인다.

불경에도 북에 대한 내용이 자주 등장한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이미 북을 사용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주로 그 용도는 대중에게 크고 작은 일을 알리거나 불교의식인 범패(梵唄)의 장단에 맞춰 치게 되며, 법종각에 사물(四物)로 있는 북은 아침 저녁 예불 때 사용하게 된다. 이때 북을 치는 이유는 축생을 제도하기 위함이다. 또 정법(正法)의 북을 쳐서 시방세계(十方世界)를 깨우친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담고 있다. 이 경우 북의 몸체는 보통 용을 그려넣기도 하고 두드리는 부분에는 만자(卍字)를 태극모양으로 둥글게 그려 장엄하기도 한다.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 · 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무욕과 달관의 세계를 담은
노철학자 고형곤 수상집
하늘과 땅과 인간
「선의 세계」의 저자 고형곤옹이 털어놓는 살아온 이야기
92년의 결코 짧지 않은 생을 살아오면서 겪은 인생사의 희노애락들. 자신을 둘러싼 가족과 주변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민족의 애환과 천망 등이 맛깔스럽게 그려지고 있다.

신국판/351쪽/7,000원
서양철학으로 시작했지만 불교의 선사상에 매료되면서 평생 선(禪)적으로 살고자 했던 노철학자
그의 삶은 소박하다. 물욕이 없으므로 청빈하고, 지식에조차 탐욕스럽지 않아 잡다하게 박학하지 않고 단순하며 청정하다. 소박하기에 낭만이 있고, 따라서 그의 시선은 냉철하게 이지적이기보다 다정다감하고 훈훈하다.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 종로구 청진동 6번지
TEL : 720-9372,3 FAX : 723-0646

다시 푸는 경서

법구경

애신품(愛身品) ②

惡行危身 악행위신
愚以爲易 우이위이
善最安身 선최안신
愚以爲難 우이위난

악행은 제 몸 위태롭게 하지만
어리석은 이 쉽게 저지르고
선행은 제 몸을 편안케 하지만
어리석은 이 어렵게 여긴다

如眞人敎여진인교
以道活身이도활신
愚者疾之우자질지
見而爲惡견이위악

저 참사람의 가르침은
도로써 몸을 살리지만
어리석은 이는 이를 미워해
그를 보고 악이라 한다

行惡得惡 행악득악
如種苦種 여종고종
惡自受罪 악자수죄
善自受福 선자수복
亦各須熟 역각수숙
彼不自代 피불자대

그것이 스스로 걱정되거든
법을 받들어 즐거이 들고
마땅히 부처님 가르침을 품어라

凡用必豫慮 범용필예려
勿以損所務 물이손소무
如是意日修 여시의일수
事務不失時 사무부실시

제 할 일 반드시 미리 생각해
힘쓸바를 놓치지 않도록 하라
이같이 마음먹고 날로 닦으면
힘써야 할 일 때를 잃지 않는다

夫治事之士 부치사지사
能至終成利 능지종성리
眞見身應行 지견신응행
如是得所欲 여시득소욕

대개 일을 잘 다스리는 이는
마지막에 가서 이익을 얻는다
진실한 소견을 몸으로 행하나니
이같이 해서 바라던것 얻게된다

세속품(世俗品) ①

如車行道 여거행도
捨平大途 사평대도
從邪徑敗 종사경패
生折軸憂 생절축우

마치 수레가 길을 갈때에
평탄하고 큰 길을 버리고서
나쁜 길을 따라간다면
굴대를 부러뜨리는 걱정생긴다

離法如是 이법여시
從非法增 종비법증
愚守至死우수지사
亦有折患 역유절환

법을 여읨도 그와같아서
법아닌 것 따르는 일 늘어나면
어리석음 그대로 죽음에 이르리니
거기에도 부러지는 우환이 있다

順行正道 순행정도
勿隨邪業 물수사업
行住泯安 행주와안
世世無患 세세무환

바른 도를 제대로 따라 행하고
삿된 업을 따르지 말라
행주좌와에서 편안하고
세세생생에 근심 없으리라

"선이나 악은 반드시 익는것 남이 그것을 대신할 수 없네"

악을 행하면 악을 받는 것
마치 괴로움의 종자를 심은것 같으니
악은 스스로 죄를 받고
선은 절로 복을 받는다
선이나 악은 반드시 익는것
남이 그것을 대신할 수 없네

習善得善 습선득선
亦如種甜 역여종첨
自利利人 자리리인
益而不費 익이불비
欲知利身 욕지리신
戒聞爲最 계문위최

선을 익히면 선업을 받는것
그것은 달콤한 종자를 심은것 같으니
자기를 돕고 남을 이롭게 하며
더욱더 늘어나 없어지지 않는다
제 몸 이로운 것 알고자 하거든
계율지니고 많이 듣는게 으뜸이네

如有自憂 여유자우
欲生天上 욕생천상
敬樂聞法 경락문법
當念佛敎 당념불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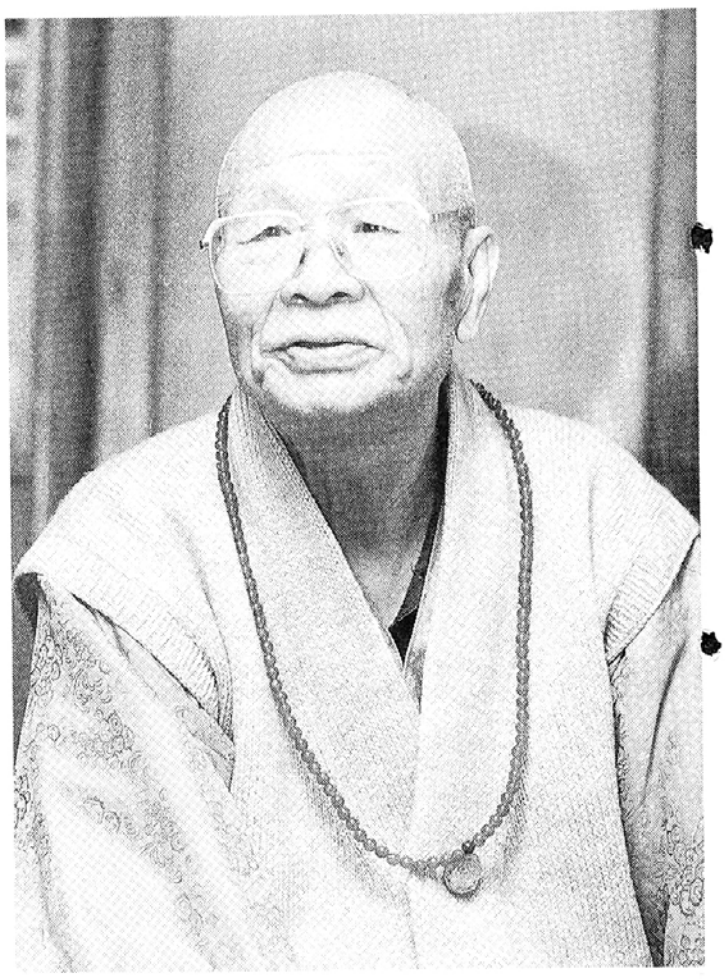
만일 천상에 태어나고 싶어

龍眼

큰스님 수행한담

"인연을 귀히 여기면

야옹스님 〈前 총화종 종정〉



외삼촌을 만나러 가는 길이 출가의 길이 되었습니다. 1917년 선산 도리사 인근 마을에서 태어나 유년의 때도 다 씻지 못한 일곱살에 문경 사불산 대승사로 들어갔습니다. 대승사를 오르는 그 산길은 외삼촌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으되 종내에는 한량없는 부처님 법의 바다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나이에야 무엇을 알았겠습니까. 그저 산길을 걸어 올랐고 다리가 아픈 가운데 눈이 휘둥그레해지게 웅장한 절집에 들어갔으며 먹는 밥맛이 어떤 것인지를 따져볼 겨를도 못 갖도록 어리둥절하기만 했던 기억이 아련할 뿐입니다.

외삼촌은 대승사의 스님이셨고 양연옹(梁然翁)이라면 꽤 알려진 이름이었습니다. 강사도 지내시고 주지도 지내셨으며 설법도 유유창창 했고 범패작법에도 소질을 보이심으로 이름이 널리 퍼졌던 것입니다. 그 외삼촌, 연옹스님을 은사로 모시고 행자생활을 했습니다. 불연(佛緣)과 혈연(血緣)을 함께 묻은 어린 가슴이라지만 절집생활 보다야 속가에 대한 그리움이 훨씬 간절하지 않았으랴.

일곱의 나이에서 스물셋까지 대승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그때는 그게 전부인줄로만 알았습니다. 왜정시대였고 대승사만한 도량이 없었습니다. 강원과 선원이 전국 제일을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청소하고 물길고 빨래하며 연옹스님에게 〈초발심자경문〉을 배우고 천수경과 송주(誦呪) 예불절차 등을 배웠고 그런 세월 속에서 나도 절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지금의 대승사는 당시의 삼분의 일 규모에 불과합니다. 강원에는 전국에서 모여든 3백여명의 학승이 있었고 쌍련선원에는 1백여명의 선객이 공안을 궤고 있었습니다. '천강사불(天降四佛) 지용쌍련(地湧雙蓮)'이라. 하늘에서 사불이 내려오고 쌍련이 땅에서 솟아 올랐다는 전설이 아니더라도 대승사의 사격(寺格)은 대단했었습니다. 나는 강원에서 대교까지를 봄으로 이력을 마쳤는데 강원은 학인이 많고 강사 강백도 많다보니 늘 규율이 엄했고 공부가 매서웠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스님들 시봉도 들어야 했으니 공부는 밤잠을 줄여서 하는 수밖에 없었지요.

다음날 공부할 것이 정해지면 하루 전에 각자가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다음날이면 산통(算桶)을 흔들어 뽑힌 사람이 공부한 것을 발표했습니다. 강원의 전통교습인 논강법이었습니다. 산통으로 차례를 정해 먼저 뽑힌 사람이 중강(中講)을 맡아 경의 내용을 상세히 새겨야 하고 뒤에 뽑힌 사람은 발기(發起)를 맡아 글의 앞뒤를 두루 꿰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논강을 하다가 어려운 대목을 만나면 강주스님(당시는 설하(雪河)스님이 강주였다)에게 문강(問講)을 가곤 했습니다. 논강에서 공부한 정도가 쉽게 들통이 나는 것이고 누가 뽑힐지 알 길이 없으니 공부를 안할 도리가 없었지요. 논강에서 자꾸 지적을 받아 게으름뱅이로 몰리면 쫓겨나는 신세를 면할 수 없는 것이 무서움이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 무서운 것은 월종강(月終講)이었습니다. 다달이 공부한 것을 점검하는 것인데 점검이란 다름아닌 경전을 줄줄 외우고 오차없이 뜻을 새기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서도 말문이 막혀 지적을 받으면 혼찌검이 났고, 거듭거듭 막히면 쫓겨나는 꼴을 보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악력
- 1917년 경북 선산출생
- 1923년 문경 대승사 양연옹(梁然翁)스님 은사로 출가
- 대승사 강원서 대교과 수료
- 예천 용문사 영남제일강원 강사
- 42년 일본 임제대, 용곡대 유학.
- 창원 국화중고교 교감
- 총화종 제8, 11대 종정
- 서울 승룡사 주석
- 저서 〈一如의 境地〉〈一如眞隨〉〈金剛經五家解譯講〉등

"깨달음은 자기 마음안에 있지 법당안 부처님 무릎에 있는 것 아니다 불성 드러내면 부처요 묻어두면 중생"

강원시절을 생각하면 잊지 못할 도반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안변 석왕사에서 내려 왔다는 문풍지(文豊地)라는 스님이었습니다. 이름부터 재미난 스님은 내가 제법 눈이 밝다는 소문을 듣고 공부를 겨루고자 왔다고 했는데,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고 총기가 대단했지요. 둘이 공부를 다투기도 했지만 더러 의기투합이 되어 서로의 가슴을 내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공부는 매서웠고 규율은 엄했고 밤잠은 늘 부족했지만 그러나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돌이켜 생각건대 정신력이었으리라. 젊은 혈기에 푸른 정신이 뭉쳐져 밤잠을 설치는 공부가 즐거움이기도 했던 겝니다.

그러나 사실, 공부만이 다는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 잡사(雜事)가 많은 것은 세속의 일만이 아니어서 강원 규율이 엄한만큼 그 눈길을 피해 즐기는 파격의 즐거움도 적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에 문풍지스님이 슬며시 와서는"초막에 가지 않으려나?"

나는 그가 무엇을 말하는지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산 이랫 마을에 초가집 술도가가 있었고 더러 어른스님들 눈을 속여 그리로 내려가는 적이 있었습니다. 문풍지스님과 의기투합된 나는 10리길의 밤길을 단숨에 달려 내려가 막걸리의 텁텁한 맛에 내 몸을 맡겼었습니다. 그때 분명 나는 그 막걸리는 파계가 아니라고 믿었었으니 지금도 파계다 지계다를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막걸리 한 동이로 밤을 새우고 도량석 직전에 절로 돌아온 날의 그 은밀한 재미가 더 큰 파계 내지는 고향집에 대한 그리움 따위의 잡념을 묻어준 것이 아니었을까 하고 쑥스러운 회상을 해 보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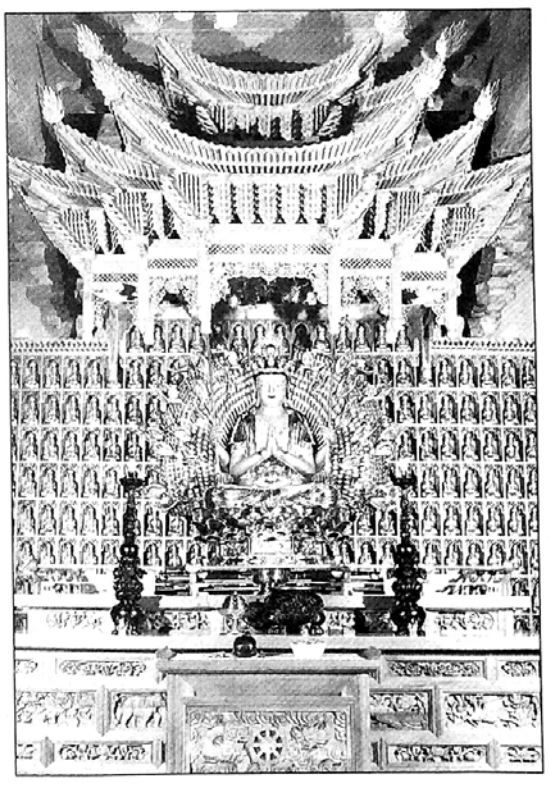
시간은 산빛을 따라 흘러가 스무살에 백용성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받고 3년 후에 대교를 다 마치고는 전강을 받았습니다. 전강은 여러 강백들에게 받았으므로 지금에 와서 강맥을 추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승사를 나와 예천 용문사 영남제일강원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스물세살부터 삼년간 강백으로 후배들의 경전공부를 살펴 주었습니다. 그 당시의 용문사 주지는 사형(師兄)되는 분으로 김대응(金大應)스님 이셨습니다.

서울로 가서 대학을 다닐 생각도 있었



불사의 현장에서 함께 일하겠습니다





● 부처님 조성, 천불조성, 목탱화, 개금불사, 천불감실
● 내부장엄불사(수미단, 신중단, 영단, 닫집…) 등등
● 불교 목공예품 ~ 법상, 경탁, 경상, 불전함, 목어, 호신인등, 연설대, 등등 목공예품 일체
「본 조각원의 소불은 금속 합금이 아닌 99.9% 청동으로 조성합니다」

불사의 전당 불교조각원

▷ 서울사무실 : 서울 종로구 견지동 81번지 2층 TEL. (02)738-8447
▷ 대전사무실 :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 1동 807번지 TEL. (042)483-8466
▷ 공방연구실 :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225-1 TEL. (0416)857-5825

대표 이진형 합장

큰스님 수행한담

성불의 뿌리 심는것"

"우리는 어제에서 와서 내일로 가고있다 윤회의 바퀴에서 만나는 모든 인연을 공덕으로 승화시켜 여래를 체득하자"

으나 대응스님이 일본유학을 위해 1백50원을 마련해 주어서 유학길에 올라 경도의 임제대학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적지 않은 1백50원을 아껴 썼지만 1년이 지나니 나는 알거지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돌아올 수도, 어디에 손 벌릴 곳도 없었지요. 누구나 어려운 시기였으니 승복을 입은 것이 그 시절의 가난을 막아줄 수는 없었습니다. 몸을 움직여야 돈이 생겼다. 일을 해야 했기에 조선소에도 나가 보았고 제철소에도 가보았습니다. 철도노동도 해 보았고 타이어 재생공장에서도 일을 했다. 다 기억이 안날 정도로 여러 일을 하며 입에 풀칠을 하고 학비를 댔던 그 시절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시간이 지나도 쉽게 잊혀지지 않는 이유는 다름아닌 고생 때문이리라.

고생이 승려에게 오면 고행이 되어야 했다. 학비 대고 먹고살기 위해 일을 했다면 고생이었으리. 승려로서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함이란 명분을 놓치지 않았다면 고행이었으리. 더러는 고생을 했고 더러는 고행을 하는 가운데 임제대학을 마치고 용곡대학에 다시 들어가 유학을 늘렸다. 용곡대 시절 한 2년 여간은 어느 신도의 시은(施恩)으로 법당을 운영하며 소위 학사스님 노릇을 했다. 해방 직전이었다.

대승사에서 강원을 마치고 용문사에서 강백을 했으니 선방에 방부를 드릴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임제대학을 다니며 선미(禪味)가 무엇인지 탐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한결같이 주장하는 바이지만 깨달음에 이르는 길은 선이다 경전이다 염불이다를 고집하는데 있지 않다는 신념을 그때 갖게 되었습니다. 선은 부처의 마음이고 교는 부처의 말이라 했습니다. 부처의 말을 듣고 그 마음을 밝히는 것이 먼저고 나중에는 그 말을 버리고 마음을 취해 나의 불성을 닦아내는 것이 성불입니다. 하지만 어느것이 진짜일 수도 없고 순서가 따로 있을 수도 없습니다. 깨달음은 자기의 그릇안에 들어 있는 것이지 법당안 부처의 무릎에 올려져 있는 것이 아니다. 중생 스스로가 자신을 구제하는 것이지 부처가 구제해 주는 것이 아니란 것을 알아야 한다. 자기를 구제해 주는 부처란 다름아닌 자신이 스스로 갖추고 있는 불성이다. 그 불성을 드러내면 부처요 묻어두면 중생인 도리가 그것이다.

귀국한 이후로는 정신없이 살아야 했다. 해방된 조국이었건만 납승인 나는 마땅히 갈 곳이 없었고 배운 것이 아깝다는 소리도 들어야 했다. 길의 끝에 새길이 있듯 한 몸을 의탁할 곳이 없을만치 척박한 땅은 아니었던지라 창원의 국화중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교감노릇까지 하게 되었다. 모두가 시절인연이요 불은이 아니었겠는가. 국화중고등학교는 통도사에서 운영하는 학교였습니다. 현재의 창원고등학교지요. 당시에는 승복을 입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승려교사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대로 즐거운 교사 노릇도 전쟁의 틈바구니에서는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쟁통에는 부산의 이런저런 학교를 다니며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이런저런 절에서 법사로 활동하기도 했고, 전쟁이 끝난 뒤 서울로 올라왔습니다.서울이라고 특별할 수는 없는 시절이기도 했고 나 자신이 돈을 모으거나 살림살이를 융통하는 재주는 없는 터라 상경 이후에도 뜨내기 납승의 신세를 면할 길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불교계에는 소위 '정화'라는 이름의 폭풍우가 몰아쳤고 나는 비구들의 반대편에 서있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말하자면 몇밤이라도 모자랄 것이지만 굳이 들춰보고 싶지 않은 과거사입니다. 자유당말기에 지금 사는 승룡사를 지어 관악산의 한줄기를 의지하게 되었고 강원과 유학 이후 이렇다하게 공부에 매진치 못했던 게으름을 벌충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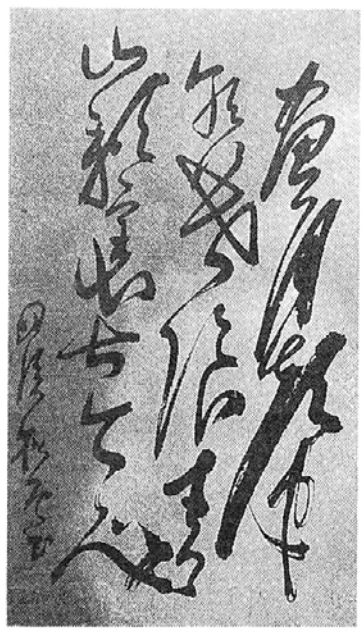
그리 높지는 않아도 서울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승룡사의 터는 가히 승지(勝地)라 할만합니다. 이곳에서 서울이 변해가는 모습을 40년이 넘도록 지켜보고 있습니다. 빌딩이 들어서고 한낮의 매연구름이 기세를 더해가는 세월을 보았고 번영이라는 이름 아래의 온갖 축제와 번영의 뒷골목에서 벌어지는 흉흉한 죄악과 인간상실의 뼈아픈 소식들을 들었습니다. 몇번의 정권이 바뀌고 공화국 앞의 숫자가 더해졌던가. 그 안에서 진동되는 역사의 메아리를 들으며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부끄러워해야 하는지 자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시절인연인가. 스스로를 구제하려 하지 않는 중생집단의 업보일 것인가. 부처를 그리워 하면서도 그의 가르침을 외면하고 가르침을 받들어도 알맹이를 모르는 어리석음이 우리의 자화상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나는 법회에서 스스로 자신을 구제할 원력을 세우고 바른 삶을 살아갈 것을 강조합니다. 또 다생의 인연으로 이합집산(離合集散)하는 윤회의 현장에서 선망영가(先亡靈駕)를 천도(薦度)하는데 인색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우리는 다 육도윤회의 길에 서 있습니다. 이 길에서 짓는 인연은 참으로 귀중합니다. 그 귀한 인연을 성불의 착실한 뿌리로 심기 위해서는 고통 받는 유혼(流魂)을 달래는 공덕이 따라야 합니다. 오늘 나의 모습은 어제에서 와서 내일로 가고 있습니다. 윤회의 바퀴에서 만나는 모든 인연을 귀한 공덕으로 승화시키며 여래의 일여(一如)한 모습을 체득하자는 것입니다.

80이 넘은 나이지만 아직 공부는 끝이 없습니다. 칠순을 앞뒤로 〈一如의 境地〉〈一如眞隨〉란 책들을 내고 팔순을 맞아 문하 상좌들의 주선으로 〈금강경오가해역강〉을 묶어냈습니다. 〈금강경오가해역강〉은 내가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여 공부하고 천착(穿鑿)하였던 조선시대의 스님 함허득통(涵虛得通)의 〈금강경오가해설의(金剛經五家解說誼)〉를 좀더 쉽게 공부할 수 있게 안내한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내 공부의 정리이기도 했던 것인데 책으로 묶고보니 뿌듯함과 부끄러움이 교감되는 것이었습니다. 대승사 강원의 동학(同學)이자 용곡대학의 일년 후배가 되는 전관응(全觀應) 직지사 조실스님이 이 책의 원고를 보고 기뻐해 주던 모습이 새삼스럽기도 합니다.

장부가 다생의 숙연(宿緣)으로 불은(佛恩)을 입어 불문(佛門)에 든 이상 해탈성불과 중생교화밖에 무슨 욕심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시절인연은 혼탁한 중생계의 바람을 막기에 어려움이 있으니 이 현생도 아직 다 익지 못할 성불인연의 편린(片鱗)일뿐인가 싶습니다. 종단이 무엇이고 정화가 무엇이겠는가마는 두어차례 한 종단의 종정 노릇을 한 것이나 문하와 상좌들의 빠짐없는 문안인사를 받는 것은 그간 살아온 길이 헛되지만은 않았다는 격려일 것입니다. 그러나 바닥없는 배를 저어가며 구멍없는 젓대를 불어 그 묘한 소리에 땅이 흔들리고 법해(法海)가 온 하늘에 출렁이는 소식은 언제 들을 것인가.

정리=정성운 기자



◇은사 연용스님의 유일한 유품인 사명대사의 친필휘호 '蘆角聲中朝暮浪 靑山影裏古今心(화각성중조모랑 청산영리고금심)'-화각소리 때라 물결 출렁이지만, 푸른 산 그림자 속에 옛 마음과 지금의 마음이 들어있다. 야옹스님은 '세상은 변해가도 마음자리는 언제나 한결같은 것이라는 가르침으로 새기고 있다"고 말했다.

"사는게 힘들다 고통스럽다고 하지만 뜻을 세우면 고생이 곧 수행이 됩니다"

나와 경전 29

대일경



허 일 범
진각대학 교수

〈대일경〉은 대승불교의 교리로부터 밀교와 수행법까지 총망라한 밀교경전으로 티베트나 네팔보다 동북아시아의 한국, 중국, 일본 등지에 더 잘 알려져 있다.

〈대일경〉은 전체 7권 36품의 내용으로 되어있다. 이 경전의 명칭이 뜻하는 바는 대일여래(비로자나불)가 체험한 성불의 경지와 비로자나불이 나타내 보여주는 신변가지를 설하는 방광대승경 중의 가장 으뜸으로 곧 이경의 내용을 단적으로 함축하고 있다. '신변가지'는 부처님의 부사의한 위신력으로써 중생을 가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은 7세기 중반쯤 서인도에서 성립된 것으로 보여진다.

본래 이 경전은 인도 나란다대학에서 교리연구와 더불어 실질적인 수행체계가 확립되었다. 그 후 그 곳의 수행중인 다르마굽타아사리가 제자인 선무외아사리에게 전수하여 중국에 그 법맥을 상승시켰다. 그때 선무외아사리는 신라, 당나라, 인도네시아출신의 제자들을 양성하면서 수행법의 전수와 더불어 〈대일경〉의 교리를 학습시켰다. 그들 중에서 신라 영묘사출신의 불가사의아사리는 〈대일경〉의 비로자나공양차제법을 전수받았다.

그 차제법은 〈대일경〉의 마지막부분인 제7권째에 해당하며 금강경의 내용까지도 포섭하고 있다. 따라서 불가사의아사리는 〈대일경〉의 교리를 연구하면서 그 주석서를 집필한 인물이기 때문에 〈대일경〉과 〈금강정경〉 계통의 수행법까지도 겸수한 인물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와같이 인도 나란다에서 동북아시아에 전파된 현존 대일경계통의 공양차제법은 인도출신의 선무외아사리에 의해서 신라인에게 전해진 한국유일의 밀교계 수행법일 것이다.

현재 이 계통의 수행법은 중국이나 한국등지에서 그 흔적을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있으나 일본에서 그 법맥이 유지되고 있다. 만약 우리가 이 경전에 의거하여 그 당시 불가사의아사리의 교학이나 수행법을 연구하려고 한다면 일본밀교의 사도가행차제중 태장차제에 주목해야 할것이다.

나는 다행스럽게도 일본의 고야산대학에 유학하여 6년여의 기간동안 이 경전을 연구하고 수행할 기회를 가졌다.

특히 대학내의 밀교문화연구소와 수행처인 보리도량에서 자연스럽게 학과 행을 겸수할 수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졌다. 그때 수많은 밀교의 수행법중에서 대일경계통의 태장차제는 나에게 더 없는 관심거리였다. 그것은 불가사의아사리의 법맥을 되찾을수 있다는 일념으로 가득차 있었기 때문이다. 밀교학연구에서 학행을 겸비하는 것은 자신의 안목을 그만큼 넓히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밀교경전은 문자로 되어있으되 그 내용은 전체가 수행을 위한 방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도 전문수행자인 밀교전법아사리의 위치에 오르고나서 연구에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실제로 티베트나 일본에서 밀교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전원이 아사리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학자이면서 수행자의 길을 동시에 걷는다. 밀교의 아사리들은 반복학습과 수행을 강조한다. 그것은 경전의 교리를 체질화 시키기위한 방법이다. 불가사의아사리는 한국인으로서 공양차제법소를 통하여 보리심과 대비심과 방편을 근간으로 한 〈대일경〉의 진수를 우리들에게 전해준 한국밀교의 선구자였다.

그의 저작은 우리들에게 수행을 통하여 행위와 말과 의지의 불보살화를 가져올수 있는 지름길을 제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자주성과 자비와 힘을 통한 생명력 넘치는 구도자가 갈 길을 제시한 것이다.

밀교경전의 가치는 소극적 자비행이 아니라 자신이 배양한 힘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 자비행을 실현시키는데 있다. 만약 부처님의 말씀에 장애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적극적 자세와 힘으로부터 나오는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대일경〉의 사상은 인도의 수많은 종교와 이슬람의 박해속에서도 그 맥을 유지하며 인도땅에서 최후의 날까지 버틸 수 있게 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대일여래가 체험한 성불의 경지 적극적 자비행 강조한 밀교교학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 (眞本)
'五色 광채'를 발하는 신비한
반 야 심 경



금강경, 법구, 각종불서 병풍
불자님의 가정을 지켜드리는
護身佛經 智慧의 佛光
船若心經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繁昌하고 모든 災殃이 없어진다.
가정이 和睦하고 子女敎育은
반드시 成功한다.

· 入試家庭의 幸運을 위하여 승진·사업번창의 幸運을 위하여 안성지병 투병환자의 영험적 체유를 위하여 반야심경은 수지독송 사경정근하세요.
神秘한 운장법사의 반야심경은 최고의 名品, 生命의 의지처입니다.

전국 佛子가정에 1本씩 보시합니다.(단체주문은 사절)
※모사본에 속지 마세요.

● 반야심경 사경수습 특별회원모집 (초심자 환영, 통신도 가능)
●선착순 한정본(품) ●주문 신청방법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국민은행 042-21-0582-499 조정순

■ 작가약력
· 서울미술문화상 수상 · 서울미술제 심사위원장(서예)
· 중화민국 서법교육학회초청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창작미술 대상수상
· 중국 대만 화교청년 고등부 서법휘호대회 심사위원장
· 대한민국 89년도 최우수작가상 수상 · 대한민국 현대서예대전 심사위원장
· 대만 국립 고궁박물관 소장 물목(약70만점)조사논문 발표
· 고 미술서법학회 회장 · 한국 불교문화예술원 원장

韓國佛敎文化 藝術院
雲藏 法師 禪筆 硏究會
☎ (02)242-0331·242-0255 (야) 216-0307

자연이 만든 명약, 한봉의 명맥을 잇는
강원도 (토종꿀)

강원도는 지리산과 더불어 트종꿀의 유명산지로 잘 알려져 있다. 설악산 자락에 위치해 있어 피나무, 싸리나무, 엄나무등 꿀좋은 나무는 물론이고 당귀, 작약과 같은 약초가 풍성하다.
봄에 분봉한 꿀벌들이 가을까지 온산을 다니며 귀한 약초와 꽃나무등에서 꿀을 만들기 때문에 최상품으로 인정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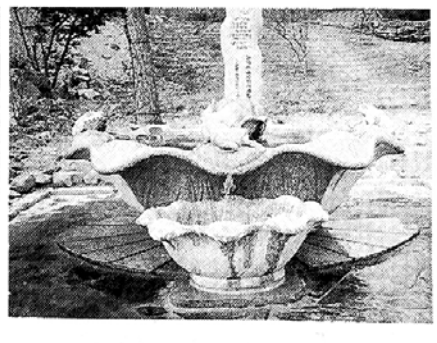
인연있는 분들에게 저가로 공급해 드립니다.

◆ 벌꿀상식 : 양봉의 경우 밤꿀은 진갈색, 아카시아꿀은 연녹색등 선정구분이 있지만 토종 벌은 봄부터 여름까지 온갖 꽃과 나무를 흝기 때문에 대부분 짙은 먹물색이나 진갈색이다.
맛은 「밋밋한」 단맛 대신 씁쓸한 여운이 남는것이 좋다고 한다. 흔히 물을 부으면 왕관처럼 퍼진다느니 불이 붙어야 진짜 꿀이라느니 하는 말은 속설에 불과하다.

구입문의 : 강원도 춘천 産地
0361)261-3048
●스님께서 직접 재배 보급합니다●

석불, 천불전, 만불전, 석탑, 석등, 부도, 연꽃수각, 공덕비, 주춧돌등..
일·심·석·재
다양한 석재물을 만들어온 28년의 경험과 국제기능올림픽 입상경력으로 현재까지 정성으로 조성하고 있사오니 언제 어디서도 문의주시면 바로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 기능올림픽 수상

작품 실적
● 전주시 효자동 일원사 불사 96년 초부터 현재 불사 조성중
● 108벌 오층석탑 완성
● 지장불, 미륵불, 비로자나불, 약사여래불, 아미타불, 대불 오불성전 완성
● 현재 좌불 만불전 조성중
※ 전국 각 사찰에 많은 불사를 하였습니다.

전북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931-1
공 장 : T)0653-53-7527 F)0653-53-7527 자 택 : T)0653-833-4850
휴대폰 : 011-673-7527 BB : 012-672-7527
대표 김 옥 수 합장

고은 불교대하소설

수미산 무너지다



149 · 끝

무색계는 할 일이 없을 뿐더러 할 이야기도 없다. 일체가 정신의 투명 그 자체로 마감된 것이었다.

어쩌면 무색계의 기운은 공기조차 없는 태초 그대로의 진공상태 자체의 무의지인지 모른다.

그 무심의 극점!

그런데 그 극점으로도 어쩔 수 없는 정신의 움직일이 아무런 움직임도 보여주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어서 이 세계의 영역 안에 속하는지 모른다.

이제 이곳에서는 우녀도 우녀인지 누구인지 모를 영식만이 있으므로 저절로 상(相)이 없어져 공(空)이었다.

그 공은 우주의 허공 자체이기도 하였다. 그것은 모든 욕망과 물질적 형태로부터 벗어난 생명의 원형이기도 하였다.

그래서 무색계는 굳이 욕계 색계와 같은 공간이 아니라 그곳의 생명에 부여된 기체를 말하기도 한다.

다만 무색계가 우주의 현실로 되는 일은 욕계와 색계 초선천까지를 1세계(一世界)라고 할 경우 그런 우주 단위에서도 자유로운 상태가 된다.

이 1세계가 1천개쯤 모이면 소천세계(小千世界)가 되는데 그것은 우주 가운데 수없이 이루어져 있는 단위이다. 그 소천세계가 1천개 모여 중천세계가 되고 중천세계 1천개가 대천세계이다.

1천의 3승(三乘) 세계, 즉 10억개의 1세계들이 모인 것이 3천대천세계인 것이다.

이같은 우주 가운데서 무색계까지도 그 진공상태 자체가 그저 진공이 아니고 진공의 기운이 오묘하게 일어남으로써 윤회의 경내일 수 밖에 없는 것이 또 다시 한번 드러나 본다. 부질없는 일이다.

지금 그들은 다 무색계에 들어와 있는지 아니면 이미 색계나 욕계의 어딘가에 가서 태어났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이름을 허공의 대기(大氣)없는 진공 속에 불러다가 산화(散華)시켜보는 것도 하나의 우주적 기운이 노는 일인지 모른다.

인담
우녀
만화
남각
합두
무전
과현
수원
수월



그림 · 조향숙

"모두 다 마음이로다"
색계 욕계무색계 수미산이 무너지니 멸망은 그 무엇보다도 장엄하였다

윤회는 우주의 힘…해탈은 새로운 윤회

한 그곳의 무의지와는 또다른 실재이다.

그러므로 우주 속의 여러 신들이나 그 신들을 섬기는 존재들도 윤회라는 굴레 안에서 쉽사리 뛰쳐나갈 수 없다. 그 신들조차도 언젠가 짐승이나 지옥 아귀의 중생이었다가 다시 신으로부터 그런 중생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우주의 투명한 허공 그 자체가 윤회의 현장이기도 하다. 그런데 바로 이 윤회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욕망 때문이고 어리석음 때문이라면 그것을 벗어나는 해탈은 무엇인가.

해탈을 윤회의 반대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아니다. 윤회를 딱 멈추고 그것이 다시 굴러가지 않게 하는 해탈이야말로 우주 전체의 운행과 함께 새로운 윤회인지도 모른다. 윤회야말로 우주의 힘이고 세계를 그대로 존속시키는 법칙이 아니겠는가.

중생들의 세세생생 행로에서는 윤회야말로 더 없는 정진이고 수행이 아니던가.

그러다가 어떤 중생이 한 군데에 집착하면 그것이 고향이 되고 그것이 전생다생을 통해서 가장 낯익은 업장이 되어 다른 곳을 꿈꾸지 못하게 하기도 한다.

하지만 중생에게는 본디 고향이 없다. 고향이 있을진대 모든 윤회의 시간과 공간들이 고향이 아닐 수 없다.

여기 지난 세상 무욕도의 수행 동료들의 이름을 붙이
대해
소석
효영
명오
상수
상을
박월
길성
순중이
우식
만우
그리고 이름모를 행자.

그들이 떠난 뒤로 그 섬에 살던 갈매기 까치 앵무새 박새 딱따구리와 뭇벌레들과 잔짐승들도 어디서 무엇이 되어 있다가 욕계의 여러 곳, 색계의 여러 하늘 그리고 무색계까지 넘나드는 기운의 생명으로 생사를 거듭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것들도 여기에 보태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하여 그들이 윤회를 벗어나는 공부와 윤회를 벗어나지 못하는 공부를 되풀이하면서 어느덧 그 시작도 끝도 없는 윤회 자체를 해탈의 수레바퀴로 받아들이는 깨달음이 저 바다 앞의 수평선에서 파도쳐 오는 것처럼 아득히 다가오는 행복에 잠겨있는 것으로 이 1소세계의 일로 삼음이 아니겠는가.

그들 중의 누구도 지난 세상에서 중생으로서의 사연을 벗어나면서 살아왔다. 인담만 하더라도 그가 무욕도에 건너오기 전까지는 온갖 떠도는 야승(野僧)으로서 그가 경계마다 만나는 인연이 있고 사연이 있어야 하였다.

하지만 섬을 개척하고 난 뒤의 기나긴 날들의 공부는 그런 인연들을 불꺼진 재처럼 식어버리게 만들었다.

그가 그 섬을 떠난 다음 생(生)들도 어디 하나 단순하지 않은 곳이 없었다.

이를테면 태어나나 죽으나 마찬가지였다.

이제 그런 적적하기까지 한 역정까지도 지워버린 무색계 이래의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무색계에는 타끌조차 용납되지 않기 때문에 색계 상에는 두 줄기 등길(騰道)이 수레바퀴자국처럼 파여 있다.

그 산을 물로 건너서 지축산이 있는데 수레의 축과 같은 산봉우리 모양이었다.

이어서 이 첨목(檐木)처럼 둘려 있는 첨목산이 있고 풍광이 좋은 선진산, 말귀와 비슷한 마이산과 상비산 지지산 등 일곱 금산(金山)이 있다. 이 산들을 금륜의 외곽에서 둘러싸고 있는 원 둘레의 철위산이 있다.

그런데 이런 산들의 중심에 솟아오른 수미산은 금은 유리 수정 등의 보석으로 이루어져서 그 보석의 빛이 허공에 반영되어 남쪽에서는 청색으로 보이고 다른 쪽에서는 황색, 적색, 백색으로도 보이는 것이다.

이 일곱산 사이에 여덟바다가 있는데 중앙의 수미산 외해는 수미해라 부른다. 그 다음의 일곱 내해(七海)는 달고 차고 따뜻하고 가볍고 맑고 냄새없고 마실 때 시원하고 마신 뒤 상하지 않는 여덟가지 공덕의 물로 되었다.

하지만 지지산에서 수미산 사이의 36만3천2백80유순의 외해는 짠 바닷물이다. 이 짠 바닷물 위에 동서남북의 4대주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인 남쪽이 섬부나무가 자라는 섬부주 곧 사바세계인 것이다.

이 사바세계 남쪽 섬부주의 동북쪽 반도 연안에 마치 아름다운 여인의 얼굴에 심상치 않게 몰려있는 죽은깨처럼 무인도들 있게 했는데 그 중의 외딴 것 하나가 인담이 이름지어 무욕도가 되었다.

수미산 중턱에 걸려 빛나는 해와 달의 빛이 가장 눈부시게 내려오므로 옛날 어느 뱃사람이 달을 보는 섬(看月島)이라 하기도 하였다.

간월도가 먼저인지 무욕도가 먼저인지야 굳이 알아볼 사람이 없다.

지금은 그런 섬은 그러하고 반도 전체와 그 반도 이웃의 열도나 대륙의 많은 부분이 대지진으로 말미암아 다 바다 깊이 가라앉아 버렸다.

태고시대 이어진 육지였다가 그것이 다시 떨어져나가 대륙과 반도 열도였다가 그것들이 함께번에 바다 가운데 가라앉아버린 것이니 만났다가 헤어지고 헤어졌다가 깊은 물 속에서 깊은 감회도 다시 만난 것인가.

그런 지각변동의 큰 일은 도대체 어떤 업장으로 그렇게 되어서 그런 윤회로 딴 세상이 되었단 말인가.

모두 다 마음이로다.

그럴지 모른다. 그러나 이 세계가 무아무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굳이 그것을 마음이라고 이름지을 노릇도 어린 아이의 투정 같은 것인지 모른다.

누군지 모른다.

색계 초선천에서 문득 내려다 보았다.

그런데 저 아래 수미산 아래쪽에서 아주 커다란 소리가 들려왔다. 여기까지 들려올 소리라면 실로 엄청난 소리가 아닌가.

해발 3백36만리나 되는 수미산 밑에서 나는 소리가 욕계와 색계 사이의 멀고 먼 거리를 솟아오르기까지 그 소리가 얼마나 힘을 다한 것인가. 바로 그 소리는 수미산이 밑으로부터 주저앉는 소리였다.

마침내 색계 욕계가 다 없어지는 것이었다. 따라서 무색계의 우주도 없어지는 것이었다. 수미산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멸망은 그 무엇보다 장엄하였다. 아흐!

현대불교의 창간과 더불어 시작된 '수미산'이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애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사적 가치와 미술사적 가치가 하나로!

'97 문화유산의 해 기념

국보 제 83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축소작품)

한국전통미술의 백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을
지정문화재 조각기능 이진형선생이 재현하여 문화재 가치의 작품으로 소장 보급합니다.

· 재질 : 청동 100% · 종류 : 브론즈코팅형, 골동품형, 개금형
· 높이 : 大(40.5cm), 小(26.5cm)-2종류

■ 보급문의 : 현대불교신문사 (02)732-1522,737-8881

관 음 손 720-1147~8 | 진 영 사 734-3116 | 광 명 사 732-4792
삼 보 원 732-9904 | 성 불 사 735-3545 | 녹 아 원 739-0957
삼 복 사 733-0903~4 | 신양불교사 735-6719 | 불교서적사 732-8086~7
건지불교사 739-3032 | 종합불교사 733-6655 | 이화불교사 720-1700
불 사 원 720-5678





한국전통미술의 백미를 현대미술로 재현하여 귀한 분들께 마음의 선물로 전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나에게 불성있다" 믿고 정진

김종서박사가 쓰는

불교와 교육 〈6〉

인간교육과 일체중생실유불성

오늘날의 우리 사회를 도덕적 위기의 사회라고 한다. 감히 그럴만도 하다.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점차로 악이 득세하고 선이 맥을 못추는 사회로 전락하고 있다. 도덕적 사회는 선과 악의 갈등 속에서 선이 득세하고 악이 꼬리를 감추어야 하는데, 오늘의 우리 사회는 이와는 반대 현상이 눈에 뜨이기 때문에 도덕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사회생활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며 끊임없는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이 공존 속에서 선이 지배하는 사회를 도덕사회라하며, 악이 지배하는 사회를 도덕적 위기 사회라고 한다. 물론 완전히 선이 지배하는 사회는 있을 수 없고 완전히 악이 지배하는 사회도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오늘날의 우리 사회는 정의보다 불의가, 성실보다 불성실이, 정직보다 거짓이, 사랑보다 미움이, 봉사보다 이기가, 근검보다 사치가 관치는 사회로 치닫고 있다.

이와 같은 도덕적 위기의 사회가 나타나는 것에 대하여 부처님께서는 이미 갈파하고 계셨다. 그래서 오계(五戒), 또는 보살십선계를 재가인의 생활규범으로 제시하셨던 것이다. 인간의 이기심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살생이 점차로 많아지며, 남의 물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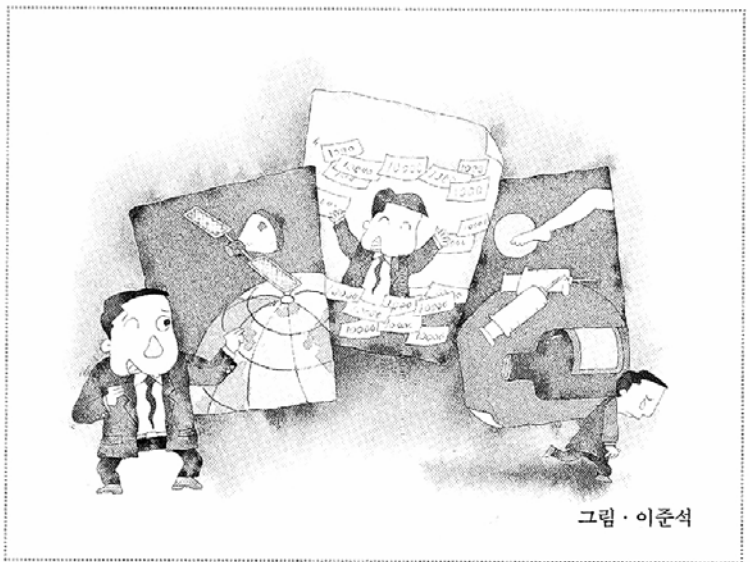


그림 · 이준석

"겨울나뭇가지 속에
꽃과 잎이 없어도
봄이 되면
꽃피고 잎돋네"

을 훔치게 되고, 성이 문란해지며, 거짓말을 잘하게 되고, 사탕발림 말이 많아지며, 이간질하는 말을 하고, 욕설에 익숙하며, 탐내고, 성내며, 어리석어지기 때문이다.

도덕적 위기에서 인간을 구출하려면 점차로 매몰되어 가는 '사람됨됨'을 회복케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고도산업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도덕적 위기의 양상은 심각한 정도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오늘의 교육의 과제 중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인간교육일 것이다. 특히 인간교육의 필요는 다음과 같은 면에서 더욱 부각되고 있다.

첫째, 과학기술의 발달과 인간성 발달의 균형이 깨지고 있다.

오늘날의 과학기술의 발달은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 이외에는 예측을 불허할 정도로 급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반도체, 컴퓨터, 유전공학, 인공위성 등 해방당시는 들어도 보지 못한 개념들이 우리의 실생활과 밀접히 관련을 맺는 사회가 되었다. 그런데 인간성이 과연 과학기술의 발달과 발맞추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극히 의심스럽다. 과학기술은 무섭게 발달하는데 인간성 발달이 이에 따라가지 못하면 발달된 과학기술은 인간을 멸망시킬 가능성마저 있다.

30년 전, 40년 전에 비하여 건물이 좋아지고, 상점의 물건이 좋아지고, 거리가 좋아지고, 교통이 편리하게 되었다. 그러나 30년, 40년 전에 비하여 인간이 더 성실해지고, 더 정직해졌으며, 더 봉사적으로 되었다고 말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역행의 길을 걷고는 있지 않은지?

예를 유전공학에서 들어보자. 2년 전에 신문에 대서특필되고 텔레비전에서 방영된 바 있는 '수퍼 송아지'에 관한 것이다. 보통 송아지의 출생 직후의 몸무게는 45kg인데 수퍼 송아지는 60kg이며, 보통 송아지가 커서 생산하는 우유는 18kg인데 수퍼 송아지가 크면 35kg의 우유를 생산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수퍼 송아지 복제를 1995년에는 500마리, 1996년에는 1,000마리, 1997년에는 5,000마리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외국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나라에서 있는 일이다. 현재는 복제란(複製卵)의 체내 주입에 의한 탄생이지만 좀더 기술이 발달하면 체외 탄생이 가능할 것이다.

현재 동물에 있어서는 완전히 성공하였는데 만일 이것을 인간에게 적용시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실로 가공할 일이다. 세계적 천재인 아인슈타인의 정자와 절세의 미인 마리린 몬로의 난자를 인공수정시켜 복제인간을 수 없이 많이 만들어내면 과연 이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지? 물론 기술적으로 가능한 일이지만 그렇게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이다. 따라서, 그러한 과학기술에 대해 올바른 이정표를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 됨됨이의 향상이 보다 시급한 문제일 것이다.

둘째, 물질 위주의 사상사가 도도하게 흐르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은 고도 산업사회를 형성하였으며 고도 산업사회는 물질적 풍요를 가져왔다. 이러한 물질적 풍요는 보다 더 많은 물질을 추구하는 물질 위주의 사상을 낳게 하였으니 물질만능의 시대가 되었다. 즉 물질이 인간을 지배함으로써 인간성은 일그러지게 되었다.

이리하여 사람의 평가척도가 물질로 대치되어 가는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일류국가, 이류국가 등의 분류기준은 국민 1인당 소득으로 되어 있고 직업의 위계순위도 그 직업의 수입에 의하여 결정되며 심지어 '효도'도 물질이 중심이 되어 있다. 재산이 없는 노부모에게는 효자, 효녀, 효부가 극히 드무니 효도가 아니라 가히 '돈도(?)'라고 할만 하다.

셋째, 관능적 향락을 즐기는 사회가 되고 있다.

물질 위주의 사상은 관능적 향락을 즐기는 경향으로 나타난다. 관능적 향락은 안이비설신(眼耳鼻舌身)이라고 하는 감각기관에서 불쾌한 자극을 피하고 쾌감을 주는 자극을 추구하는 데서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쾌감의 원천은 많은 경우에 도덕적으로 불건전하고 가치적으로 인류의 행복에 기여하지 못한다. 담배, 술, 마약, 성행위, 심지어는 폭력까지도 관능적인 향락임을 생각할 때 이 사회의 앞날이 적이 우려된다. 참된 삶, 삶의 뜻, 삶의 보람을 찾음을 외면하고 달콤한 '꿀'만 받아 먹으려고 아귀다툼이다.

부처님께서는 불설비유경(佛說譬喩經)에서 관능적 쾌락 추구의 위험성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광야에서 놀고 있었는데 악한 코끼리에게 갑자기 쫓기는 바가 되어 무서워서 달아났으나 숨을 곳이 없었다. 마침 낡은 우물을 발견하고 그 우물에 걸려 있는 나무덩굴을 타고 우물 밑으로 내려가서 우물 속에 몸을 숨겼다. 우물 위를 올려다 보니 거기는 흰쥐와 검정쥐 두 마리가 그 사람이 매달린 나무덩굴을 갉아 먹고 있었으며 옆을 보니 독사 네 마리가 그 사람을 물려고 하고 있고 아래를 내려다 보니 구렁이 한 마리가 있었다. 이 사람은 구렁이, 독사에 물릴까 두려워 하고 매달린 나무 덩굴이 끊어질까 공포에 떨고 있는데 이때 나무 뿌리에서 꿀물이 입으로 떨어지는 것이었다. 이 사람은 입을 벌리고 받아 먹는데 열중하였다.

이 비유에서 '사람'이 바로 우리자신의 모습이며 코끼리는 무상(無常)의 태풍이며 우물 속은 인간세계를 말한다. 그리고 흰쥐와 검은쥐는 낮과 밤 즉 세월의 흐름을 뜻하며 네 마리의 독사는 우리 몸의 구성요소인 지수화풍(地水火風)을 말하고 매달리고 있는 나무 덩굴은 우리의 생명이고 구렁이는 죽음을 상징하며 꿀은 관능적 향락을 가리킨다.

"과학 · 물질 · 향락만능이 惡을 부른다"
오계 · 십선계 '사람됨됨이' 회복 규범

이와 같은 도덕적 위기의 사회에서 인간성을 회복하고 사람답게 살아 갈 수 있는 길잡이는 무엇일까? 그것은 일체중생실유불성(一切衆生悉有佛性)의 부처님 가르침을 철저히 믿고 실천하는 일이다. 우리에게 불성이 있음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그것은 부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어야 한다. 불교는 믿음에서 출발하여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종교이다. 겨울 나뭇가지를 쪼개어 아무리 들여다 보아도 꽃도 없고 잎도 없다. 그러나 봄이 되면 잎이 돋아 나오고 꽃이 핀다. 겨울 나뭇가지 속에 꽃과 잎의 징조가 없다고 하여 나무에 잎이 있고 꽃이 있음을 부인할 수 있겠는가? 부처님께서는 〈원각경〉에서 "금광을 녹임으로써 금이 생기는 것이 아니며, 일단 금이 된 후에는 금의 본성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다.

불자들은 나에게는 불성이 있다는 것을 믿고 일용처(日用處)에 불성에 따라 행동하며, 수행시에 불성을 찾아 정진할 때 비로소 이 사회를 도덕적인 사회, 사람됨됨이 넉넉한 사회로 이끄는 지도자가 될 것이다.

〈교육개혁위원회 위원장〉

생활불교용어



시끌벅적하거나 전란(戰亂)이나 투쟁으로 끔찍히 흐트러진 현장을 "아수라장 같다" 또는 줄여서 "수라장이 되었다"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아수라장 또는 수라장이란 아수라(阿修羅)의 심술이 만들어 내는 피해현장을 말한다. 아수라란 천(天), 인(人), 아수라, 아귀(餓鬼), 축생(畜生), 지옥(地獄) 중의 하나를 말한다. 아수라는 화를 잘내고 도전적이어서 전신(戰神)이라고도 한다.

아수라는 전생에 바라문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몹시 우매하고 욕심이 많은 바라문이었다. 어느날 이 바라문은 광야에서 많은 수레에 물을 싣고 다니며 남에게 보시하던 중 불타고 있는 탑을 보았다. 못된 무리들이 불탑(佛塔)에 고의로 불을 지른 것이다. 바라문은 물수레를 모두 동원하여 그 불을 끄는데 성공

아수라장

아수라의 심술이 만든 피해현상
전란이나 투쟁으로 끔찍한 모습

했다. 그리고 서원했다.

"나는 좋은 일을 했으니 다음 생에서는 욕심(慾心)세계에서 가장 몸집이 큰 존재로 태어나고 싶다."

어리석은 그 바라문은 좋은 일을 하고도 좋게 회향하지 못하여 결국 아수라로 태어났다. 그리고 아수라는 물같이 성미가 급하고 욕심이 많고 우둔한 축생이 된 것이다.

아수라의 거처는 수미산(須彌山) 아래 큰 바다 밑이다. 아수라들의 길이와 넓이는 각각 8만 4천 유순(由旬), 입 크기만 1천 유순이라 한다.

인도인들은 정의의 상징인 하늘(天)과 악의 대표인 아수라의 싸움에서 수라가 이기면 재해가 많고 하늘이 이기면 풍요가 온다는 관념을 갖고 있었다. 아수라와 하늘의 싸움에서 하늘이 이기면 인간세상은 평화롭고 아수라가 이기면 괴롭다. 그런데 이 두 편이 싸우는 동안 인간이 나쁜짓을 많이하면 아수라의 힘이 강해지고 하늘의 힘은 약해진다고 한다. 반대로 지상에 정법(正法)이 널리 퍼지면 하늘이 강해지고 아수라는 약해진다. 지금 우리사회는 하늘과 아수라중 누가 힘이 더 셀까.

▩ 참고: 안길모著 '이판사판 아단법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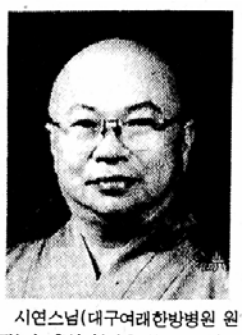
감 · 로 · 심 · 장 · 회
● 형편이 어려운 환자를 돕는 순수봉사단체입니다 ●
심장병 · 안면기형 · 안과 (백내장, 녹내장)
후원문의: ☎ (0591)747-0106

1997년 3월 4일 화요일 주간불교

인 터 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 대구 여래한방병원 시연 스님



시연스님(대구여래한방병원 원장)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 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여래한방병원을 운영하며 오랜세월 불치병 치료에 전념해 온 시연스님은 건강식품인 불로화정을 현대화된 의약품으로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허출원자인 시연스님은 "'불로화정'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위장질환의 치료에 효과가 탁월하다"고 그 효능을 설명했다.

현재 국내 감식초음료 시장이 2백50억원대의 규모로 확장돼 있는 것이 현실인점을 감안하면 사업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상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불로화정의 판매 수익금은 경주시내 99평 대지에 건립될 5층규모의 한방병원 설립에 쓰여진다. 또 한방병원 건물내에는 무료예식장과 탁아소도 만든다는 것이 스님의 계획이다.

불로화정 (不老化精)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 가 격 : 정가 50만원(2개월분)을
마지막분 선착순 1,700명에게
(2개월분 400,000원)할인하여 드립니다.
▣ 입금구좌 : 대구은행 김창수 : 033-07-172508

如來健康院

문의전화 : (053)655-2227

법보신문 제409호 1997년 3월 5일 수요일 12

화제

여래한방원 시연스님 '불로화정' 특허 출원



대구에서 여래한방원을 운영하며 병고에 시달리는 불자들을 돌봐오던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외에 10여가지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화제이다. 스님은 "'불로화정'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서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특히 위장질환과 암을 억제하며 노인성 질환을 예방, 치유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참깨에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입증된 「세사미놀」 성분을 대량으로 추출하는 방법이 세계 최초로 개발됐다.

세사미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 물질로 지금까

-KBS TV 6시 내고향(9월9일) 방영-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하였음

생활속의 모든 정보!
불·자·정·보 에서 만나세요.

함께 나누는

불·자·정·보

불자정보 광고는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됩니다.
광고문의 전화 (02) 732-1522(直)
FAX (02) 737-0697

관 건 강 관

◆한 방 암 정 보◆
02)700-6366

◆그린파워녹즙기◆
길동 02)470-3102

◆대 보 생 식 ◆
장실 183-10 02)427-9162~3

氣치료(초능력)
- 병마로 고생하시는 시부대중(스님도 환영) 불치병, 난치병, 고혈압, 심장병, 속병, 간병, 오래된 두통, 부인병, 전신마비, 수족떨림, 초조불안, 공포증, 정신이상(神病), 스트레스로 인한 모든병 기적같이 고치짐.
- 교통사고 후유증, 수술 후유증 및 장이자 현대의학으로 치료 불가병.
- 불사후 아픈 스님 상담

춘남 연기군 서면 와촌리 80-1
(조치원역에서 10분거리)
광 불 사
주지 대 원 합장
0415)63-0749 / 011)453-8611

전문시술원 張 三 洙
목·허리디스크 중풍 좌골신경통 오십견·비만
퇴행성·류마티스관절염
압구정역 (주)543-7306
(야)711-4370

간경화·완치보장
성인 백혈병·AIDS
만성 신장병·암·神病
정신질환·원인모를 病
대체의학
완치 책임보장
치료후 병원 검사결과 및 외전상 완치가 아니면 치료비를 받지 않습니다.
TEL : 0552-82-8128·8118
H.P. : 011-559-8118/8128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하림리 우계동 보은암

관 강 좌 관

철학의 길잡이
● 90분 녹음(166회) ●
교재 4권 1117쪽 녹음
기초부터 격국·용신까지
이석영 선생님의 제자 단원 선생님 강의
대구 단원문화생. 단국철학
053)475-2746
012)753-2746 · 011)535-2746
※ 말문이 트입니다.

박삼중스님의
금강경 강의
11월말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강의
●위치 : 대구 수성구 매호동
자비정사
053)793-0268

◆지장경 독송모임◆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현대불교신문
강 룡 지 사
0391)43-5599

전 워커힐 신라 피아니스트
PIANO 전문 LESSON
⊙ 찬불가
(찬불가곡·찬불가요·찬불동요)
⊙ Jazz Piano
⊙ 피아노 치며 노래하는 반주법:
초보자 3개월 완성(가요·팝송·가곡)
강남피아노 교습소
02)554-1512
(강남교육구청 신고 제9657호)
강남역 8호출구 앞 3층건물의 2층

신 생 아 작 명
역학개인지도
738-2045.2046
조계사옆 현대불교신문사 앞
韓國民俗哲學研究所

현정 심성개발·상담센터
Tel. (02)583-0041
(지하철 사당역앞)
▷ 본 상담센터는 개인상담을 통해 마음이 아파 혼로서기 힘든 사람들과 마음나누기 하는 곳입니다
▷ 오전 전화상담, 오후 면접상담
▷ 적성 인성 등 각종 심리 TEST
▷ 심성개발 및 감수성 훈련(ST) 소그룹 지도 (월 4회 실시-매주 수요일 오전10시~12까지)
▷ 단전호흡을 통한 심신건강 및 집중력 기르기
▣ 신경성, 집중곤란, 대인불안등 스트레스 직응법 지도

◆태극권·대안기공·참선◆
- 심신수련, 질병퇴치, 체질개선,
- 학생성적향상, 호신술, 집중력

◆氣 치료(팔괘상수요법)◆
- 모든 병 고침 (스님 환영)

◆ 생활역학 개인지도 ◆
- 초보자 쉽게 지도(3개월)
- 철학원 하실 분 꼭 상담바람

※감정비법 있음
02)242-6188
금 륜 정 사
덕 치 합장

법화강의안내
천하도인 황무제께서도 육신통과 금단식으로 팔백년을 장수한 기도날인 음10月15日 庚申日 정오시에 천문이 열리며 천가지 복을 받은 12~1시30분까지 四柱강론으로 수명장수, 부모형제자녀 체질과 질병, 길흉화복과 부부의 運을 관리할 수 있는 특별오행법 강의.
두루 동참하시여 본인의 주변을 봉사하고 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 입제일 : 음10月14日 해시 입제
◆ 해제일 : 음10月15日 해시 해제
◆ 회 비 : 1박2일 5만원(침식제공)
직통 02)821-6622 야 02)923-3110
012)1786-3112 017)236-3110
육경신 도통 회장 태일법사 합장

관 구인·구직 관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동 두 천
0355)867-4132

천년고찰에서 기도정진하며 사실
공양주보살님을 모십니다.
충북 영동군 영동읍
화신리 1-24
중화사 주지
0414)42-2057

사찰(포교원)에서 불교대학 다니며 수행할 젊은이 구함
※학자금 및 생활비 지급
032)503-4883/4886
017)321-4883
부름정사 주지스님

사찰운전기사로
일하고 싶습니다.
0443-45-7604

◆ 기도객 받습니다 ◆
심신이 피곤하신 분들· 조용한 산사에서 수양하실 분들 연락바랍니다.
다솔사 부근 0593)854-0262~3

◆수양·공부·기도 모집◆
청 학 사
0595)83-2933

반려자 구함
■본인소개
· 나이: 담띠(41세) · 학력: 대졸
· 신장: 173cm, 80kg · 직업: 조경업
· 4살 남아 있음
■여성의 조건
· 나이: 30~38세 · 학력: 무관
· 부처님의 자비와 보살도를 행한 수 있는 불자여성 원함.
Tel : 062)227-6959(저녁전화要)
호출: 012)650-6959

관 불교용품 관

◆보 리 수◆
취급 품목: 각종 수입향 염 주 불교악세사리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금강경 10폭 병풍 법보시◆
천일기도 원력으로 이룬 금강경 병풍(경면 108직품) 꼭 소장하고 싶으신 인연있는 불자님을 모십니다.
02)845-0760

◆보련각서점◆
견지동 02)733-9537

◆예 진 솔◆
견지동 02)736-5160

◆견지불교사◆
불교서적·어린이용품 전문점
견지동 02)739-3032

◆大 福 田◆
佛 敎 用 品
견지동 02)737-0969

◆여 래 사◆
견지동 02)730-6939

◆太成佛敎社◆
불교·단청·개금
견지동 02)732-7375

◆ 아전전통칠기공방◆
목발우·제기·다기잔
·소반·주방생활용품
옻칠공예 지정문화재 수리 기능인 작품
▶전화 : 494-0520
※야간 전화주문 가능

관 불교 미술 관

불사의 현장에서 함께 일하겠습니다!
- 부처님 조성, 천불조성, 목탱화, 개금불사, 천불감실
- 내부장엄불사(수미단, 신중단, 영단, 달집…) 등등
- 불교 목공예품 ~ 법상, 경탁, 경상, 불전함, 목어, 호신인등, 연설대, 등등 목공예품 일체

「본 조각원의 소불은 금속 합금이 아닌 99.9% 청동으로 조성합니다」

불사의전당 불 교 조 각 원
서울 종로구 견지동 81번지 2층 (조계사 건너편)
TEL: (02)738-8447~8

佛心 여래미술원
·탱화·개금
정 우 대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92-1 (봉선사 입구)
사무실
0346)571-5537
0346)575-5133
011-324-5133

大圓佛敎美術院
金魚 李 鍾 春
·불화 조성 전문
13, 15, 16회 불미전 입상
0346)571-6581 (화실)
011-737-6581

탁자, 닫집, 법상, 문짝, 불교조각
◇ 주 요 물 사 업 적 ◇
- 합천(해인사) 대적광전 법상 경상
- 의왕시(대원사) 대웅전 수미단 닫집 문짝
- 서울(백화사) 법당 수미단 중각 복진함
- 을성(삼보사) 대웅전 문짝
- 화천(법장사) 대웅전 명부전 문짝
- 충무(삼덕사) 대웅전 수미단 법상 경탁
- 마산(진관사) 대웅전 문짝 닫집
- 포천(약천사) 대웅전 문짝 닫집
- 단양(천진사) 대웅전 수미단 닫집 경탁 경상
- 서울(학림사) 회관 불사, 그외 다수 사찰

대진(전승)공예사
핸드폰 011-282-4609 자 택 02-248-4609
공 장 0346-571-9538 호 출 012-210-1401
趙貴下 합장

관 사 찰 안 내 관

포교당 안내
◇ 위 치 : 길음전철역 부근 버스정류장옆
◇ 평 수 : 법당및 요사 50평, 방 2칸 (5층건물 2층)
◇ 가 격 : 보증금 5,000만원, 월 80만원 (전세도 가능하며 시설비 일체무상)
◆ 최고시설(시설비만 5천만원 투자)
02)941-3195
017)215-3195

사 찰 안 내
◇ 위 치 : 경기도 안양시 수리산 밑
◇ 평 수 : 대지 45평
◇ 법 당 : 2층 20평(전세 3천 8백)
◇ 가 격 : 1억 2천만원
◇ 특 징 : 요사채는 신식시설, 방 2개(거실 15평)
◆ 사정상 급매
02)914-5447
02)911-1319(直)
011)271-0669
※ 스님 직접 상담

포 교 당 안 내
◇ 위 치 : 대구시 효목동
◇ 평 수 : 법당 60평
◇ 가 격 : 보증금 2,500만원, 월 50만원
053)944-0778
0599)32-8216

포교원 안 내
◇ 위 치 : 부산 광역시 최고요지
◇ 평 수 : 46평 (4층)
◇ 구 조 : 법당 1, 거실 2, 주방 1
◇ 가 격 : 보증금(시설비포함) 4,000만원 월 60만원
051)467-5200
영 신 농 산

포교당 안내
◇ 위 치 : 구의동 대로변 (동부경찰서 버스정류장)
◇ 평 수 : 약 20평 (3층건물 2층)
◇ 가 격 : 보증금 1,000만원·월45만원
◆ 시설비 : 보신 후 절충
전 화 02)447-8487
휴대폰 017)273-5115

포교당 안내
◇ 위 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 평 수 : 50평(건물에 옥상 있음)
◇ 가 격 : 보증금(시설비 포함) 절충가액 2,500만원
※ 월세 35만원
◆ 기본 삼존불상 있고 부처님 오백불 봉안됨
053)614-9974
012)1171-7935

포교당 안내
◇ 위 치 : 서울 중랑구 면목동
◇ 평 수 : 약 30평(법당 약 15평, 방 두칸, 주방 한칸)
◇ 가 격 : 보증금(시설비 포함) 3,000만원, 월 70만원
02)438-2973

사 찰 안 내
◇ 위 치 : 부산시내
◇ 평 수 : 399평
- 실사용평수 : 700평
- 임법당, 산신각, 칠성단, 용왕각, 범종각
◇ 가 격 : 3억 5천만원(절충가능)
◆ 인가에서 100m 떨어진 곳 수목이 울창하고 바다가 한눈에 보임
012)1585-4204

포교당 안 내
◇ 위 치 : 청백 대로변
- 서울에서 1시간이내
- 시장·터미널·주요관공서와 10분이내
◇ 평 수 : 3층 57평
◇ 가 격 : 전세 5,000만원
0333)665-6686
0522)87-2276

사 찰 안 내
◇ 위 치 : 경남 합천
◇ 평 수 : 대지 300평
◇ 건 물 : 법당 22평, 요사2동, 방4칸
◇ 가 격 : 8천만원
0599)34-0076
011)847-0076
※ 법화행자 우선

◆위 치 : 경남 밀양
◆부 지 : 800평 대지
◆법 당 : 10평 대웅전 자리 기초공사 필
◆요 사 : 20평 및 종각, 일주문
◆시 설 : 시설일체 무상 기증
◆가 격 : 1억7천만원
◆특 징 : 수려한 산세와 소나무 숲이 조화되고 200m 암반수 유출되는 기도 및 포교도량 본산

전국 사찰 및 포교원 급히 구합니다.
사정이 있어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 하신 분은 연락주시면 좋은 인연 신속하게 연결하여 드리고 양도의 사찰 법률, 세무도 무상상담 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단, 스님 외 일반인 상담이나 대리 상담은 절대 사양합니다.

불교의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기업
동 국 불 사
불사담당 : 조법사 합장
상담전화:015)124-6334
(24시간 호출要)
서 울 본 사 :02)3705-4447
(출장중이 많사오니 호출을 부탁드립니다.)

사찰부지 안내
◇위치 : 강원도 동해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노송이 우거진 산중턱에 위치함
◇평수 : 380평 ◇가격 : 8,000만원
◆ 사찰 및 사찰부지 500만원에서부터 2억선까지 다량 확보하고 있습니다.
천 운 개 발 한 상 철 합장
0371-762-0101
011-466-1802
012-397-6003

전국사찰·포교당
다량보유 양도하실 분이나 운영하실 분 전화주셔요.
성실히 연결하여 드립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소개
상담전화 : 02)723-4082
011)232-4082
광 진 불 사

사찰및 포교원 명 당 부 지
◇ 위 치 : 서울 종로구 평창동 (북악파크호텔 정문에서 2·3분 거리)
02)379-8404, 8425

관 승 복 관

◆ 대 성 승 복 ◆
대표 임 현 호
(단체주문 우대)
견지동 02)739-6287

◆ 가 람 승 복 ◆
견지동 02)739-0080

관 여 행 사 관

◆ 불교성지순례 ◆
(주)성문관광
종로구 청진동
02)722-2233(代)

◆ 스마트여행사 ◆
당산동 02)631-9412

관 장 의 관

- 불교장례대행 -
◆ 대한불교연화회 ◆
불교식 장례를 불자들 손으로~
02)732-9618~9

관 탈 종 공 고 관

대한불교 조동종 귀하

사찰명 : 천 불 사
■주 소 :
경주시 양남면 석음리 261-2
■주 지 : 혜원 천 태 용

상기사찰은 귀종단의 종헌종법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을 공고함.

1997. 11. 1.

관 필 방 관

◆ 大興堂筆房 ◆
대표 권 대 일
견지동 02)732-7326

◆ 大新堂筆房 ◆
견지동 02)732-2830

◆ 安國筆房/書籍 ◆
견지동 02)732-4846

◆ 丹 陽 筆 房 ◆
대표 신 태 식
서예도구 일체
공평동
02)720-9991

관 표 구 관

◆ 성 신 표 구 ◆
인사동 02)734-2344

◆ 낙 원 표 구 ◆
인사동 02)734-2972

◆ 명 륜 표 구 ◆
인사동 02)736-1712

◆ 박 당 표 구 ◆
인사동 02)735-5696

◆ 고미당 표 구 ◆
인사동 02)735-2037

◆ 신신표구사 ◆
인사동 02)735-2710

◆ 서 광 표 구 ◆
인사동 02)720-7442

◆ 은실화랑표구 ◆
광명시 02)682-7536

관 화 랑 관

◆ 용정 콜렉션 ◆
중국미술품
02)735-2700

◆ 동 성 방 화 랑 ◆
고서화.한국화
02)723-6577

◆ 금 성 화 랑 ◆
인사동 02)733-2462

◆ 가 람 화 랑 ◆
인사동 02)732-6170

◆ 경인미술관 ◆
인사동 02)733-4448

◆ 대호고미술전시관 ◆
답십리 02)212-8777

◆ 예 림 화 랑 ◆
인사동 02)732-3318

◆ 대 림 화 랑 ◆
고서화. 한국화
인사동 02)733-3738

◆ 갤러리 대아 ◆
서 양 화
02)517-2558

◆ 동 원 화 랑 ◆
인사동 02)736-3852

관 학 원 관

◆ 시사일본어사 ◆
- 1집 초, 중급편
- 2집 고급편
- 3집 LIVE편

NHK 일본어
국내독점 라이센스 시사일본어사
02)720-3690

관 기 타 관

◆ 불사 어려우신 스님들 ◆
※ 상 담 바 람
02)924-8047

都園佛敎修鍊院
도원불교수련원
지암정사(智庵精舍)
본 수련원은 산세수려하고 맑은 물이 흐르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불교전문 수련원으로서 일반 불자, 각 신행단체 및 가족단위의 불자들이 기도, 수련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갖춰 놓은 도량입니다.
수련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라도 전화주시고 오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도사리 210의 1번지
院長 性 源 合掌
전화: 0374-32-7464
FAX: 0374-33-7464

제137차 수련모임
인간완성, 현세해탈, 완전건강
시민참선수련 전문지도
선(禪)은 수십세기의 경험이 축적된 가장 확고한 정신통일법이며 인간완성법(깨달음)입니다. 참선공부는 인간내면을 광화롭게 하고 외면을 아름답게 하며 긴장과 경쟁이 극심한 현대인에게는 최선의 심신건강법이기도 합니다.
본회는 1981년에 부산 대구에 도장을 개설 명상수행과 도가의학을 함께 지도해왔습니다. 이번에 서울도장을 개원하게 되어 참선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종교종파를 초월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수련초청 / 좌법, 호흡법, 명상식사법, 도인체조, 단식법
◆ 지 도 자 / 이성담(李星潭) 선생
●접 수 /본회 서울도장
〈강남구 포이동 225-1 영풍B/D 2층〉
한국참선명상협회
도가양생학술원
도장 : 서울:02)575-0130/
부산:051)501-8335~6 / 대구:053)742-9194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서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디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듣는 것 보는 것 다 불성이 있기 때문"

"생활자체가 과학이며 의학·천체 물리학"
"몸과 자기 근본의 기둥 둘 일수 없습니다"


그림 · 최주현

요즘은 날씨가 쌀쌀합니다. 우리들의 공부는 춥고 덥고를 떠나서 언제나 봄을 기다리는 길을 향하고 있습니다. 거기엔 원심사상·법사상의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원심사상은 둘이 아닌 사상이요, 우주와 일체제불과 우리들이 모두 계합되어 둘이 아닌 사상입니다. 하다 못해 벌레 한 마리도 빼놓지 않는 사상이죠.

또 법사상이 있는데 이것은 상대가 있는 것이기에 업사상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원심사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 안에는 나 아닌 나가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 하나 것은 법사상과 원사상이 둘이 아닌 까닭입니다.

나와 관계되는 모든 것은 자기가 업을 짓고 자기가 받는 것이지, 누가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빼앗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대신 죽어줄 수도 없거니와 아파줄 수도 없습니다.

깨달음도 대신 못해 줄 것이고, 부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 할지라도 똥누고 밥먹고 잠자는 것은 대신 못해 줍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홀로 와서 홀로 망망대해를 가고 있는 도중입니다. 모두가 원사상을 제대로 알아야했기에 둘 아닌 도리를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악인도 내가 그 마음에 들어가면
나쁜짓을 못할 겁니다 그래서
보살은 천차만별것을 다 건집니다

가지고도 원사상 그 자체를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누구나 미생물에서부터 거듭거듭 진화해서 형성됐기 때문에 나 마저도 공했는데 무엇을 내세워서 나라고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또 우리가 원을 세운다고 하는데 우리 자체가 그대로 원이기 때문에 누가 세운다고 하기 이전에 이미 서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고정됨이 없이 우리 몸을 일거수 일투족 다 움죽거리게 하는 그 기둥이 있습니다. 이 몸은 바로 그 기둥을 끼고 돌아가는 수레바퀴와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 몸과 자기 근본의 기둥이 어떻게 둘이 되겠습니까?

법사상은 상대가 있어서 거기엔 옳고 그름과 좋고 나쁜 것이 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업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법은 상대성이기 때문에 업사상이 될 수 밖엔 없는 거죠. 그런데 원사상은 그대로 자기 근본, 즉 말하자면 자기 불성 기둥에 수레바퀴가 같이 끼어 돌아가니까 원심력을 기르기 위한 방편으로써 주인공에다 늘, 모든 것을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성의 좋고 나쁜 것, 되고 안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잘된 것은 잘된 대로 감사하게 놓고, 안되는 것은 '너만이 되게 할 수 있다' 하고 거기에 또 놓고, 모두를 한군데다가 집중해서 놓아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모든 법이 가만히 있으면 원사상이요, 생각을 하면 법사상인 것입니다. 또 몸이 움죽거렸다 하면 수레바퀴가 돌아가듯 쉴사이 없이 돌아가는 끝없는 진리속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두는 우리가 필연적으로 해야 할 공부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中세계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사는 곳은 중세계이지만 실은 하세계·중세계·상세계가 이 자리에 다 같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이기에 내 마음으로 삼세를 다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말해 자기 가정생활에서 방금 말한대로 놓는다면 분명히 다 놔지는 겁니다. 그렇게 놓아질 때는 바로 자동적인 컴퓨터에서 앞에 입력된 게 없어지고 새로운 것이 입력되어 그것이 바로 현실로 나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배워나갈 때에 모두들 이름 찾고 형상 찾고 말씀 하나를 들을 때에도 가볍게 들으시는데 그래서는 안됩니다. 어떠한 걸 보고 듣더라도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 주인공에다 '아, 잘못되는 것도 너에게서 나오는 거니까 좋게 되는 것도 너 아니야.' 하고 놓고 가는 겁니다. 그건 왜 그래야 하느냐? 책을 하나 보더라도 내 주인공이, 말하자면 불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책을 보게 되는 거지, 내 근본이 없다면 어떻게 책을 볼 수 있겠습니까. 듣는 것, 보는 것, 말하는 것, 모두가 불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육조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성이 본래 스스로 청정함을 어찌 알았으리까? 자성이 본래 생멸하지 않는 것임을 어찌 알았으리까? 자성이 본래 스스로 구족함을 어찌 알았으리까? 자성이 본래 스스로 흔들림이 없음을 어찌 알았으리까? 자성이 능히 만법을 냄을 어찌 알았으리까?"하고 말입니다.

말하자면 내 불성이 있는 줄 어찌 알았으리까, 내 불성이 갖추어져 있음을 어찌 알았으리까, 내 불성이 여여함을 어찌 알았으리까, 내 불성이 만법을 자동적으로 들이고 내게 할 줄 어찌 알았으리까 이 소리죠.

불기둥끼고 바퀴처럼 돌아

우리가 자동적으로, 보면 얘기하고 말하고 움죽거리고 그러는데 그것이 고정됨이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또 한 번 말했다 하면 그 즉시 과거로 돌아가고 또 다른 말하고자 할 때는 바로 미래로 향해서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한 찰나 전, 한 찰나 후가 그렇게 끊임없이 이어가면서 화해서 나투며 움죽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 보고 저것 보고, 이 말 하고 저 말 하는 그 움죽거림, 그렇게 나툴 뿐 걸리는 게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마음이 자유롭지 못해서 걸림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는 소로 살던 습을 놓지 못해 또 소로 태어나고, 뱀도 뱀의 습 때문에 뱀소굴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람도 역시 생각 없이 그냥 살다보면 회향을 잘못해서 도로 중세계의 그 차원에, 그 삶에, 그 마음을 가지고 또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철 살면서 우리가 필연적으로 해야 할 문제는 바로 이 돌고 도는 이치를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비록 깨우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불기둥이 자기를 움죽거리게 한다는 사실은 꼭 알고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뚱이는 수레바퀴와 같이 중심을 끼고 돌아가는데 그 불성은 움죽거리진 않아도 힘을 배출해 줍니다. 우리는 이 옷을 벗을 때까지라도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 생에 태어날 때는 차원과 모습이 지금처럼 고통받게 나오지는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 뿐만 아니라 남들도 건져주게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지구 바깥을 벗어날 수 있어야 다른 우주세계나 은하세계 또는 달과 별과 해를 다 자기로 삼아서 이 세상을 골고루 둘러보며 살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이지만 어떤 것을 막론하고, 잘하든 못하든 상대가 좋든 나쁘든,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놓고 나쁜 것은 나쁜 것대로 놓되 한군데로 놔야 합니다. 우리가 나온 구녘이 그 구녘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구녘도 그 구녘이 되어야 하지요. 누구나 그걸 알아야만 그 자체도 다 없는 자유자재권을 인가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 둘 건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건질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이 둘이 아니다 하는 것도 어떠한 꿈을 꾸거나 귀신이 나오더라도, 내가 거기로 들어가면 바로 내가 된다, 그러니까 이 몸과 마음은 하난데 내 분신을 허공에 꽉 차게 할 수도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보더라도 내 마음이 그 속으로 들어가야 저항력을 느끼지 않고 내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마음으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나쁜 짓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모든 보살들이 부처님의 분신으로서 천차만별의 것을 건진다고 하는 겁니다.

따져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 공부를 하면 하나가 열이 되고 백도 될 수 있는 자유자재권이 바로 우리한테 주어진다 이겁니다. 우리가 생활해 나가는 진리 자체가 바로 과학이며 의학이며 천체물리학이며 철학입니다. 어느 것도 아니되는 게 없다고 봅니다. 이 모습은 옷이기 때문에 한 철 지나면 벗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옷을 입었을 때 자유권을 가지고 이 공기주머니를 벗어나서 들이고 낼 줄 안다면, 들고 날 줄 안다면 죽어서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하여튼 그 원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이미 세워져 있음과 다름이 아닙니다. 그리고 원심력을 세운다 하는 것은 내가 주인공을 하나로 세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주인공의 '공'을 빌 공(空)이라고 그런 뜻은 뭔가? 바로 몸과, 그 불성의 기둥이라 해도 좋고 물질계에 상대하

☞ 18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최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의 불교 (145)

임금의 자리를 기꺼이 양보하고 나면…

"자기를 형성시킨 그 주인공만 믿고 살면 그대로 아무 일이 없었을 것을 주인이 있는 줄조차 모르고 자기가 잘났다고 이 일 저일 저지르곤 하니까 주인공은 뒷방 신세가 된 것이다. 주인공은 '어디 너 하는대로 두고 보리라' 하며 팔짱을 끼고 있는 격이다.

무엇이 참으로 좋고 무엇이 좋지 않은지를 중생은 잘 모른다. 그러므로 주인공을 굳게 믿는 것 외에 중생이 할 일이란 없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맡겨 놓았다가 원하는 일들이 안되면 어떻게 하나? 하고 걱정한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믿고 맡김은 찰나인데 그런 걱정할 새가 어디 있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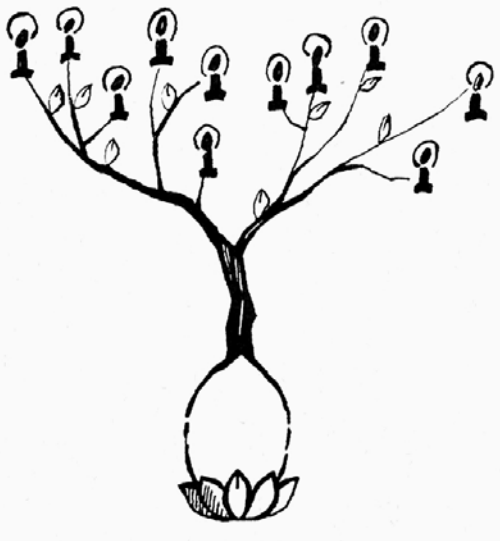
주인공은 결코 믿음을 외면하지 않는다. 철석같은 믿음 속에 일체가 다 들어 있으니 믿음이면 그뿐이다."

믿고 맡기는 데는 어떤 동기나 목적이 전제될 수 없다. 깨닫기 위해서는 믿고 맡겨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방편을 이름이지 거기에 '무엇을 위해서'라는 목적이 끼어드는 것은 아니다. 또 믿고 맡기면 좋다더라 할 때, 혹은 믿고 맡기면 주인공이 다 알아서 해준다라고 할 때, 그것은 결과에 대한 이야기이지 동기나 목적을 말하는 게 아니다.

믿음·맡김에서 나타날 결과를 염두에 두는 것은 자신이 이미 목적이 있는 계산에 빠져들었음을 뜻한다. 실리를 따지는 세속적인 이해타산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것이다.

믿음은 오로지 믿음 그 자체로서 순수해야 한다. 맡김은 오로지 맡김 그 자체로서 전폭적이어야 한다. 거기엔 아무런 계산도 의도도 개입할 수 없다.

개입해서도 안된다. 오로지 순수한 믿음과 맡김이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다.



순수한 믿음·맡김은 뭔가? 철저히 '나'를 버리는 것이다. 지금까지 '나'라고 생각해 왔던 그 '나'가 죽는 것이다.

모든 생각과 행위의 주인노릇을 해오던 그 '나'가 주인자리를 내주는 것이다.

마치 임금이 자리를 물려주는 것과 같다. 자리를 물려주긴 물려주되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고, 나아가서는 받을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조차 따지지 않는 무조건적인 양위(讓位)인 것이다.

그것만이 순수한 믿음·맡김의 참 모습인 것이다. 고로 믿고 맡기기로 했다면 그 순간부터 '나'는 임금자리에서 깨끗이 물러나 주인공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 주인공을 새 임금으로 받들며 살아야 한다. 내가 나서서 이일 저일 주재하지 말고 새 임금에게 모든 것의 처리를 맡겨야 한다. 거기가 바로 모든 권리와 명령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주인공은 영원한 생명의 근원처이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이 실체가 있는 듯이 여겨지는 현상계의 근원이다.

'나'라는 이 생명체도 그 자리에서 나툰 것이요 그밖의 모든 생명현상이나 자연현상도 그 근원처에서 나툰 것이다. 고로 주인공은 한마음이요 전체이며 모든 것의 본질 그 자체인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주인공은 특별히 무엇을 위해서 작용하지 않는다. 전체가 전체를 위해서 무엇을 한단 말인가? 고로 주인공이 무엇을 한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말은 본래 성립되지 않는다. 다만 그렇게 말할 때에, 그것의 참된 의미는 다름이 아니라 주인공은 모든 것의 근원처로서 모든 것을 하나의 현상으로 있게하고 모든 생명체가 하나의 생명으로서 살아가게 한다는 뜻이다. 주인공이야말로 모든 생명의 원천, 힘의 원천이라는 말이다. 고로 주인공 자리는 무엇과도 비할바 없는 무한의 힘이 샘솟는 자리, 생명력이 약동하는 전체의 자리이다. 그러니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느니 없느니, 무슨 일을 하느니 마느니 하는 따위의 수식어를 붙일 것인가.

믿고 맡김은 힘이 샘솟는 원천, 생명력의 근원처로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요 급기야는 그것과 하나되는 길이다. 고로 일상속에서 믿음·맡김의 수행을 하면 누구라도 점차 생명력이 충만해 짐을 느끼게 된다. 가까우면 가까울 수록 그렇다. 제왕의 측근이 미관말직보다 더 큰 힘을 갖는 것처럼-.

따라서 믿음·맡김이 깊을수록 그의 한 생각이 더 큰 에너지로 나투게 됨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 전까지의 세속적인 능력 따위에 비교할 바가 아니다.

원천에서 나오는 힘과 맞닿아 있으니 세속의 지능이나 능력쯤이겠는가. 그래서 일체를 맡기면 주인공이 다 한다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다. 믿음·맡김이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하는 것이다.

협 찬 : 이 경 민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서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법공양 페이지

"우리 모두 한주머니서 공부하는 중"

☞ 17면에서 계속

는 정신계라 해도 좋은데 그 둘이 둘 아니게 공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에다 모든 것을, 일체를 내탓으로 돌려서 다 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양면을 다 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마음으로 죽어야 나를 본다

죽어야 나를 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죽으러 가는 사람이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이것 참견하고 저것 참견하고 언제 죽은 세상의 맛을 보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죽으라고 했습니다. 몸이 죽으라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거기다가 놓고 일임하면 마음은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의 세계에 저승길로 들어가는 길이기도 하고요. 과거에 죽은 사람의 이

"다가오는 경계 고통으로 생각말고 한생각 돌려 극락세계를 맛보세요 이 공부에 묘미가 있습니다"

치를 모른다면 지금 산 사람을 어떻게 건집니까? 어떤 사람이 현재 고통을 받고 산다고 할 때에 그 사람의 과거로 돌아갈 줄 알아야 그것을 지우고 다시 나올 수 있죠.

그리고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비구니가 알면 얼마나 아느냐고 하는 분도 있지만 비구니든 비구든 모습만을 보면 안됩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습은 보지 마라. 모습은 천차만별로 바뀌는 까닭에 어떤 걸로 바뀌었을 때 내가 했다고 할 수 있으랴. 그러니 여자다 남자다 따지지 마라. 모습은 각각이나 마음이야 어찌 같지 않으랴."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가오는 경계를 고통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한 생각 돌림으로써 극락세계를 맛볼 수 있는 묘미가 이 공부에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부지런히 정진하셔서 모두가 이 불기둥 하나에서 나오는 이치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육조스님과도 둘이 아니요 일체제불과도 둘이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지 둘이 아닙니다. 진리는 공한 것이 진리란 말입니다.

기공공부가 유행입니다

문 저는 대학에서 물리학을 강의하고 있고 정신과학회 회원으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정신과학에 대해서 저희 과학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게 연구되고 있고, 특히 중국의 경우에는 기공과학이나 인체과학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종교인들이 나와서 일반인들한테 수행법을 가르치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러한 수행법 중에 기공이나 인체과학들이 도교나 혹은 불교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도교에서 나온 수행법을 가르치는 분들도 마음의 근본 자리가 하나지 둘이냐고 하면서 불교나 도교를 통해서 끝까지 가는 자리가 같은 자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초능력들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 과학자가 연구해야 되고, 이런 과학들을 연구하는 나라가 앞으로 강국이 될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지금의 이런 세계적인 조류가 단순히 지나가는 하나의 바람인지, 아니면 앞으로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말 미래의 국력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학문으로서 자리잡아 그 나라 국력의 척도가 될 것인지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스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답 그것은 우리가 전체-그 무위세계에서 자유자재하는 그런 일과는 달리 한발 내려딛고 나선 경계로서 유위세계에 속하는 것입니다. 기공이라든가 또는 무술이라든가 이런 것 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어서 결코 부처님 경지 속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심성과학연구팀들을 두고 연구하라고 하는 것은, 연구하는 사람들이 일체를 주인공 자리에다 다 일임하면서 이해가 되고 믿음이 가서 둘이 아니게 통할 수만 있다면, 연구를 하되 거기서 다 연구를 하게끔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뛰고 날고 하는 그런 몸으로만 한다면 만약에 보이지 않는 데서 몽둥이를 들고 와서 때려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데서 차례차례로 입력된 것이 운명처럼 풀려 나오는 데는 그것은 도저히 막아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로켓이 뜨고 이러는데 그것을 몸으로 해서 얼마나 막아지겠습니까? 만약 로켓이 잘못돼서 우리들 전체를 죽일 수도 있다 이런다면 내가 로켓이 돼야 전체를 살릴 수 있겠죠. 그리고 물에 들어가면 용신이 돼야 하고, 어떠한 혹성이 든지 지구에 와서 부딪친다 이럴 때는 내가 그 혹성이 돼야 하고, 이러한 문제 등등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지금 이 몸이 있는 동안이라고 해서 이 몸으로만 대처해서는 안되지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끌어 가는 삶은 몰라서 그렇지 실은 세세생생 끝없이, 우주에 발판은 두고서 과거 현재 미래를 함께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실제가 그렇기 위해서는 누구라도, 특히 연구하는 이들은 잘한다 못한다 배운다 안배운다 하는 것을 부지런히 뛰어넘고 연구를 하면서도 그것이 자기가 한다고는 생각치 말아야 합니다. 자기 불성인



그림 · 최주현

서 한꺼번에 몰록 놔버리지 왜 이렇게 하나하나 놓느라고 고생을 하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몰록 놔라, 몰록 놔라' 는 소리를 계속 외치고 다녔더니 갑자기 제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다가 갑자기 죽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운 생각에 다시 나왔습니다.

"이세상 모든 생명의 근본 우리 마음에 가설"
"사람이 생사를 버린다면 두려울게 없어요"

답 죽어야 본다고 그랬는데 왜 나와요? 아니 지금 죽으나 늙어서 죽으나 죽는 건 마찬가진데 내 몸뚱이가 공해서 없다는 사실은 알고 계신가요? 스스로의 마음이,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 때문에 걸림없는 데로 도달을 못했지 않습니까? 사람 사람이 모두가 생사를 버린다면 두려울 게 아무 것도 없어요. 내가 죽든 말든 그냥 버렸는데 무엇이 겁이 납니까? 본래 진리가 버리고 가는 겁니다.

본래 내가 없고 버려져 있는데 주인공의 시자로서 몸뚱이를 움죽거리면서 다닐 뿐이지 내가 아니다 이겁니다. 살았을 때 내가 내가 아님을 알아야 되고, 참나와 거짓나가 둘이 아님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나는 정신계고 거짓나는 물질계란 말입니다.

정신계가 있어도 물질계가 보이지 않으면 무효고, 물질계가 있어도 정신계가 없으면 그것 또한 무효예요. 그러니 서로 합쳐야만 100%가 된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 내가 살겠다 하지 마시고 부지런히 저항력을 길러서 당당히 뛰세요. 하되 함이 없는 것이니까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겠다 하면 '주인공, 너만이 그렇게 할 수 있잖아' 하고 그렇게 뛰세요.

또 의욕이 없을 때는 '의욕이 있게 하는 것도 너 아냐' 하고 웃으며 관하고 의욕있게 생각하게 만들고, 화가 나면 '화 안나게 할 수 있는 것도 너 아냐' 하고 가고, 몸이 피곤해서 일어나지지가 않을 때는 '네 몸을 일으키는 것도 너 아냐' 하고 일어나세요.

내가 쓸모가 없다면 그만 옷을 벗겨 갈 것이고 아직 쓸모가 있다 하면 좀더 살게 할 거예요.

하여튼 공부하는 과정에는 내가 놓는다고 의식하는 것도 욕심이니까 놓는다는 생각없이 그냥 놓고 '너만이 할 수 있어' 하고 뛰어보세요.

집에 악귀가 있는것 같아…

문 제가 얼마전에 이사를 갔는데 스님의 설법 중에서 '이사를 가게 됐을 때 거기에도 많은 영혼들이 있어. 그러나 서로 한마음이 되어 산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게 돼.' 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그렇게 관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랬는데 우연인지 저희 어머님과 집사람이 조금씩 아프고 저도 좀 시름시름 아팠습니다. 어느날 저희 집에 일하러 오신 아주머니의 얘기가 자기는 성령을 받은 사람인데 저희 집에서 안좋은 악귀가 있어서 집에 이상한 냄새가 나고 사람이 아프대요. 그러면서 저더러 교회를 다니면서 '악마야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 물러간답니다.

답 그것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도깨비 장난과 같다고 부처님도 예수님도 다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떠한 인과로써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에는 항상 자기 주인공 자리에서 그랬으니까 그 속에 들어가서 둘 아니게끔 생활을 한다면 스스로 없어져요. 쉽게 말해서 인과가 없다면 그렇게 얽히를 않기 때문에 전자에 살던 그사람의 주인공과 내 주인공과 둘이 아니라는 뜻을 알면 되죠.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하고 관한다면 몽땅 하나가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어떠한 게 닥치더라도, 내가 금방 죽는다 하더라도 싱긋이 웃고 놓으란 말입니다. 꼭 그렇게 해보세요.

그게 진짜 보배예요.

언어달라 독일포교 어려워

문 저는 독일지원에서 법형제 총무를 맡고 있습니다. 큰스님께서 머나먼 독일 땅에까지 불법을 전해주신데 대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독일에서 이 공부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독일 신도와 한국 신도간에 언어가 달라 의사소통이 잘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그 독일 땅에 많은 불법을 전할 수 있을지 가르침 바랍니다.

답 그럴 때는 연기법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독일 신도와 한국 신도가 말이 통하지 않아서 못할 때는 바로 상대방과 나와의 주인공은 둘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관하시면 상대쪽의 주인공이 내 쪽의 주인공으로 합해져서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터득되고 마음이 통해집니다. 다른 말로 영혼의 근본이라고 그러죠. 어떤 신도님의 딸이 호주에 가서 공부하는데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몰라서 마음으로 관하며 '너만이 빨리 하게 할 수 있다' 고 하니까 자기도 깜짝 놀랄만큼 어학실력이 늘고 지금은 몇 개 국어를 한답니다.

그 뜻은 영혼끼리 아는 겁니다. 말은 보는 사람들끼리 하지만 뜻은 영혼과 영혼이 말을 하고 둘 아니게 알기 때문에 빨리 알아지죠. 말은 다를지라도 서로가 서로의 마음은 다 알고 있는 거죠. 부처님께서도 당신 마음의 그 분신을 이름을 다 지어서 내놨죠. 예를 들어 개구리를 하나 건질래도 내가 개구리가 돼야 개구리를 건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뜻은 바로 천차만별의 생명들을 다 장엄하시고, 장엄했다는 것은 결국 흡수했다는 얘기죠.

부처님께서는 팔상성도로써 사무사유가 둘 아니게 일대사의 인연을 맺은 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뜻은 바로 전체, 과거 현재 미래 또는 우주 삼천 대천 세계 모두를 한데 합쳐서, 내 아님이 하나도 없고 내 도량 아님이 없고, 내 아픔 아님이 없고, 내 모습 아님이 없고, 내 부모 아님이 없고, 내 자식 아님이 없고, 내 형제들 아님이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내세워서 내가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라고 할 것도 없는 것이 부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일에 가셔서도 비디오법회 때 빠지지 마시고 나름대로 생각을 둥글게 모가 나지 않게 하세요. 그 위력은 둥근 가운데 쓸만합니다. 말이 너무 깊어서 그냥 이렇게 '쓸만합니다' 이러는 겁니다. 너무 깊어서 끝이 안나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찰나찰나에 부처님 생각이 날 때는 찰나에 부처님이 하나가 돼 주거든요. 이 세상 사람이 다 한 대도 다 그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체제불도 우리들 마음의 근본에 직결돼 있다고 그러죠. 이 세상 일체 생명들의 근본도 모두 가설이 돼 있거든요.

근본은 자기한테 있는 거지, 딴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예요. 그래서 자성을 깨우친다는 말을 씁니다. 우리들이 살아나가는 중에 아무리 모자라고 못난 것일지라도 일체 만물이 없다면 내가 어찌 그걸 보지 않고 배울 수 있으며 깨우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모두가 더불어 같이, 내 스승 아닌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더불어 같이 살고 배우니 미움도 없고 고울 것도 없고 나와 더불어 둘 아니게 항상 즐기게끔 돼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팔자니 운명이니 하는 말들을 하는데 팔자운명이 따로 없습니다. 집착이 없다면 고(苦)도 없고, 멸(滅)도 없고 도(道)도 없습니다. 그대로 내가 움죽거리고 사는 자체가 바로 도예요.

불사때 많은 인연이 도와

문 독일에서 불사를 하면서 느낀 조그마한 체험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긴 법당이 좁기 때문에 수영장을 개조해서 넓혔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좋은 인연들이 나타나서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바로 한마음에서 나오는 그러한 일들이구나. 참 묘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일도 주인공의 나툼이라고 할 수 있는지요?

"동서남북 흩어져 있다해도 '한주머니' 이 도리 모르면 자유권 얻을 수 없고 생사윤회서 벗어날수도 없습니다"

답 법당을 꾸미는데 누가 와서 돌본다고요? 그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요, 부처님의 마음이 분신이 되어 그쪽 사람들 중 할 만한 사람이라면 거길 돌게 돼 있습니다. 십 리 밖이라도 좇아오는 거죠. 그러니깐 주인공의 나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사람이 공부를 해서 이 도리를 안다면 더더욱 좋은 일이구요.

불교라는 말도 있고 불법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불법이란 건 상대성 원리로서의 불법이라고 했고, 불교라는 것은 바로 생명과 삶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금방 아는 게 아니라 길러져 어른이 되면서 삶을 알고 가는 겁니다.

불(佛)은 일체 생명의 근본을 불이라고 하고 교(敎)는 바로 우리가 행하고 가는 생활을 말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살면서 배우고 지혜가 생기고 잘못되고 잘되고를 알게 되고 이렇게 자꾸 배우기 때문에 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불교 안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불교가 어디 따로 있는 줄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불교는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필연적으로 하고 가야 할 공부인데 말이죠. 우리가 지금 지구라는 공기주머니 속에서 살지만 돌아가는 이치가 모두 불교로 돌아가고 있죠. 그러니 어느 한군데 국한돼서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하여튼 우리가 지금 부처님 자리에 한 자리를 하게 된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한 주머니 속에 한자리를 하고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를 갔다 해서 한자리 아닌 것이 아니고 외국으로 떠났다 해서 한자리 아닌 것이 아닙니다.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있다 해도 한 주머니이며, 이 마음의 도리를 모른다면 자유자재권을 얻을 수도 없고 생사윤회서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면서 열반도 살아서 열반인 줄 알아야지 죽어서 열반을 가늠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듯이 생사윤회도 살아서 벗어나야 하는데, 벗어나기만 해서도 아니됩니다. 벗어나고도 자유롭게 들고 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마음이 찰나에 우주에도 가고 달에도 가고 다시 지구로 들 수도 있는 그런 이치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내가 옷을 벗고도 자유롭게 즉 용도에 따라서 또는 차원에 따라 소임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는 이 모습으로 지금과 똑같은 고통과 아픔을 겪지 않도록 열심히,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깥으로 끄달리지 않는 것이 바로 업사상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협찬 주인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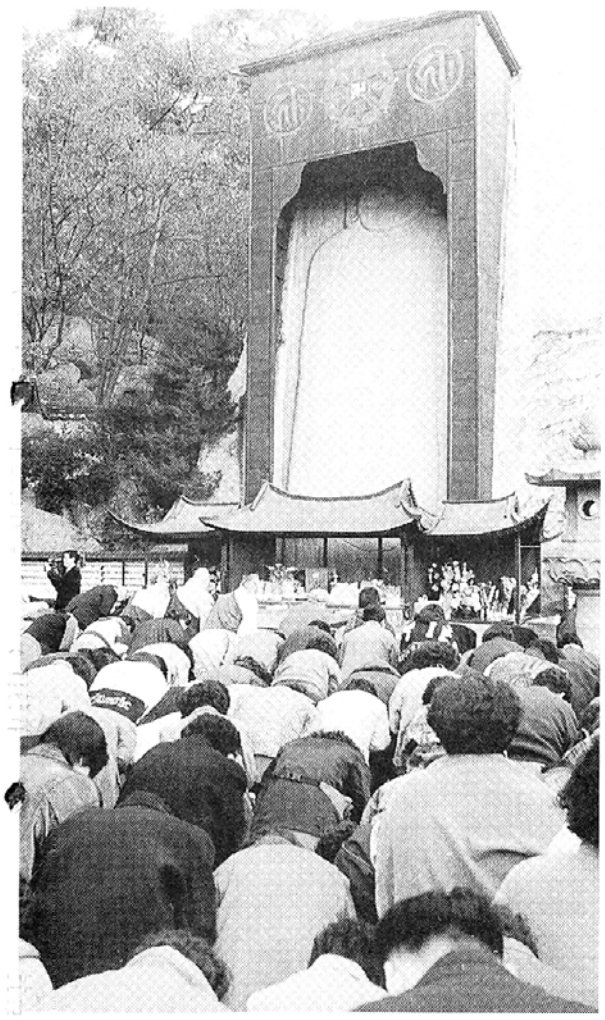
삶은 결코 꿈가 아니라는 이 통쾌한 역설 !

삶의 모든 고통이
결국은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발판임을
중생 스스로 깨닫게 하는
大行 스님의 육성 법어집

A5신 288쪽 값 6,000원

여시아문 종로구 견지동 110-33
737-8881(편집), 737-0695(영업), 팩스 (02)737-0696

밤새 오체투지 "참회 했어요"



◇참회기도도량으로 꼽히는 도선사 석불전. 2천여 불자들은 지극한 참회불심 3천배 철야정진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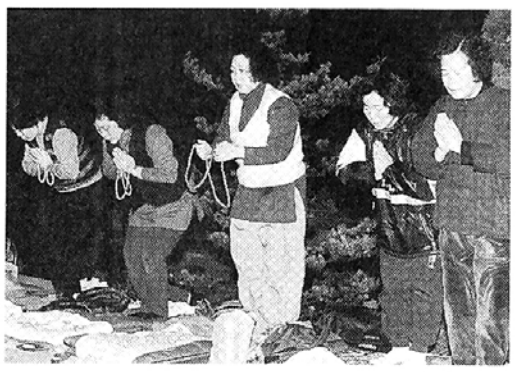
현대불교 · 도선사 공동주최 '3000배 정진' 현장

"지~심-귀명-례 석가-모니~불!… 지~심-귀명-례 석가-모니~불!"

1일 저녁 서울 우이동 도봉산 중턱에 자리잡은 참회도량 도선사에는 온 마음들이 하나로 돌아 울려퍼지기 시작했다.

현대불교신문(사장 김광삼)이 창간 3주년을 맞아 도선사(주지 동광)와 함께 '참회하는 삶을 살자'의 실천행사로 마련한 '바람(願) 정진(力) 3천배 기도 대법회' 현장이다.

낮 12시부터 하나둘씩 모여든 불자들이 3천배가 시작된 7시에는 도선사 석불전과 대웅전, 명부전, 참회원, 삼성각 등 전도량을 발디딜 틈도 없이



◇화목 · 건강 · 국가안녕을 바라는 불자들의 마음이 염불소리에 실려 온 누리에 퍼졌다.

남녀노소 2천여 불심 山寺 달궈
"어제의 나 버리고 새 삶 살아야지"

꽉 채우고도 넘쳐 2천여명에 이르렀다. 자리를 잡지못한 불자들은 석불전 통로와 입구, 대웅전 앞마당, 명부전 앞뜰, 방석을 깔고 절을 할 수 있을 만한 곳곳에 모여 앉아 때이른 추위도 아랑곳 않은채 몸과 마음을 던져 오체투지 3천배를 시작했다.

본격적인 3천배가 시작되기 전인 오후 4시, 석불전 입제식에서 도선사 주지 동광스님은 "정치 경제적으로 어지러운 현실에서 3천배 참회기도는 참으로 뜻깊다"며 이번 행사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어 조계종 포교원장 성타스님도 "참회하는 생활을 통해 스스로 업장을 소멸하고 새 삶을 이룩하자"고 격려했다.

3천배 기도가 시작된 오후7시. 스님의 죽비소리에 맞춰 불자들의 염불소리와 절하는 동작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45분 절하고 15분 휴식. 또 다시 거듭되는 절과 포행으로 불자들이 무아의 세계로 젖어들었다. 부모님의 건강을 비는 이, 탐진치를 벗게 해달라는 이, 자녀의 대학합격을 기원하는 이, 가족의 화목과 자신의 발전을 서원하는 이, 경제회복과 통일을 기원하는 이들에 이르기까지 참석한 불자들의 마음속에 품은 바람도 108번뇌 만큼이나 수 없이 많다. 이런 지극한 불자들의 바람을 알고계시는 듯 대웅전 아미타부처님도 석불전 마애관세음보살님도 미소로 화답했다.

새벽 1시가 넘은 시간 불자들은 마지막 힘을 다해 끊임없이 머리를 조아린다. 그 옛날 석가모니가 우유죽 공양을 받고 깨달음을 이룬 것처럼 조금전 휴식시간에 먹은 팥죽 한그릇이 불자들의 기운을 북돋운 듯 하다. 자! 이제 3천배가 다 되어간다는 마음에 힘든 줄도 지칠 줄도 모르는 불자들의 신심은 또다시 하나가 되었다.

이마에 혹이 생기도록 몸과 마음을 던져 평생동안 오체투지 참회정진을 했다는 황벽스님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어느덧 진실한 참회의 마음으로 온몸은 땀으로 젖고 자신속의 부처님을 향한 희열의 열기도 점점 최고조를 향해 갔다.

새벽 3시40분, 드디어 염불소리와 죽비소리가 모두 멈췄다. 3천배가 끝난 것이다. 그러나 보살들은 끊임없이 절을 하고 또 절을 한다. 새벽이 깊은 산자락 사이로 고개를 들고 불자들의 마음속에도 깨침을 향한 여명이 비추는 순간, 밤새워 3천배를 올린 불자들은 느꼈다. '이제 어제의 나를 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이은자 기자

이모저모

"이젠 뭐든 잘할수 있어요"

광동여고 10명 단체참가



○…참회당 3층 맨 앞줄에 체육복 등 간편한 복장으로 자리잡은 여고생 10명. 주위 사람들의 격려 어린 시선을 한몸에 받았던 이들은 광동여고 재학생들이다. 이 학교 이학송(선재 청소년 연구원장)교법사의 권유로 함께 참여하게 됐다는 이들은 죽비소리에 맞춰 일초의 오차도 없이 절했다.

3천배를 마친 새벽 "절을 하면서 너무 힘들어 중단하고 싶은 몇 번의 유혹(?)이 있었지만 끝마치고 나니 뿌듯하다"며 "이젠 무슨 일이든지 다 잘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가족 건강기원 뿌듯해요"

父情佛心

○…서울 창동에 사는 이원웅(55)거사는 부인 이옥희(46)씨와 셋째 딸 소희(18)양과 함께 삼천배 입재식에 참석했다. 부인과 여고 2년생인 딸은 108배를 마치고 귀가했으나 이원웅씨는 가장으로서 가족을 대표해 3천배를 마쳐 부정불심(父情佛心)을 보여줬다. 그는 "대학 1년생인 선희(20)양으로부터 초등학교 6년생인 경래(14)군 등 4녀1남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즐겁기만 했다"고 3천배를 회향한 소감을 말했다.

세살 아기도 불사 지켜봐

산교육장



○…신상수(40) 김성남(34)씨부부(서울 전농동)는 쌀쌀한 날씨에도 딸 신규민(12) 윤우(8)와 아들 지훈(3)군 등 3형제를 데려와 3천배하는 광경을 지켜보게 했다. 김보살은 "애들에게 불교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 데려왔다"면서 "애들이 자라 훌륭한 불자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3천배 정진에 동참했다"고 말했다. 아이들도 엄마 말에 따라 얌전하게 절하는 모습을 신기한듯 지켜보았다. 이날 신-김씨 부부는 참회원 3층강당에서 자녀들을 돌보며 번갈아 가며 절을 했다.

만화 백유경 百喩經

이향원



여성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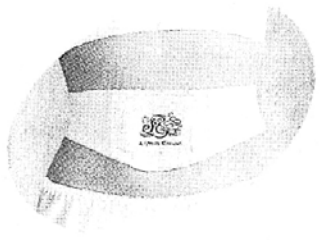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나에겐 어떤 증세가 있을까?

■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
10. 생리 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3. 가슴이 답답하고 얼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17. 변비가있다. ( )
18. 당뇨와갑상선으고통받는다. ( )

3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요.



향비 등 사용해 보세요!

향비를 사용한 체험담

저는 1남 1녀를 둔 가정주부입니다. 몸이 약하고 힘든 탓인지 2-3년 전부터 불면증과 방광염이 생기면서 얼굴에 기미가 끼기 시작하더군요. 백방으로 노력하였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방비 상태로 두고 있었는데 언니가 한약재 성분으로 만든 "향비"라는 배꼽에다 착용하는 제품이 있는데 먹고 바르는 약이 아니라서 부작용이 없을것 같다고 사용해 보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반신 반의 하는 마음으로 착용해 보았더니 얼마 되지 않아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불면증이 없어지면서 사람들로부터 피부가 고와졌다 예뻐졌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보아도 화장도 잘 받고 기미도 옅아지고 혈색이 좋아졌는것 같아서 생활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약 6개월이 되었는데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꼬기 있게 사용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착용할 예정입니다. 다시한번 향비에 고마움을 전하면서 저처럼 기미, 불면증, 방광염, 생리통으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권해보고 싶은 제품입니다.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272 신동아 APT 박 지 희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리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제품문의: (株) 고려물산,한국 방향연구소 / 수신자 부담 02) 755-9821,080) 200-4545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 어느날의 외로움 -

슬픔 한조각
바다위로
홀로 떠가는 부표처럼

외롭게 가슴에 머물고
소리없이 떨어지는
나뭇잎 하나

고독은
끝이 보이지 않는데
바람소리 흔들리며

노 젖는 이
그림자 등 뒤로
소슬한 바람 맞는다



원장 이 영숙(본명)

大卒, 초 · 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대정보 결혼연구원

원장 이 영숙 합장(법명:無生子)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5가 18번지 영신상가 3층 317호

대표전화 : (02)634-4910~2
(011)288-4910

춘천옥산가옥의 신비!

玉혼합원사 · 건강防災服

玉內外衣

건강회복
젊음유지
음이온발생
항 균 성
99.9% 54.8PPM

맑은 머리 고운 피부

옥을 사용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玉으로 온몸을 폭 감싸 주는 것입니다.



중국 지린省 通化지방에서 출토된 前漢시대 第3帝의 金縷玉衣 신강옥으로 만든 2천 498매의 옥조각과 1천 100g의 금실로 되어 있다. 2000년전에 죽은 왕의 시체의 피부가 탄력이 있었다

옥이불과 함께 빅히트 상품

- 피로감 감소, 병후회복 회춘의 현저한 차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 유해전자파 방어에 특효입니다.
- Kirlian+BIO=건강신물질



이 옷을 입으면 중국황제 유승의 金縷玉衣를 입은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男女각각)

각종 성인병과 질병에 사용되어온 고대 중국의 신강성 백옥은 수백년전에 생산이 고갈되고 현재는 춘천玉山家玉만이 세계 유일한 것이 되었습니다.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번지 (쁘렝땅 백화점 지하상가 을지로쪽입구)

玉山家® 是空合掌
777-0105 (우편판매가)

불자 세상보기

수돗물서 장바이러스 검출 '국민 불안'

먹는 물 관리 '발등의 불'

전국 상수원 폐수 방출등 오염도 심각

수돗물과 상수원에서 인체에 유해한 장(腸)바이러스가 검출돼 국민을 불안케 하고있다. 서울대 미생물학과 김상종교수는 3일 서울 인천지역 11곳의 수돗물을 분석한 결과 장내에 기생하는 엔테로바이러스가 1천리터당 2~10마리씩 검출됐다고 생물과학협회에 보고했다. 엔테로바이러스는 인체내에 유입될 경우 수막염 호흡기질환 심근염 신장염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열에 약하므로 수돗물을 반드시 끓여 먹어야 한다.

이어 대해 환경부는 4일 해명자료를 통해 즉각 김교수의 주장을 반박했다. 선진국들도 바이러스를 법적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없으며, 기존의 염소소독으로 거의 완벽하게 바이러스를 소독할 수 있어 새로 기준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는 얘기였다.

김교수도 환경부의 해명자료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미국은 모든 정수장에 바이러스 제거 시설을 의무화했으며 올해부터 3년 동안 수인성 바이러스에 대한 오염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의 정수장에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또 바이러스는 미량이라도 인체에 위험이 크기 때문에 지자체 수자원공사 등과 함께 전국적인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돗물 안전논쟁은 이번만이 아니다. 8월에는 수돗물에 독성물질이 있다고 발표한 교수를 서울시와 대전시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하는 일도 있었다. 그런가하면 부산지방변호사회가 부산시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수질이 나쁜 원수로 생산한 수돗물을 공급, 이에 따른 고통을 배상해야한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기도 했다.

문제는 원수로 쓰이는 전국의 호소(湖沼)가 오염되어 있다는 것이다. 원수의 오염도가 심하니 정수를 위해 다량의 화학약품을 투입하고, 화학약품이 또다른 반응을 일으켜 새로운 독성물질을 생산한다 '물반 약품반'을 먹는 때가 올 것이라는 얘기는 생각만해도 끔직하다.

식수원으로 사용되는 전국 호소의 60%가 축산폐수 등 영양물질로 심하게 오염되었다는 조사결과이다. 더욱이 전국 취수장 25곳은 아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도 않다. 이런 상황인데도 환경부는 팔당상수원지역내 건축행위를 대폭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오수정화시설의 설치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건축허가·오염물질 배출 단속의 악순환이 되풀이될 것임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김교수와 환경부가 벌이는 공방을 보며 환경부의 대응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수돗물에 인체에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나왔다는 학계보고가 있었다면,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즉각 조사에 나서야 한다. '수돗물 수질기준 적합'만 되뇔 상황이 아니다. 환경기준은 엄격할수록 좋다. 검사기준이 선진국의 30%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정성운 기자

불교의 눈 — 지수화풍 조화잃으면 발병

상수원 수질관리를 단속 위주에서 사전예방 대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지천의 오염원을 파악하고 오염유발시설을 옮기거나 한군데로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부득이 현지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대형건축물이 들어선다면 하수처리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엄격히 시공토록 점검해야 한다. 하천의 자정능력을 높이기 위해 콘크리트 제방을 제거하고 자연상태로 복원하는 방법의 확산도 고려할 만 하다.

경전에서는 물이 곧 질병과 직결된다며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람의 몸은 지·수·화·풍(地水火風) 네 가지 원소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중의 어느 한 원소가 조화를 잃으면 백한 가지의 병이 생기고, 네 가지 원소가 함께 조화를 잃을 때에는 사백네 가지의 병이 동시에 생겨난다." 〈오왕경〉

잇단 기업부도…문어발 확장 '화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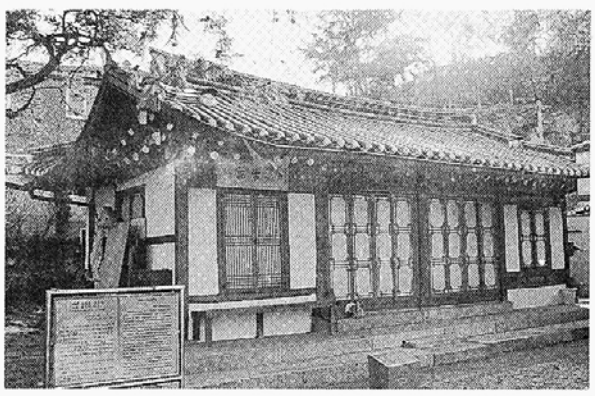
중도의 '삼매경영' 해야

노동법파문, 한보·기아사태, 연쇄부도, 금융대란, 외환위기, 주가폭락…. 올해 한국불교의 상징어들이다. 기업부도는 해당 업체뿐만 아니라 거래은행, 계열사, 종업원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경제에 깊은 주름살을 드리운다. 법정관리에 있는 업체가 이미 1백90개를 넘어섰다.

이런 가운데 최근 재계서열 24위의 해태그룹과 25위의 뉴코아그룹이 좌초했다. 무리한 사업다각화가 부도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해태그룹의 경우 90년대 들면서 '탈식품화' 전자·정보통신까지 손을 뻗었고, 급기야 사업확장→차입경영→재무구조 악화라는 다른 부실기업과 같은 과정을 밟았다.

연쇄부도가 이어지면서 금융기관들이 자금지원을 묶고 여신 회수를 종용하는 것도 부도 악순환을 되풀이하는 한 원인이다. 이런 여파가 흑자도산으로 이어져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경제위기 극복의 주역은 기업의 구성원들이다. 양극단을 버리라는 중도(中道)의 가르침을 기업경영의 근본원칙으로 삼아 '삼매경영(생활禪)'을 할 때다.

〈관련기사 8면〉



심우장 시민공원으로 만해스님이 입적하기 전까지 10여년 동안 머물렀던 심우장(尋牛莊·서울시 기념물 제7호)이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정비된다. 서울성북구는 3일 심우장을 매입, 99년 12월까지 진입로를 넓히고 주차장과 휴게소를 갖춰 2000년에 시민들에게 개방한다고 밝혔다. 심우장은 만해스님이 3.1운동으로 옥고를 치른 뒤 출옥한 1933년부터 44년까지 생활한 곳이다. 현재는 만해스님의 딸 한영숙씨가 거주하고 있다.

세계최고 로봇 우리기술로 개발

세계 최고수준의 이동로봇이 국내기술진에 의해 개발됐다. 한국원자력연구소 김승호박사팀은 4일 1초에 30cm, 어느 방향으로든 이동이 가능한 로봇 '캐롯(KAROT)'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5년 동안 8억원의 연구비를 들여 완성한 캐롯은 화성탐사 로봇 '소저너'보다 성능이 월씬 뛰어나다.

불우이웃에 아파트 20채 기증

경기도수원의 늘푸른주택 대표 박정수씨가 시가 15억원대의 15~20평형 새 아파트 20가구를 소년소녀가장 등 불우이웃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3일 여주군에 기증해 각박한 세태에 훈훈함을 더해주고 있다. 소외계층과 더불어 사는 교육사업가로 변신하는 것이 박씨의 꿈이다.

부부 사회사업가 세계평화상 수상

44년간 부랑인들을 돌봐온 부부 사회사업가가 세계평화봉사단이 수여하는 세계평화상 열매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화제의 주인공은 전남해남 희망원 김정길이사장과 임숙재원장. 그동안 희망원을 거쳐 자활한 고아와 부랑인은 3천5백여명, 현재도 2백31의 부랑인이 생활하고 있다.

MS사 소프트웨어 고대사 왜곡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10월말 전세계에 출시한 역사시뮬레이션게임인 '제국의 시대(Age Of Empire)' 가운데 과거 가야지역을 일본 야마토왕조의 식민지로 표현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이는 일본의 임나일본부설을 그대로 채택한 것으로, 미국 유럽 등의 청소년들에게 고대 한국을 일본의 식민지로 보게 될 우려가 높아 정부차원의 시정노력이 요구된다.

美 아이스크림 또 리스테리아균

식품의약품안전본부는 3일 국내에 수입, 판매되는 미국 쓰리프티페이레스사의 아이스크림 26개 품목 가운데 6개 제품에서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됐다고 밝히고 해당 제품에 대해 압류 및 판매금지 조치했다. 10월 22일에도 쓰리프티사의 2개 아이스크림에서 리스테리아균이 발견됐다.

걸프지역 戰雲…원유가 급등

이라크의 미군 정찰기 격추 위협에 대해 미국이 군사제재 가능성을 시사해 걸프지역에 다시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원유가가 크게 오르고 있다. 북해산 브렌트유가 3일 런던시장에서 37센트가 급등, 배럴당 20.45달러에 거래 되고있다.

이렇게 들었다

내년부터 멸종위기에 처한 반달가슴곰, 크낙새 등 야생 동·식물을 포획하다 적발되면 최고 5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등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는 멸종위기 동·식물 42종과 보호대상 동·식물 1백83종을 선정, 이를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에 반영시켜 내년 1월부터 단속한다고 10월30일 밝혔다. 이와관련 경전상의 '동·식물 사랑'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 주〉

동식물 사랑 — "내 몸과 바꾸어 비교하라"

▨비둘기는 매에게 쫓겨 시비왕(부처님의 前身)의 겨드랑이에 숨어서 구해줄 것을 애원했고 조금 뒤에는 매가 와서 먹이인 비둘기를 달라고 다그쳤다. 왕은 일체중생을 구하는 것이 원이기 때문에 비둘기를 놓아줄 수 없다는 말로 거절했다. 그러자 매는 말했다. "왕은 모든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 원이라고 했는데 저는 일체중생에 속하지 않습니까? 왜 저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오늘의 먹이를 빼앗아 가는 것입니까?" 이에 왕은 자기의 넓적다리 살을 떼어 저울에 얹었다. 그러나 비둘기 만큼의 무게가 되지 않자 다른 넓적다리 살마저 떼어 주었다. 〈대지도론〉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외아들을 아끼듯이,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 한량없는 자비심을 내라. 〈법구경〉

▨여러마리 짐승들을 잡아매어 죽이거나 괴롭게 하며, 하인이나 머슴들은 매질로 다스려 그들을 슬피 부르짖게 한다. 나는 이러한 것을 칭찬하지 않는다. 그것은 큰 죄악이기 때문이다. 〈잡아함경〉

▨그들을 내 몸과 바꾸어 비교해 보아라. 산 생명을 죽여서는 안된다. 또 남을 시켜 죽이게 해서도 안된다. 〈숫타니파타〉

▨욕심으로, 화냄으로,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산 것을 죽인다는 것은 모두 그 죄가 크다. 〈정법념처경〉

▨재를 베풀고 보시를 할 때에도 그는 소를 죽이는 일 없고, 남의 소도 자기 것처럼 여기네. 이러한 이치가 있는 줄 알아 소 죽이기를 즐기지 않느니라. 〈중아함 범파라연경〉

▨사문은 생물을 죽이지 않고, 생물을 죽이게 하지 않으며, 생물을 죽이는 일에 함께 하지 않는다. 〈중아함 우담바라경〉

▨백의(白衣)의 성(聖) 제자는 살생을 떠나고 끊으니 부끄러움과 자비심이 생기고, 이윽고 일체 생물을 유익하게 하는구나. 〈중아함 우바새경〉

▨너는 인간에 있을 때에 아이들을 살생하고 고기 먹는 것을 돕거나 기뻐하였으니, 살생한 까닭에 목숨이 짧고 기뻐한 까닭에 괴로우니라. 이제 똑같은 과보를 받고 지옥에 들어가리라. 〈귀문목련경〉

▨보살들은 길 다닐 적에 산 풀도 함부로 밟지 않는 것인데, 하물며 손으로 뽑을 것인가! 대자대비를 한다면서 어찌 중생의 피와 살을 먹을 것인가. 〈계율부〉

▨살생은 자비의 종자를 끊는다. 〈계율부〉

생활정보

무료건강검진 실시

인천의료원 28일까지 부정맥 검사와 당뇨병 검진 등 무료검진. (032)580-6023

광진구보건소 30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10시 당뇨 교실, 매주 목요일 오전10시 고혈압 교실 운영. (02)450-1424

한국성인병예방협회 18일 한국제약협회 4층강당에서 '건강증진법과 뇌졸중' 무료강좌. (02)588-14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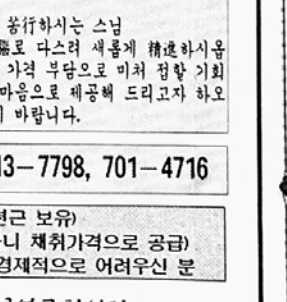
생활상품 생광석 베개·허리벨트

생명의 빛을 내는 신비의 광물 '생광석'. 강원도 영월 지역에서 생산되는 생광석은 범새제거와 살균·보온·혈액순환 및 신진대사 등에 좋은 효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세계적 희귀 소재이다. 이 생광석을 원료로 만든 베개, 비누, 자동차용 온돌방석, 허리벨트, 양치질용 파우더, 냉장고용 범새제거제 등이 나왔다.

열을 가하거나 다른 물질을 첨가하지 않고도 스스로 방사하는 파장이 인체의 분자운동 파장과 같아 현대인들의 각종 성인병 치료 및 예방에도 큰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다. 또 생광석에 물을 뿌려 사무실 적당한 곳에 놓아두면 실내 습도를 자연 조절해 내부 공기를 맑고 쾌적하게 정화시키는 역할도 한다.

우수한 열전도율을 이용 건축용 자재로도 사용되는 등 용도가 다양한 것을 감안 고객들의 요구에 맞는 새로운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 출시할 예정이다.

가격은 냉장고 범새제거제·화장비누(1만5천원), 파우더(3만8천원), 베개(5만5천원), 허리벨트(7만5천원), 온돌방석(16만5천원)



(주)새로나광업.
(02)737-0695, (0373)73-2341

기(氣)와 영기(靈氣)가 충만한 만다라 스티커



우주에너지의 결집체인 만(卍), 이 卍으로 만법계진(卍法界陣)이 처져 있는 만다라(卍多羅) 스티커는 무량한 수의 불·보살님의 법신이 들어 있어 여러분의 재앙을 막아 주며 행운을 줄 것입니다.

기(氣)와 영기(靈氣)가 가득한 만다라의 세련된 제품으로는 시계·넥타이·옷·방석등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법신은 우주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 용(用)을 모른다면, 과연 가피를 받을 수 있을까요!

「卍의 위대한 힘」- 김종성 著
· 보련각 발행 참고 ·

이 만다라는 보는 것만으로도 힘과 지혜가 생기며 순간적 불의와 재난 〔수재·화재·강도·질병·교통사고〕 등이 예방됩니다.

사고를 예방하지만, 만약에 사고시 차는 꾸겨져도 사람은 살아 나오는 위대한 기력(氣力)·영력(靈力)·신력(神力)등이 있으며, 특히 영가 〔귀신〕 병에 효과가 좋습니다.

이 만다라 스티커를 부착하면,
① 잡귀(雜鬼)·악신(惡神)등을 물리치는 힘.
② 병약·허약자 영가병자를 위한 힘.
③ 업장소멸과 기도성취를 위한 힘.
④ 지혜증장 학업성취 시험운을 위한 힘.
⑤ 사업운 금전운을 돕는 힘.
⑥ 대인관계의 원만한 화합의 힘. 이외에 피로가 덜 해지고, 물은 감로수로 변하고, 술·담배·커피등이 순해집니다.

● 1셋트 6장 18,000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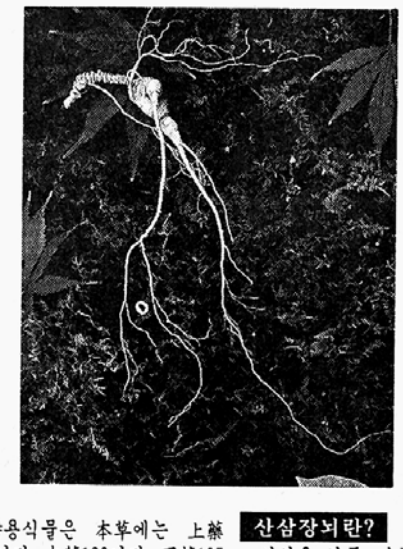
서울 강서구 화곡3동 1013번지
대한불교 원심선원
02)606-2153 · 5691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奉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의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용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세상의 어떤 약용식물도 모두아래에 불과하다고 기술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중 장뇌란 삼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전화 주문처 서울(02)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150년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상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한국생약보존(산삼)연구협의회
서울「장뇌산삼」사업부

시론

문화대국의 길

우리나라는 최근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세계 문화및 자연유산 보호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으로 당당히 당선됐다. 세계 33개국이 경합을 벌여 7개국을 선발한 이번 결과는 문화대국으로서의 우리나라의 위상을 확인케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걸치레 문화정책 없었나

더구나 서울 용산에 세워지는 새 국립중앙박물관이 기공식을 갖고 2003년 완공을 목표로 6년간의 대 역사를 착수한 시점과 맞물려 느껴지는 국민적 감회가 더욱 크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불국사 석굴암 부처님, 해인사 팔만대장경, 종묘와 수원화성에 창덕궁이 추후 등재될 예정인 현실에서 세계적 규모의 국립중앙박물관이 건립되는 상황은 문화선진국으로서의 세계유산 위원국임은 당연하기까지 하다. 그러나 우리의 내부 사정은 세계문화유산 위원국답지 않은 측면이 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정 영 호

〈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교수〉

우선 문화예산을 들수 있다. 국가 총예산의 0.6% 밖에 안되는 우리의 문화예산은 문화선진국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은 겉으로는 제법 문화유산을 소중히 여기는 듯 하지만 막상 기리고 보존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산편성때는 인색하다. 예산을 삭감해야하는 때에는 가장 먼저 손을 대는 것이 문화예산이다. 그래서 문화투자는 용어자체도 서먹서먹할 뿐만 아니라 적어도 전체 예산의 1%는 책정하는 선진문화국에 준할 수 없는 실정이다. 21세기를 대비한 '문화비전 2000' 보고서를 살펴도 선언성과 상징성이 앞선데다 사업이나 행사들이 당장 눈에 보이는데 치중했다는 평이다. 혹시 이것도 1회용 전시효과를 포석에 둔 사업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이것은 특히 문화정책들을 근사하게 포장해 잠시 보여주고 선언하는데 급급해온데 익숙한 우리 국민들이 가질 수 있는 우려의 일단이다.

우리의 문화정책을 되짚어 보자. 경제논리나 정치정략에 밀리고 희생되는 것이 문화정책이다. 대표적인 역사도시 경주만 하더라도 보존하려는 노력대신 고속전철을 도심한가운데를 관통하려하다 무산되고 말았다. 조금 잠잠해지는가 했으나 이번에는 도시를 온통 고층아파트로 둘러치더니 경마장을 건설한다, 황성공원 안에 실내 체육관을 세운다는 등 앞다투어 개발할 꿈으로 가득차 있다. 크고 작은 선거때마다 보존에 대한 의지보다는 개발이 곧 경제부흥인양 내세우기 바빴던 것이다. 극단적으로 표현해 정치인들이 문화를 정치의 도구로 쓰고 있기 때문이다. 마침내 지금의 경주는 공장의 숫자도 1천개가 가까워졌다고 한다.

특히 지자체가 실시되면서 더욱 두드러진 현상중 하나가 개발논리에 밀린 우리의 문화유산의 현실이다. 골프장 설치다 대단위 위락시설 조성이다 나아가 아파트 건립 등 경제적 잇속만 앞세우면서 문화유적지를 마구 파헤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돌이켜 보면 우여곡절 끝에 신축 기공식을 가진 새 국립박물관만 하더라도 국민 감정에 영합해 아무런 대책없이 먼저 총독부 건물을 부수기에 바빴다. 장기간 휴관이 불가피해졌고 문화대국은 국립중앙박물관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한 나라를 알고 싶으면 먼저 그 나라의 박물관에 가보라는 얘기가 있다. 우리 민족이 걸어온 발자취와 문화를 보여주는 박물관은 우리 자신의 얼굴이나 다름없다.

후손에 문화자부심 심자

유네스코가 선정한 세계유산보호국이 된 시점에서 세계인이 생각하는 기대에 우리 스스로 부합하는 과제가 남았다. 문화외교의 성과로 그치는 것이 아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위정자들의 문화인식과 문화관의 정립이 시급하다. 이것은 문화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밑거름이 되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바뀌고 관계장관이 다시 임명되어도 문화정책의 큰 맥은 꾸준히 이어져야 한다. 그리고 문화예산이 대폭 확대돼야 한다. 정부예산에서 충분히 문화선진국답게 편성돼야 할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문화인식과 함께 더욱 세제와 지원혜택을 확대시켜 기업참여를 유도해야할 것이다.

열린마당

말사주지 공채

말사 주지 임명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조계종 제10교구 은해사는 작년부터 일부 말사 주지를 공채형식으로 선발, 최근 3번째 말사주지 공개 채용 공고를 냈다. 말사주지의 공채는 문중을 초월한 주지채용과 사찰의 특성 살리기라는 측면에서 호응을 얻기도 하지만, 정착되기는 힘든 일시적 제도라는 우려도 적지않다. 조계종 종헌 제93조에는 "본사주지는 말사주지의 임면을 당해 말사주지 임기만료 2개월전에 총무원장에게 품신하며 총무원장은 말사주지 임기 만료일 전에 이를 임면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말사주지의 공채는 획기적 인사채용방안이지만 정서상의 문제는 남는 것이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말사주지의 공개채용에 대한 의견을 들어 본다. 〈편집자 주〉

법타〈은해사 주지〉



사찰 특성살리기 극대화 소임자의 능력 십분활용

말사주지를 공개 채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찰의 특성과 지역 정서에 합당한 주지를 임명해 포교와 가람수호의 효과를 극대화 하자는데 있다.

인각사의 경우 피폐한 천년 가람을 새로 일으킬 원력이 있는 스님을 필요로 했고 제석사의 경우 원효스님의 탄생지이 위치한 사찰의 특성을 잘 살려낼 수 있는 스님을 필요로 했다. 그 결과 훌륭한 스님들이 각 사찰에서 소임을 맡을 수 있었다.

세번째로 주지 공채 공고를 낸 청송 수정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청송은 교도소와 감호소가 있는 지역이다. 때문에 수정사의 공채주지는 교도소와 감호소 포교에 적격자여야 한다. 이 같은 특수포교는 원력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본사의 지원이 크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다. 능력과 원력 그리고 지역민들과 화합할 수 있는 덕성이 고루 갖추어진 스님이라야 한다.

말사 주지소임을 공채한다는 것은 그 소임에 어떤 프리미엄을 주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해당 사찰의 실정을 공개해 그에 수행과 전법의 의지를 불태우고자 발원하는 스님을 가려 모시는 것이다. 사찰의 특성화 차별화를 위한 가장 근원적인 조건을 공개적인 주지 인사를 통해 실현하자는 것이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문중 내부의 갈등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미 공채라는 과정이 그러한 문제를 사전에 감안해 무리없는 인물을 선정한다는 의미이니 말이다.

또 본 말사간의 유대문제도 큰 걱정거리가 아니다. 특정 사찰에 대한 특화의 필요성은 세간에서나 승가에서나 이미 오래전부터 절실히 느껴왔다. 그런 사찰특화의 노력이 본사차원에서 진행되는 만큼 현실적인 갈등 요인은 우선적으로 차단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말사주지의 공채를 통한 사찰의 특화가 포교와 가람수호 지역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이 제도가 보다 확대되길 기대한다.

정락〈용주사 주지〉



공채후 합리적지원 관건 불교사회화 촉진 기회로

말사주지의 공채는 상당히 이상적인 임명방식이다. 특히 말사들의 독특한 특성을 살려 포교와 수행의 공간으로 자리잡아야 한다는 면에서 그에 합당한 주지를 공개 채용해 임명한다는 것은 불교의 사회화에 대한 상당한 기대를 가능케 하는 것이다. 현재의 말사주지 임명제도는 말사들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다. 소위 인맥에 의한 주지임명이 갖는 폐해로 사찰의 대사회적 기능이 저하된다는 우려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이다.

그런데 공개채용 형식을 통해 주지를 임명한다는 것은 그 지역과 사찰의 특성에 맞는 소임자를 공정하게 골라 임명한다는 것이니 얼마나 합리적인 일인가. 공개적으로 채용된다는 것은 스스로 일할 의욕과 계획이 있어 소임을 원하는 사람에게 고른 기회를 준다는 것이기도 하니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된다. 공채주지는 바로 수행과 전법은 물론 사찰의 특성과 지역정서에 부합하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아직 이 제도가 폭넓게 시행되지는 않지만 염려스러운 부분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공채주지가 충분히 능력을 발휘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주느냐에 이 제도의 성패가 달렸다고 본다. 말사주지의 공채가 단지 '마땅한 인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찰의 특성에 맞는 소임자를 선발한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공채 이후의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다. 보다 단적으로 말하면 공채된 주지와 본사 그리고 다른 말사간에 긴밀한 유대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안된다.

본사주지가 바뀌는데 따라 말사주지의 이동도 심한 현실에서 과연 공채주지에게 충분한 시간과 지원을 할 수 있느냐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말사주지의 공채가 장기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란 전제아래 종단적으로 법적 보호장치를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스럽다 하겠다.

대원〈공채 인각사 주지〉



원했던 소임 사명감 더 커 결과만 보려는 시선 '부담'

작년 10월 말일자로 인각사의 주지임명장을 받았다. 첫번째로 공채주지직을 맡으면서 나는 어깨가 무거웠다. 그 이유의 하나는 공채라는 새로운 방법에 의해 주지직을 맡은 것은 내가 스스로 원했다는 점이다. 내가 원한 주지직에서 나는 열과 성을 다해 수행하고 일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명감을 더욱 깊게 느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공채 그 자체가 나에게는 부담감일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회피하거나 거부할 부담은 아니다. 어차피 내가 선택한 사찰이고 내게 일할 기회가 주어진 사찰이 아닌가. 내 수행의 인연이 맺어진 사찰에서 분골쇄신 수행과 불사를 둘 아니게 여기고 정진하고자 하는 마음 뿐이다. 또 하나 내 어깨가 무거웠던 것은 인각사라는 사찰의 특성이다. 인각사는 일연스님이 〈삼국유사〉를 저술한 역사적 가치가 큰 도량이다. 그런데 도량은 매우 스산하다. 나는 어쩌면 할 일이 많은 절이라는 점 때문에 주지직 공채에 응했을 것이지만 일이란 언제나 현실이므로 쉽게 풀리지만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나의 어깨는 무거울 수 밖에 없었다.

이제 공채주지 1호의 소임이 시작되고 1년이 흘렀다. 인각사가 수몰위기에 처해 그 일로 8개월가량을 정신없이 뛰어야 했고 결국 수몰의 위기는 벗어났다. 그 기간동안 나는 다른 일은 거의 할 수 없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공채로 소임을 맡은 주지가 지난 1년간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를 궁금해 한다. 성미가 급한 탓일 수도 있겠지만 공채주지에 대한 기대의 표현이기도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공채주지는 누구보다 남의 시선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일에 대한 의욕과 열의를 긍정적으로 보는 한편 무엇인가 빨리 눈에 보이는 일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는 심정을 다 만족시켜 주기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공채주지의 사명이고 수행이 아니겠는가.

심익섭〈동국대 행정학과교수〉



종무행정 효율운영 계기 문중중심 전통과 조화를

은해사의 말사주지 공채는 상당히 획기적인 제도라고 본다. 21세기를 앞두고 각 지방 교구본사들이 독특한 종무행정을 기획해 시행한다는 것이 눈에 띄는 것이다.

조계종의 주지 인사는 더러 말썽의 소지가 되기도 했던 저간의 사정을 감안하면 말사주지의 공개채용은 장기적으로 볼때 매우 발전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그간의 관례나 전통과 어떻게 조화를 이뤄 나갈 것인지는 아직 더 두고 봐야 할 일인 것 같다.

말사주지의 공개채용과 관련 우선 생각해야 할 것이 문중중심의 불교전통이다. 불교에는 문중중심의 정서적인 유대가 매우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 말사의 주지가 문중을 초월해 기용되었을때 해당 주지스님의 활동력에는 이러한 문중간의 결속력 여부가 큰 관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단지 종무행정의 효율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문중의 정서가 흐트러지는 경우가 생겨서는 안되는 것이다. 아직까지는 문중개념을 초월한다는 것이 어느 경우에건 약간의 무리가 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물론 본사에서 공개채용을 한다는 자체가 문중의 정서라든가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가장 합당한 인물을 선택한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기는 하다. 하지만 공채 주지에 대한 활동력 제고와 관련 본사가 끊임없는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문중을 초월한 발전적 결속력의 유지에 이 제도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봐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은 공채란 세속적인 방법이라는 것이다. 종단내에서 그간 시행해 오던 말사주지 임명의 전통적인 방법이 공채라는 세속적인 방법으로 열려진다는 것에 대한 승가내의 반론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문제 역시 문중개념을 초월해 현대사회를 향한 열린행정의 실현이란 긍정적 측면을 승가 내부에서 인정하는 분위기 속에서 풀어져야 할 것이다.

난치병 치료

수백년 비전된 한방 의술로 난치병, 불치병을 치료하고 있는고봉선생은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한약재로 만든 환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후 3년이내),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천식, 신경성위장병, 심부전증, 관절염, 백혈병등 에 탁월한 효과

※ 당뇨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치료합니다.

■ 진료 : 매주 목요일, 일요일

▲ 주변에 병고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요?
▲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실패 한 분께 권해드립니다.

전화문의 : (053)628-9145
(053)655-3027

대구여래한방

한국역학대학

(97년 제2기 신입생 모집)

본 대학은 짧은 연한에도 불구하고 국내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으며, 기존에 많은 부분 왜곡되었던 동양철학(역학)을 현 실정에 맞게 체계적으로 교육하여 올바른 역학인(카운셀러) 양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1. 교육기간 및 과목
- 교육기간 : 6개월
- 교육과목 : 명리학. 주역

■ 2.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제출서류	접수기간	전형방법
30명	입학원서:1통 주민등록등본:1통 반명함판 사진:1매	97년 11월 1 ~ 11월 29	서류전형 및 면접

■ 3. 특 전
- 본대학 졸업장 수여 및 본 대학 졸업자들로 구성된 〈역학연구회〉의 회원으로 위촉함
- 개업을 원하시는 분께는 적극 지원
- 졸업후에도 〈역학연구회〉를 통한 지속적 교류는 물론 역학정보 제공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 및 방문 요망

한국역학대학

서울 송파구 송파 1동 15-3 해광 B/D 4층

대표전화 (02) 423-6446

제137차 수련모임

인간완성, 현세해탈, 완전건강

시민참선수련 전문지도

물질문명에 찌든 현대인은 이제 누구나 참선할 때입니다.

선(禪)은 수십세기의 경험이 축적된 가장 확고한 정신통일법이며 인간완성법(깨달음)입니다. 참선공부는 인간내면을 평화롭게 하고 외면을 아름답게 하며 긴장과 경쟁이 극심한 현대인에게는 최선의 심신건강법이기도 합니다.

본회는 1981년에 부산 대구에 도장을 개설 명상수행과 도가의 학을 함께 지도해왔습니다. 이번에 서울도장을 개원하게 되어 참선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종교종파를 초월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수련초점 / 좌법, 호흡법, 명상식사법, 도인체조, 단식법
◆ 지 도 자 / 이성담(李星潭) 선생
명상의 스승. 평생동안 1일1식. 참선 생식. 단식으로 일관해 왔으며 도가의학을 집대성 참선명상과 함께 인류의 완전건강법을 지도하고 있다. (저서 33권)

●수련기간 / 3개월('97년 11월 22일(토)~'98년 2월 7일(토)
●수련일시 / 매주 토요일 오후 6:00~9:00(3시간씩)
●지도방법 / 강의 30% 실참50% 문답20%
●첫 모 임 / '97년 11월 22일(토) 오후 6:00
●신청마감 / '97년 11월 20일(목) 정원 30명 신청순서로 마감
●신청방법 / 먼저 전화로 신청하시고 첫모임시 수련참가신청서 작성함

전화 (02)575-0130~1

※전화신청은 매주 목·금·토요일 오후 1:00~6:00 사이에만 받습니다.

●장 소 / 본회 서울도장〈강남구 포이동 225-1 영풍B/D 2층〉

※ 포이동 삼호물산 맞은편쪽 평화은행 뒷쪽 태광전기골목으로 20M 진입. 남방사신과 뒷편(전철3호선이용 양재역하차 5번출구이용, 서초사회복지관앞에서 마을버스이용 삼호물산에서 하차)

한국참선명상협회 · 도가양생학술원

도장 : 서울(02)575-0130/부산(051)501-8335~6/대구(053)742-9194

체력보강을 원하십니까?

마르고 허약하십니까?
아무리 드셔도 살이찌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 제11호

자보령 포르테

허약하고 마른체질은 아무리 좋은걸 드셔도 체내에서 영양분 흡수를 못해주는 경우가 있다. 이런체질은 영양분 흡수력을 높여주는 근본적인 체질을 바꿔주는 게 중요하다.

자보령포르테는 자라를 주원료로 하여 녹용, 다시마, 로얄제리, 대두레시틴, 키토산, 비타민E, 식용달팽이 엑기스등을 복합하여 식욕을 증진시키고 학생이나 수험생, 노약자 갱년기, 병후병중 회복기, 허약체질, 신경체질 살이 안찌는 체질을 살찔수 있는 체질로 개선시켜주므로 살찌고 싶은분에게 꼭 자보령포르테를 권장하고 싶다.

삼진키토산, 하이칼슘 D를 첨가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제조원 건강식품을 이룩하는 — 판매원
일진제약(주) 일진제약(주) 식품사업부

■ 문의전화
080-061-1700
080-061-0707

이 전화는 『일진제약 식품사업부』에서 요금을 부담합니다. 착신번호이 착신후 참조해 주십시오.

종단소식

조계종

통도사 본말사 주지연수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월파)는 4일부터 5일까지 양일간 설법전에서 본·말사암주지연수회를 개최했다.〈사진〉 1백20여 사



찰 주지(감원)스님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번 연수회에서는 전통사찰보호법, 불교사회복지의 전망과 과제, 교육원의 향후 사업방향에 대한 강의와 포살법회, 종단현황에 대한 질의응답, 주제토론 등이 진행됐다.

태고종

봉원사 명부전 상량식

서울 신촌 봉원사(주지 김대운)는 1일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명부전 상량식을 봉행했다. 극락전 앞에 위치한 명부전은 40평 규모로 올해 말 완공될 예정이다. 대운스님은 "명부전 건립으로 종단 중심사찰로서의 역할에 더 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청소년 친선 체육대회

한국불교청년회(회장 도각)는 2일 진선여자중·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참나 청소년 합동 친선체육대회를 열었다.

각 사찰 청년회원들의 친선도모와 건전한 청소년문화 선도를 목적으로 열린 이번 체육대회에는 안정사, 불광사 등 각 사찰 청년회원 1백50여명이 참가해 축구, 농구, 족구, 달리기, 발야구 등의 경기를 펼쳤다.

태고사 신도 성지순례

북한산 태고사(주지 김청암)는 12일부터 14일까지 2박3일간 신도들을 대상으로 국내성지순례를 실시한다. 성지순례단은 대구 갓바위, 해인사, 통도사, 남해 향일암 등을 참배할 예정이다.

천태종

전국 청년회 단합법회

총무원(원장 운덕)은 8~9일 양일간 전북 무주리조트에서 청년회원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청년회 단합법회를 가졌다.

이번 단합법회는 첫날 50여개 지부별 장기자랑과 토론에 이어 둘째날에는 무주 동계유니버시아드 기록영화 관람과 산행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삼덕사 원통보전 낙성

충남 금산 삼덕사(주지 김세운)는 9일 원통보전 봉불식 및 낙성식을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총정 도용스님, 총무원장 운덕스님과 종단간부, 지역내 각급 기관장 등 사부대중 1천여명이 참석했다. 원통보전은 2백10평에 2층 규모로 3년여 공사끝에 완공됐으며, 80평 규모의 요사채도 이날 함께 완공됐다.

삼광사 신도회 창립28돌

부산 삼광사(주지 덕수)는 1일 대법당에서 신도회창립 28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주지 덕수스님을 비롯해 문정수 부산시장, 하계열 진구청장 등 신도 2만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1부 기념법회에 이어 2부 예술제로 진행됐다. 예술제에서는 동국대 국악관현악단과 삼광사 화엄합창단의 합동연주회와 15개 지회별 장기자랑이 펼쳐졌다.

진각종

5백여명 수계관정불사

통리원(원장 성초)은 10일, 11일 서울 탑주심인당과 대구 희락심인당에서 진기51년도 삼매야계단 보살십선계 수계관정불사를 각각 봉행했다.

계사는 증명아사리에 각해 총인, 전계아사리에 도흔종사, 갈마아사리에 혜일종사, 교수아사리는 지광종사가 맡았으며, 모두 5백여명이 수계를 받았다.

원융종

동원불교대 1기 졸업식

동원불교대(학장 법장)는 12일 원융사에서 제1기 졸업식을 거행했다. 이번 졸업생은 20명으로, 전원이 종단소속 스님이다. 총무원장 보인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종단발전은 부단한 교육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며 "오늘 졸업식을 새로운 시작으로 삼고 더욱 열심히 정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알림 본란은 각 종단의 주요 공지사항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란입니다. 각 종단 총무원 및 지방 종무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게재해 드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부처님 고향에 심는 '자비'

'이웃을 돕는 사람들' 네팔에 종합복지타운 기공

병원·법당 등 내년 11월 완공

직업훈련소도 마련 가난 퇴치

'부처님의 나라' 네팔에 한국불교가 지원하는 종합복지시설이 들어선다.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부설 '이웃을 돕는 사람들(회장 송산스님)'은 14일 네팔의 수도 카투만두 바라주지역에서 직업훈련 등의 기능을 갖춘 종합복지시설 '아침을 여는 작은마을(Bihani Basti·비하니 바스티)' 기공식을 갖는다.

대지 1천6백여평 연면적 6백평의 3층건물로 들어설 '아침을 여는 작은마을'은 98년 11월 완공을 목표로 총 공사비 2억여원이 투자된다.

'이웃을 돕는 사람들'은 이 종합복지시설이 완공된 후 △직업훈련소 △무료급식소 △법당 △병원 △기숙사 등의 시설을 갖추고 현지 빈민구제활동과 함께 미싱, 전기배선, 컴퓨터 등의 교육을 통해 매년 1백20명씩 기술자들을 배출시킬 계획이다.

또 외국인투자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네팔 현지의 사정을 감안, 현지에서 실질적 업무를 담당할 '네팔 붓다서비스센터(이사장 크리슈나 구릉)'를 구성하고 5월 법인등록을 미쳤다. 대학교수, 의사, 변호사 등 15명의 이사진으로 구성된 네팔 붓다서비스센터는 한국에서 노동자로 일해 한국어가 가능한 네팔인 4명과 함께 훈련소 교육 및 행정업무를 맡는다.

한편 3천여명의 회원들이 매월 2천원씩 낸 후원금으로 부지매입을 마친 '이웃을 돕는 사람들'은 건물 완공에 필요한 재정확보를 위해 아침을 여는 작은마을 법당에 봉안할 '천 이백오십 아라한상' 조성 불사를 계획하고 있다.

또 10월30일 이사회의에서는 네팔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12월 중순경 이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웃을 돕는 사람들' 위정회부장은 "네팔사업추진위원회 내에 의약품, 생활용품, 1대1인 후원 등 다양한 형태의 후원모임을 두고 불자들이 원하는 방식에 따라 후원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범종단 차원으로 네팔사업추진위원회 구성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기자〉

이웃을 돕는 사람들 김동혼 이사장



"빈민구제 통해 한국불교 전할터"

▲'아침을 여는 작은마을'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 네팔인들은 '아침'이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한국'을 떠올린다고 합니다. '서비스 센터'라는 형식적인 명칭보다는 친밀한 느낌을 줍니다.

▲'아침을 여는 작은마을'의 설립 의의가 클텐데요.

- 부처님이 태어나신 곳이지만 사실상 네팔의 불교인구는 8%에 불과할 뿐아니라 대부분이 직업이 없는 빈민자들입니다. 그동안 받은 것을 회향하는 한국불교 복지사업의 국제적 진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복지센터 설립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 네팔에 한국불교를 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봅니다. 무료급식 등 실질적인 빈민구호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네팔인들에게 다가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교각 스님 '서라벌 귀국'

중국에서 지장보살로 추앙받는 김교각스님(696~794)의 동상이 탄생 1천3백여년만에 고향인 경주 불국사에 봉안됐다. 지장보살 김교각상 한·중합동봉안위원회(위원장 설조)는 4일 불국사 무설전에서 청하(통도사 부방장), 인덕(중국 구화산 방장) 스님 등 사부대중 5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안법회를 봉행했다.

〈관련인터뷰 4면〉

성도절 행사 연합법회 추진

대구사원련총회

대구광역시 사원주지연합회(회장 원명)는 3일 수성구 청소년수련관에서 제15차 정기총회를 갖고 98년도 주요 사업계획(안)을 확정했다. 또한 임원진 개편과 회칙개정 등의 안건도 처리했다.

이날 확정된 98년 사업계획(안)은 성도절 기념법회(1월6일 대구실내체육관), 달맞이 방생법회(2월11일 갑포 나정해수욕장) 등이다. 개정된 회칙은 본회의 회장과 임원회가 산하 법인인 (사)마하야나불교문화원의 이사장과 법인이사회를 각각 겸하도록 규정하여(12조, 18조) 불교회관건립등 사업추진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했으며 부장급 임원의 수를 축소조정했다.

새로 선임된 임원은 수석부회장 태일스님(통천사) 사무총장 혜담스님(임휴사) 등이다.

한편 사원련은 새회원으로 화성사(종묵) 죽림정사(정우) 청룡사(덕해)의 가입을 승인했다.

케이블TV 시청률 조사

15일까지 전국 8개지역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조경목)는 불교TV를 비롯한 케이블TV 프로그램 공급사들을 대상으로 15일까지 시청률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시청률 조사는 서서울·수원·대구 동구 등 8개 지역방송국 관할 시청가구가 대상이다.

14년 연구끝 '금빛기와' 개발

경남 울주 오세필씨 구인사에 기와 공급

한 기와장(匠)이 14년간의 연구끝에 금빛기와를 굽는데 성공해 화제다. 경남 울주군 온양면 동상리 동광기와 오세필씨(46). 4대째 가업을 이어가며 기와굽기 외길인생을 걸어온 오씨는 84년 금빛기와 제작에 들어가 14년만에 성공했다.

오씨가 개발한 금빛기와는 점토로 만드는 일반기와와는 달리 백자제작용 흙에다 자체



개발한 유약을 사용, 1천2백60도 이상의 고열로 구워 금빛정이 피어나게하는 것이 탄생의 비결이다.

오씨가 생산한 금빛기와는 여름부터 구인사 조사전 신축공사에 사용되고 있다.

전일본불교회

고베지진 희생자 추모

창립 40돌 맞아 '세계적 자원봉사단체' 선언

종파를 초월한 일본의 불교도 연합단체인 전일본불교회(이사장 시로하타 노리유우)는 10월 16일 고베시 나가다현 문화체육관에서 1천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40주년 기념대회를 개최했다.

94년 고베지진 희생자(6천5백여명) 추모를 겸해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추모법요식과 추모비 낙성식이 진행됐다. 특히 추모법요식에는 지진피해로 가설주택에 살고 있는 고베시민 5백여명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시로하타 노리유우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피해복구가 아직도 이뤄지지 않은데에 대한 반성과 사명감을 제고하기 위해 고베시에서 대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앞으로 지역불교회의 활성화와 세계적 자원봉사단체로 성장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날 대회에서는 '불교와 자원봉사'란 주제의 심포지엄도 진행됐다.

BBS 지방국 프로개편

부산 광주 등 3일부터

부산 대구 광주 청주 등 불교방송 지방국들도 개편을 단행, 3일부터 새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 불교부산방송(FM89.9MHz)은 '우리들의 찬불가'(월~토 오전 8시55분) '추억의 음악산책'(매일 오후 3시5분)을 신설했고, 'BBS게시판'을 자체제작한다.

○… 불교대구방송(FM94.5MHz)은 '열린불교 지혜의 샘'(월~토 오후 3시5분) '음악의 마을'(매일 오후 4시10분) '시사매거진 2부'(월~토 오후 7시25분) '산사의 향기'(일 오후 3시5분) 등으로 단장했다.

○… '문화채널'을 표방한 불교광주방송(FM89.7MHz)은 생활정보·문화예술·여가생활마당으로 꾸며질 '빛고을 저널 1·2·3부'(월~토 오후 3시5분)와 'BBS 뉴스채널'(매일 오전 3시25분)을 신설했다.

○… 불교청주방송(FM96.7MHz)은 생활불교 교리를 갈등인 '향기가 있는 찬불가'(일 오후 4시10분)를 신설하고 '라디오매거진'은 '우암산 전망대'(월~토 오후 4시10분)로 프로그램 명칭을 변경해 방송한다.

백화사설초

약(藥)이 되는 신비한 약용식물 『백화사설초』

암을 퇴치 예방, 각종 질병에 효과 입증

기적의 한국산 약초



★ 특허출원 제 26218호

신비한 약초로 생약업계에서 구전되어온 백화사설초(白花蛇舌草)가 지난 93년부터 우리땅에서 재배가 이루어져 최대의 화제가 되고 있다. 「함암과 소염」에 뛰어난 효능이 있는 생약재 백화사설초를 직접 재배하고 앞장서고 있는 사람은 김나진자 사장과 공급에는 불심원 원장 법현법사이다.

김나진자 사장은 30년간 청과물 도매업으로 그 분야에서는 성공을 했으나, 오랫동안 객지생활로 인한 각종 질병으로 정상적인 生活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부부는 양의는 물론이고 한방병원에까지 다녔으나 백약이 무효였다. 고통과 실망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중 우연히 친척 동생으로부터 「백화사설초」의 효능을 듣고 복용한 결과 혈액순환장애,위장병, 각종 염증성 질환, 피부병, 마비증상등의 합병증을 말끔히 치료할 수 있었다.

김사장 부부는 백화사설초의 덕택으로 모든 병들이 완전히 치료되어 새 생명을 얻고 이 사설초의 효능에 확신을 얻게 되었다. 그리하여 병원에서 치유불가능 선고를 받은 다른 환자에게도 권유 다른 약을 일절 쓰지않고 백화사설초만으로 꾸준히 병을 다스리며 치유하고 있다.

이들 부부의 회생하게 된 소식을 듣고 약초를 구입하게 된 사람들도 대단한 효과를 보고 공감하게 되었으며 불심원 원장 법현법사는 스님들과 2천만 불자들의 건강에 앞장서고 있다.

특징 및 효능

이 풀의 특징은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항체 형성을 촉진시키는 힘의 탁월함에 있다.

백화사설초는 청열해독약(清熱解毒藥)으로도 쓰인다. 「청열」이란 한량(寒凉), 약성(藥性)으로 체내의 이열(裏熱)을 내린다는 것이며, 「해독」이란 일반적으로 감염증의 발열이나 수반되는 병리변화 및 각종 독소로 인한 반응을 풀어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백화사설초는 약성이 한량하다. 이 열을 내리고, 체내의 응어리를 풀어주며 독소를 해소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한방용어로 청열·기어·소옹·해독이라고 한다.

※ 싱가포르대학 학장 이광선 박사는 "간암으로 홍콩의 권위있는 어느 병원에서 조차 치료약이 없다고하여, 백화사설초를 매일 150g씩 전탕해서 복용하니까 3개월만에 완치되었다."고 한다.

(「녹차와 약차」 동화문화사 刊, 신재용 생활필서 中에서)

■지금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백화사설초를 복용하시어 완쾌되시길 기원합니다.

각종문헌에 나타난 효능

◎ 항암본초(상민의 편저, 김수철 역주)
위암, 식도암, 직장암, 자궁암, 기타암증

◎ 묘약기방(조규형 저, 범진문화사 刊))
간염,장염,요초감염,맹장염,편도선염,인후염,각종 종기,타박상, 위암,직장암,간암,자궁경암,방광암

◎ 녹차와 약차(동화문화사 刊, 신재용 생활필서)
간염,장염,요도염,인후염,급성 충수염

◎ 백화사설초(진존인 저, 동도문화사 刊, 한방의학대사전중)
급성 충수염

■추천의 말

"백화사설초는 한의약의 대표적 항암생약이다." 한국자연생약보호협회장 이학박사 한영채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신비한 약용 식물인 백화사설초" 경남생약연구소장 약학박사 성환길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영신농산 (051) 465-5100, 467-5200

하남 용담사가 무너진다

팔당댐 상수도공사 영향…법당 붕괴-지하수 고갈

경기도 하남시 용담사(주지 법춘)가 수자원공사의 상수도공사로 인해 지반침하와 지하수가 고갈되고 법당과 요사채 곳곳이 무너지는등 폐사위기에 놓여있다. 또 수돗물 공급도 끊어져 매일 식수 2말씩 배달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대해 용담사와 성남사암련 총무 지현스님 성남신도연합회장 임선교법사등 10여명은 10일 팔당댐 상수도공사 현장을 방문하고 관정시추와 법당보수 요사채 신축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공사인 한국중공업 현장사무소측은 "사찰에 피해가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며 "현장을 실사하여 보·개수를 요구하는 민원을 갈리사인 한국기술공사에 제출하겠다"고 밝히면서도 "기술공법상 하자가 없는 만큼 조사결과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와 보상책임을 가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봄부터 시작된 팔당댐 상수도 공사는 용담사 지하로 굴착공사가 65% 공정으로 진행중이며 주변 배알미동마을 주민들과는 이미 보상비관계도 매듭지어진 상태다. 이런상황에서 올해 봄부터 지하발파로 인해 건물과 초목이 흔들리며 요사채의 지반이 침하되고 한쪽벽면이 무너졌으며 보일러시설도 훼손된 상태이다. 또 3군데의 약수터가 말라버리면서 식수와 생활용수 공급의 어려움에 처해있다.

임선교법사는 "지역불교계가 연합하여 이 문제가 원만하게 매듭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용담사 대책마련이 미진할 경우 대대적인 불자시위도 불사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용담사는 조선조 세종대왕때(서기 1418년) 득룡사로 창건돼 인조대왕이 다녀가는등 대찰이었으며 1960년 청담스님에 의해 용담사로 개명됐고 현재 6천5백여평부지에 법당과 요사채 2동의 건물이 남아있다.

〈하남=김원우 기자〉



◇수자원공사의 상수로공사로 법당과 요사채 곳곳이 무너지고 지하수가 고갈된 용담사.

송광사 불조전 비새고 선암사 만세루 기둥썩고 성보관리 '비상'

송광사 불조전과 선암사의 만세루가 지붕에서 비가 새고 기둥은 심하게 썩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송광사의 나한전 도성당 해청당과 선암사의 대웅전 응향각 설선당에서도 이같은 현상이 나타나 보수가 시급하다

이같은 사실은 순천시가 최근 90여점의 시내 문화재에 대한 보존 관리상태를 조사한 결과 밝혀졌다.

비지정문화재인 정혜사 대웅전 일주문 범종각과 동화사의 지장전 종각 등의 건물도 비가 새거나 기둥이 썩은 것으로 확인됐다.

순천시 관계자는 "올해 27억원의 예산을 들여 보수공사를 시행했거나 보수중이지만 이를 모두 완벽하게 보수하기에는 예산이 턱없이 모자란다"며 "내년에도 국·도비 14억1천만원을 책정, 원형훼손이 심각한 문화재부터 우선 보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운문비구니 승가대학원 20일 현판식

교계의 최초 비구니 전문강사 양성교육기관인 운문비구니승가대학원(원장 명성스님·운문사 주지)이 20일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한다.

운문비구니승가대학원은 수의과정 4학기, 전문과정 6학기를 개설할 방침이다. 수의과정은 승가대학 대교과 졸업생에게, 전문과정은 수의과정을 이수 교육심의를 통과한 학인스님에게 입학자격이 주어진다.

경주황성공원 체육관 건립 반대여론 '확산'

대구·울산등 69개 시민단체 철회 성명

동국대 경주캠퍼스 교수회가 10월8일 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23일 경주 대구 울산 포항 서울 부산등지의 69개 시민사회단체가 경주 황성공원내 실내체육관 건립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 반대 열기가 가열되고 있다.

경실련 경불련 대구경북지역경실련 경주환경모임 한국YMCA경북연맹 대구흥사단 울산민노총 공추불등 69개 시민사회단체는 △역사공원에 실내체육관 공사중단△중앙정부는 자치단체의 무분별한 개발행정을 시정할것 △황성공원살리기 범시민연합에 대한 고소고발 철회할것등 3개항으로된 성명을 발표했다.

경주시는 지난9월 주간 인사이드월드에 게재된 실내체육관 기사와 관련, 임모교수(황성공원살리기 범시민연합 공동대표)와 신모국장(경주 경실련 사무국장) 및 인사이드월드 발행인과 담당기자를 명예훼손혐의로 고발하는 등 경주시와 시민단체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공군 군법당에 화재 정각사 대웅전 전소

경기도 성남시 ○○전투비행단 군법당 정각사(주지 김희언 법사)에서 10월 30일 낮 12시45분경 화재가 발생, 1백30여평의 대웅전 내부가 전소됐다.

주지법사에 따르면 "법당은 요사채와 동일 건물에 위치해 있고 화재 발생 당시 사람이 법당내에 있었던 점과 불이 날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미뤄 전기 누전일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정각사 화재사건을 수사 의뢰받은 국립수사과학연구소는 10월 30일 현장 방문을 마치고 화재원인 파악을 위한 정밀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정각사측은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사후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수자원공 팔당관리소 취재방해 기자폭행

한국수자원공사 팔당관리사무소(소장 이상욱)는 10일 취재차 방문한 본지등 교계신문 기자 3명과 불교TV PD와 카메라맨 등 5명에게 청원경찰 20여명과 직원 10여명이 취재를 방해, 바리케이트를 치고 감금한뒤 폭력을 행사했다. 이 과정에서 불교TV 김원곤차장과 기자들이 찰과상을 입었으며 TV카메라가 부분파손(피해액 5백만원)됐다.

한국불교기자협회는 수자원공사측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대표자 공식사과와 피해보상 및 해당자의 적절한 인사조치를 요구했다. 한국수자원공사 이영주홍보과장은 "철저히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불우이웃에 김치 5포기씩"

문경 모전복지관 '김장캠페인' 전개

문경 모전사회복지관(관장 현관스님)이 '어렵고 소외된 이웃에게 김장5포기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어 훈훈한 화제가 되고 있다.

모전복지관은 김장철을 맞아 5일부터 12월20일까지 독거노인 및 장애인가정 등에 김장5포기씩을 지원하기로 하고 '각 가정 5포기 더 담그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지원대상은 문경시내 15개 읍면 동사무소에서 추천한 1백50세대와 복지관 자체에서 관리하는 60세대 등 약2백10세대.

이를 위해 同복지관은 '김장철 자비담그기'에 동참할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를 모집중이다. 자원봉사는 김장담그기, 차량지원, 배달서비스로 나누어지며 후원봉사는 김장후원, 물품후원, 금액후원으로 분류된다. 김장후원은 개인의 경우 5포기, 단체의 경우 20포기를 기준으로 접수하며 물품후원은 김장용 재료를 보내면 된다. 후원자가 담구어 복지관으로 전달하거나 복지관에서 담군 김장 일부는 동사무소를 거쳐 나머지는 직접 대상가정으로 배달된다. (0581)555-0108

대구=이윤호 기자

구인사 인근 석회석 광산 개발

신도·주민 "환경파괴 중단하라"

천태종(총무원장 운덕) 총본산 구인사가 석회석 광산개발과 관련, 식수고갈및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구인사 신도 및 지역주민 2천여명은 3일 구인사 주차장및 가곡면 보발리 광산허가신청지에서 농성을 갖고 석회석 광산 개발계획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다. 단양군 가곡면 보발리 산 2번지의 석회석 광산은 96년 길창선씨(54)가 광산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가 불허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길씨는 최근 광산허가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며 허가관청인 충북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 현재 대전고등법원에 계류중이다.

이에따라 구인사는 광산개발 신청지가 단양의 제2팔경인 구봉팔문지역내에 위치해 있고 구인사와 직선거리 8백50m에 위치해 광산개발시 식수고갈 및 환경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주민들도 광산개발이 허가될 경우 식수오염 통행불편과 소음, 먼지 등으로 생활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며 광산개발 허가를 불허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석회암광산 1차 채광예정지의 갱구는 구인사 일대에 보존된 석회암 대부분을 채굴대상으로 하고 있다.

경사로 설치 당부

조계종, 전국사암에 공문

조계종 총무원은 최근 각 교구본사와 직할 사암에 공문을 보내 장애인 출입 편의 시설인 경사로를 설치할 것과 장애인 차량에 대한 각별한 주차배려를 당부했다.

총무원의 이같은 요청은 보건복지부가 내년 4월부터 종교시설과 공공건물의 신 증 개축및 용도변경시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지난달 27일 입법예고한데 따른 것. 설치대상은 면적 5백입방미터를 넘는 종교시설이다.

뉴스 & 뉴스

능인선원 체육대회 '성황'

서울 강남 능인선원(원장 지광)의 제2회 능인체육대회가 3일 잠실학생체육관에서 3천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성료됐다. '꽃처럼 빛나라 연꽃처럼 피어나자'는 주제로 4개팀이 10여종목을 참여해 화합과 기량을 다졌다.

불교학회 회장에 김인덕교수

한국불교학회(회장 김영태)는 6일 동국대에서 개최한 제23회 정회원 총회에서 신임 회장에 김인덕교수(동국대 불교학·63)를 선출했다.

한국불교학회 창립 이래 첫 경선이 치뤄진 이번 정회원 총회의 회장 선거에서 김교수는 간접투표인단의 과반수 지지를 얻었다.

법륜스님 한달간 출국금지

우리민족서로돕기불교운동본부 집행위원장 법륜스님이 10월24일 법무부로부터 한달간 출국금지조치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법륜스님은 북녘동포돕기운동과 관련, 지난 10월4일 봉일원에 방북신청서를 제출했으나 10월23일 불허통지서를 받았었다. 이번 출국금지조치에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오태순신부 등 종교지도자 6명이 포함됐다.

'PD수첩' 오보 정정요구

지난 4일 MBC 'PD수첩-석용산스님은 뭘 갖고 저승가지'와 관련, 용산스님과의 여자문제 당사자인 이모씨를 '이○○ ○○불교신문 기자'라고 잘못 소개해 독자들로부터 "그런 여자가 어떻게 불교계신문에서 일하고 있느냐"는 항의를 받는 등 교계신문 여기자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계기자들은 이모씨가 불교계신문에 근무한 적도 없는데 마치 현직 불교계신문에 근무하는 것처럼 소개해 여기자들은 물론 불교계신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MBC측에 정정을 요구했다.

목탁소리

청소년포교는 애물단지?

도 필 선 〈취재1부 기자〉

'청소년'을 가리켜 미래사회 발전의 주역이요, 희망이라고 한다.

불교계 또한 청소년포교가 최대 과제며, 으뜸 육성분야로 꼽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부에서 그것은 구호일 뿐 '애물단지'로 여겨지고 있다며 아쉬움을 토로한다. 파라미타 청소년협회를 염두에 둔 말이다.

1996년 5월 '청소년포교'라는 돛을 달고 화려하고 의욕적으로 항해를 시작했던 것과는 달리 파라미타는 줄곧 포교원과의 관계 및 임원구성 등 조직운영과 이를 둘러싼 재정의 취약성이라는 파도에 흔들려 왔다. 이는 회장스님의 사의표명 및 사무국장의 사직 등의 문제로 표출되면서 교계의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와관련 청소년포교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종단이 파라미타를 육성하자니 재정과 조직 구조상의 잡음이 끊일 날이 없고, 내버려 두자니 비난의 화살을 피할 길이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파라미타를 둘러싼 이같은 문제는 포교원과의 관계정립이 명확하지 않은데서 비롯됐다는게 중론이다. 조계종 청소년포교 독립기구냐 아니면 조계종이 특화시켜 놓은 단체냐에 대한 명쾌한 관계설정이 파라미타의 대외적 위상확립 및 청소년포교에 관심있는 승·재가의 폭넓은 영입, 재정확보, 비효율적인 의사결정구조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이다.

이와함께 청소년포교의 중요성을 망각하지 않는 관계자들의 정신무장도 필요하다. 가정에서도 가장이 든든한 기둥이 되어줄 때 그 집이 화목하고 편안한 것처럼 파라미타도 총재, 회장, 사무총장이 의욕적이고 책임감있게 역할을 수행할때 설립취지 및 추진 사업 등이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불자들 또한 파라미타와 포교원에 대한 비판과 지적으로 일관하기보다 지속적인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동지 법회 설법자료 및 법보시 책

동지와 무인년 이야기



▲ 표지에 사찰명을 넣어드립니다.

동지 법어, 팥죽의 유래, 팥죽과 관련된 풍습, 동지와 불교, 동지에 얽힌 불교 설화, 호랑이 해에 생각하는 호랑이 이야기 등을 신도님들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해서 수록하였으므로 동지 법회 때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 · 록 · 내 · 용

제1부 동지맞이 기원법회
동지 법어/동지 맞이 발원문

제2부 우리의 민속 명절, 동지
팥죽의 유래/팥죽과 관련된 풍습/동지와 농점(農占)/동지의 시절 음식
불교에서 본 동지의 유래/새롭게 보는 동지/선덕여왕과 지귀/팥죽과 나한님

제3부 민속과 불교
문화와 민속 문화/민속 불교/삿됨을 막아주는 색/신성한 색

제4부 아세(亞歲-동지)를 맞아 생각하는 무인년 새해
10간 12지로 나누어 본 무상한 세월 이야기
호랑이 이야기/불교 설화에 나타난 호랑이 이야기

성도절 이야기
신국판 64페이지, 정가 1,500원
성도절 법회 법보시로 좋습니다.

◈ 200권 이상 주문시 책표지에 사찰명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 특집 '사보'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맨 뒷장에 법보시자및 법회안내 등을 넣어드립니다.
◈ 크기/4×6배판, 표지포함 52페이지 ※ 법보시 특가/1권당 1,500원

감로출판사 서울 · 종로구 수송동 13번지
☎723-4306~7 FAX:738-8682 (야간) 011-265-0923

불기 2542(무인년)달력 보급안내

납품일을 맞춰 드립니다.

동자승 (大 · 小)
산사의 향기 (大 · 小)
나한도 (小)



365일 벽에 걸린 달력은 불교위상을 높이는 말없는 포교사입니다.
해마다 이러한 사명으로 품위있고 격조 높은 달력을 만들어 수많은 사찰과 불자님들에게 기쁨을 드려왔던 **감로기획**에서는 불기 2542년도 달력 '산사의 향기(大 · 小)-사진 안장헌', '동자승(大 · 小)', '나한도(小)'를 주문 받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사찰은 연락바랍니다.
단체로 주문하실 경우에는 사찰명, 그리고 법회안내 및 주소, 전화번호를 인쇄하여 드립니다.

■ 크기 : 小(26×26.5cm) 大(30×31cm)
■ 매수 : 표지 포함 13매
■ 특수고급제본
※ 견본이 필요하신 사찰은 전화주시면 보내드립니다.

감로기획
서울 · 종로구 수송동 13번지
☎723-4306~7 FAX:738-8682
(야간) 011-265-0923

NEW & BEST
통신전문가, 한국통신프리텔은 새로운 기술과 최상의 서비스로 국민의 입에 회기 지겠습니다

통신전문가, 한국통신프리텔이 만든 PCS 016-

곧 확실한 차이를 아실 것입니다



첨단 기술과 100년의 노하우로 통화품질부터 다릅니다.

몇 마디 하지도 않았는데 끊기는 이동전화, 이름을 대기 전엔 누군지 알 수 없는 이동전화, 말 좀 할까 하면 혼선으로 짜증나는 이동전화…. 이제 이런 불편들이 모두 사라집니다. 100년을 이어온 통신전문가의 노하우와 첨단기술로 만들어진 PCS 016- 통화품질의 핵심이 되는 기지국 하나를 세우는 데에도 주변 200~300Km를 세심하게 돌아다니며 측정, 조사하였기에, 그 거리를 모두 합한다면 지구를 25바퀴 돌아다닌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축적된 이 땅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하에 첨단의 망설계, 망구축, 망운영 기술이 결합되었기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앞선 통화품질을 제공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자유롭게 통합은 물론 도서, 산간벽지까지 빈틈없이 연결하였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최상의 서비스로 국민의 믿음으로 떠오르는 PCS 016- 믿음만큼 확실한 차이를 느끼실 것입니다.

PCS 016

한국통신프리텔이 만든 PCS 016-
통신만큼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합니다.

품질 통화품질이 다르다

전파는 방해없이 바로바로 전달되어야 깨끗합니다. 국내최초로 PCS 업체중 시스템기술센터의 품질검증을 거치고, CDMA 네트워크의 최적화를 이룩한 PCS 016 - 33%가 한국통신의 교환기로 직접 연결되기에 통화품질이 타 이동전화회사보다 훨씬 안정적입니다. 때문에 데이터 등의 훼손을 방지함은 물론 통화중 잡음환상, 혼선잡음 등이 거의 없습니다.

2배 채널용량이 다르다

한국통신프리텔은 현재에 급급하여 마구잡이로 기지국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온 국민 누구라도 넉넉하게 이동전화를 쓸 수 있도록 기지국 하나를 설치하는데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래를 생각한 기지국 하나하나 마다 수용 채널수가 타 이동전화회사의 2배이기에, 통화량이 폭주하더라도 언제 어디서나 넉넉하게 PCS 016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 전국통화가 보인다

이땅의 곳곳을 누비며 축적된 등고선 자료, 전국의 도로지도, 인구통계, 건물자료 등 한국지형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고 있는 PCS 016- 전국 어디서나 깨끗한 감도로 통합니다.

97년 10월 통화가능지역 (전국 인구대비 93%)	
수도권	서울 전지역, 인천, 고양, 파천, 광명, 구리, 군포, 남양주, 동두천, 부천, 성남, 광천, 수원, 시흥, 안산, 안양, 오산, 용인, 의왕, 의정부, 이천, 파주, 평택, 하남, 부평, 기흥, 김포, 송탄, 가평, 강화, 양평, 여주, 연천, 파주, 청평등 전국, 진접, 대전, 공주, 논산, 보령, 서천, 아산, 천안, 계룡, 금산
강원권	강릉, 동해, 삼척, 속초, 원주, 춘천, 태백, 간성, 도계, 묵구, 영월, 정선, 정암, 홍천, 화천, 횡성
충청권	대전, 제천, 청주, 충주, 단양, 보은, 옥천, 영동, 영동, 증평, 진천, 괴주, 논산, 보령, 서천, 아산, 천안, 계룡, 금산, 공주, 논산, 보령, 서천, 아산, 천안, 계룡, 금산, 부여, 서산, 태안, 당진, 홍성, 예산등 충전, 무주, 장동, 조치원, 합강, 제천, 청원, 충성
호남권	광주, 군산, 김제, 남원, 무안, 목포, 정읍, 무주, 고창, 무주, 봉동, 부안, 김제, 순창, 함열, 광양, 나주, 목포, 순천, 여수, 여천, 장흥, 강진, 구례, 남원, 남평, 노화, 담양, 도암, 돌산, 무안, 부안, 순주, 장흥, 함평, 광양, 진도, 해남, 화순, 화순도, 노화도, 보길도, 나로도
영남권	부산, 대구, 김해, 경주, 구미, 김천, 문경, 상주, 안동, 영주, 영천, 포항, 합천, 창원, 마산, 진주, 고성, 구례, 남해, 산청, 삼천, 양산, 의령, 진동, 창녕, 하동, 함양, 함천, 합포, 거창
제주도	서귀포, 제주, 구좌, 남원, 대정, 성산, 신창, 애월, 조천, 한림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97년 11월 통화가능지역 (전국 인구대비 95%)	
수도권	파주
강원권	양양, 거진, 동산, 문막
충청권	금릉, 주덕, 삼봉
호남권	신태인, 운봉, 벌교, 금일, 도초도, 사도, 우도, 안좌도, 금일도, 압해도
영남권	울산, 내서, 하동, 동읍, 율현도

97년 12월 통화가능지역 (전국 인구대비 97%)	
수도권	영종도, 백령도, 덕적도
강원권	철원, 주문진
충청권	괴산, 매포, 목천
호남권	임실, 장수, 진안, 관산, 낙안, 벌교, 지도, 함평, 축산도, 흑도, 상조도
영남권	가야, 곤양, 이포, 율현등, 대합, 신월, 온산, 삼천진

소리가 보인다

PCS 016

한국통신프리텔

고객센터 080-016-0000(수신자 요금부담) 서울 02)3277-0016 부산 051)4400-016 대구 053)4300-016 광주 062)5200-016 대전 042)2500-016 단체 고객 및 법인가입자 상담 02)3277-7000 •인터넷: www.pcs016.co.kr